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 · 단청 · 조각 · 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 영 식
T. 931-2287(화실), 936-0069(전시관)

현대불교

고객을 크게 서비스는 봉생
빅맨평생통장
◆예금 거래 실적이 10배 최고 1억원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3년이상 거래하시면 거래기간에 따라 상환기간이 최고 30년까지 늘어납니다.
국민은행

명예회장 노대행 / 발행인 겸 편집인 김광삼 / 논설고문 고은 / 편집국장 최정희 / 인쇄인 김규석 / 등록번호 다-3379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 대표전화 737-8881 / 편집국 722-4162 FAX 737-0698 / 광고국 737-0692 / 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6월 12일 수요일 (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이렇게 들었다

6월은 환경의 달이다. 공해와 폐수로 찌든 지구촌은 너도 나도 '녹색운동'이 한창이다. 초기경전 〈아함경〉에는 불교가 얼마나 환경사상과 맥이 닿아있는지 잘 알게한다. 풀 한포기 동물이 하나부터 땅, 물, 불, 바람 등 뭇 생명과 자연현상에 대해 귀하게 여기며 공생을 강조한다. 환경에 대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어떠해야하는지 경전과 조사어록을 살펴본다.
〈편집자 주〉

맑고 깨끗한 불국토

"맑고 깨끗한 불국토를 원하거든 마땅히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마음이 맑고 깨끗해짐에 따라 불국토는 깨끗해 지느니라" 〈유마경〉

"대왕이시여, 법행을 행하는 왕은 불을지르지 말며, 과괴하지 말며, 불을 태지말지니, 이것이 부처 세간을 보호하는 것이옵니다. 일체가 착하지 못한 업을 짓기 때문입니다. 〈대살차니건지 소설경〉

깊은 산속 불법(佛法)은 바위가 그것 큰 바위 작은 바위 저마다 둥글다 거짓 부처님을 만드느라고 공연히 버팀개어 법신(法身) 상했네 〈백운스님 '금강산 내 석불상'〉

따지고 보면 육도(六道) 중생이 모두 내 아버지요 어머니다. 그러므로 산 목숨을 잡아먹는 것은 곧 내 부모 형제를 죽이고 내 옛몸을 먹는 일이나 마찬가지다. 〈범망경〉

세상에 있는 고기치고 생명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는 고기 먹는 것을 죄라고 말하며, 자비의 종자를 끊기 때문에 먹는 것을 허락치 않는다. 〈방가경〉

"노승이 30년전 참선하기 이전에는 산은 청산이요 물은 녹수였다. 그러던것이 그 뒤에 어진스님을 만나 깨침에 들어서고보니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을 물이 아니더니, 마침내 진실을 깨치고보니 산은 의연코 산이요 물은 의연코 물이더라" 〈청원 유신선사 법어〉

망의 세계가 즐거움을 수반하고 즐거움을 드러내고 괴로움을 드러내지 않으며 즐거운 까닭으로 뭇삼들이 땅의 세계에 탐착한다. 〈상응이함경〉

본래 산에 사는 사람이라 산중 이야기를 즐겨 나눈다. 5월에 솔바람 팔고 싶으나 그대들 값 모르까 그게 두렵네 〈선종고련〉

"인간은 자연을 이용하기를 꿀벌이 꽃가루를 채집하듯 하라. 꿀벌이 꽃의 아름다움이나 향기를 다치는 일이 없듯이 사람도 자연을 이용할때 자연의 풍요로움이나 아름다움을 오염시켜서도 안되며 자연에게서 회복력과 활력소를 빼앗아서도 안된다." 〈법구경 회향품〉

관련기사 3 · 6면

"황룡사 복원하자" 여론 확산

경주시 조감도 계획서등 정부에 제출
조계종 폐사지 복원등 전사법 개정 추진

우리나라 최대의 사찰이었던 황룡사(경북 경주시 구황동, 사적 제6호)를 복원하자는 여론이 일고 있다.

황룡사는 569년(신라 진흥왕 31년) 17년의 공사기간을 들여 완공된 우리나라 최대규모의 사찰로, 황룡사 9층목탑과 함께 불교문화의 우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꼽힌다.

황룡사가 위치한 경주시는 이미 황룡사 복원계획을 지난해 확정하고 고건축전문가 이형재씨(동남건설사무소장)에 의뢰해 황룡사 복원 조감도를 마련했으며, 문화재관리국에도 황룡사 복원정비 기본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용권 경주시 문화과장은 아직 황룡사 복원계획을 밝힐 단계는 아니라면서도 "황룡사 9층탑의 경우 현재의 기술로는 완전복원이 어려운만큼 탑내부는 콘크리트, 외부는 목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내부논의가 있었다"고 밝혀 복원계획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지난 5월26일 KBS가 일요스페셜에 방영한 '영상복원-황룡사'는 복원여론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했다. 컴퓨터그래픽 기법을 활용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불국사 6배 크기(2만5천평)의 황룡사와 80m 높이로 복원된 9층탑을 재현해 황룡사의 장대함을 입체적으로 보여주었다. 〈관련기사 4면〉

얼주 조계종총무원장도 전통사찰보존법을 개정, '이미 소멸된 사찰이라도 사지가 멍백히 남아 있는 경우 그 역사적 가치가 있을 때에는 복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폐사지복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토록 하는 등 종단차원에서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구체적인 복원계획이 나오면 조계종과 자연스럽게 협의가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9층탑을 포함 황룡사 전체 복원에만도 2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아직은 복원을 위한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다.

황룡사지는 1976년부터 10년간 발굴조사가 진행되었다. 조사결과 황룡사는 금당터와 9층탑지의 주춧돌이 그대로 남아있어 당시 건형의 윤곽은 거의 밝혀졌다.
〈정성운 기자〉



"호국영령들이여 극락왕생 하소서" 금강경독송회(지도법사 김재웅)회원 1백여명은 지난 6일 현충일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립묘지 무영용사탑에서 호국영령들의 넋을 추모하며 금강경을 독송했다. 〈고영배 기자〉

고속철 경주우회 최종 확정

문화재 피해 최소화 교계·학계등 환영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이 경주도심을 우회하는 노선으로 최종 확정됐다.

나웅배 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공식발표를 통해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은 경주를 경유하되 건천-화천으로 도심을 우회하는 문체부안을 바탕으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으로 결정됐다며 곧 항공측량과 지표조사 등 설계와 시공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5일 이수성 국무총리 주재로 김영수 문화체육부장관 추경석 건설교통부장관 구본영 청와대경제수석 박세일 사회복지수석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노선 문제를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종 노선을 확정짓지는 못했지만 건교부가 제안한 도심통과 노선과 대구-부산 직진노선은 논의과정에서 제외했다.

경주도심통과 반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화추진위 이기영 위원장은 "최선의 안은 아니지만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담은 현실적인 결정"이라며 "이후 고도보존법의 제정을 통해 경주는 물론 백제의 문화유적이 있는 공주 부여 등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자연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륵반가상' 올림픽행사 美나들이
위험대비 4백억원 보험가입

본지가 우리 민족정신과 전통문화를 올바르게 인식시키기 위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데생용 미륵반가상(국보 제83호) 석고모형 보급운동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이 금동미륵반가상이 해외에 출품돼 화제가 되고있다.

금동미륵반가상은 애틀란타 올림픽 문화예술행사의 하나인 미국 애틀란타의 '하이 뮤지엄 오브 아트'에서 열리는 '링스전(Rings展)'에 출품돼 오는 7월4일부터 9월29일까지 전시된다.

미국측은 현재 국립부여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이 불상을 내걸 때부터 다시 들여올 때까지 있을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비 4백억원의 보험에 가입해 최근 크게 높아진 우리 문화재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반영하고 있다.



◇본사 김광삼사장(사진 오른쪽)은 지난 4일 개교50주년 맞은 광동중합고 김교남 교장에게 데생용 미륵반가상을 전달했다.



◇혜도스님



◇류진수 회장

데생용 반가상 중·고교 전달

동참해주신 분

△혜도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부산 광명고 남도여중 남중 동산여중 남고 남여상고 체육고 부산해사고 신선중 영도여고 영도여중 영도여상 영도중 해동중 부산공예고(15구좌) △상현 기원사스님: 의정부여고 덕정중(2구좌) △성의 용문사스님: (1구좌) △류진수 부산불교신도회장: (5구좌) △이경순: 부산 남민여중(1구좌) △김남홍 지족암창건주: 만동 서부초등 안동여고(23구좌) 〈1996년 6월5일 현재 총 278구좌 접수〉

◇보급기간: 1996년 4월부터 12월31일까지

◇혜택: ◇종단·사찰·기업·단체·개인 누구나 가능 ◇구좌단위로 참여한다(1구좌 10만원) ◇수령학교를 지정할수 있다(지역 학교·출신모교·자녀가 다니는 학교 등)

※ 문의=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 온라인구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감은사東탑 유물 회보 16면
환경의 날 특집 3면
월간 '동쪽나라' 재정난 휴간 12면
봉은사 '고층건물 몸살' 심각 15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로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전자게시판 BBS 모뎀번호 ~XXX-7XXX-3

고객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 삼성
초고속 펜티엄활주로가 열렸다!
EDO RAM
멀티미디어의 삼성전자
EDO-DRAM
가격은 경제적으로 성능은 획기적으로-
멀티미디어PC 최적의 성능을 위한 삼성 EDO-DRAM
1 가격부담이 없다. EDO-DRAM은 속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면서도 범용 DRAM과 가격차이가 없어서 부담없이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2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다. EDO-DRAM은 Data 연산시 Fast Page DRAM 대비 60%의 성능향상을 보이므로 CPU와 Memory 사이의 속도차이에 의한 병목현상을 개선합니다.
3 손쉽게 확장된다. EDO-DRAM모듈은 펜티엄 PC에서 Fast Page DRAM 모듈과 같은 소켓에 업그레이드가 가능해 구입즉시 쉽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4 캐쉬메모리와 함께 최상의 성능을 발휘한다. EDO-DRAM을 Synchronous Cache와 같이 사용하면 멀티미디어 PC 환경에서 최상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EDO-DRAM Module

Org.		품목명	Speed(ns) tRAC	Speed(ns) tHPC	Bank구성	비 고
4MB	1M×32	KMM5321204AW-6	60	30	Single	양산중
8MB	2M×32	KMM5322204AW-6 KMM5322104BKU-6	60 60	30 30	Double Single	양산중
16MB	4M×32	KMM5324104BK-6	60	30	Single	양산중
32MB	8M×32	KMM5328104BK-6	60	30	Double	양산중

Synchronous Cache SRAM

Org		품 목 명	Speed(ns) tcycle	Bank 구성	비 고
1MB	32K×32	KM732V589G-15	15	Multibank support	양산중
	64K×16	KM716V689G-15	15	Multibank support	양산중

반도체 판매본부 ■메모리국내영업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84-11 (센트럴스빌딩 16층) TEL : 259-4704~6 FAX : 259-2478
■국제무역점 • 세원반도체(주) : 597-8121 • 삼성금전(주) : 718-0045 • 신성반도체(주) : 3272-9300 • 한국반도체(주) : 539-4123 • (주)삼테크 : 3458-9000 • 선인교역(주) : 702-1257~8 • 무진전자(주) : 753-4890~2 • 길원전자(주) : 784-9966~7
Smart & Soft SAMSUNG 삼성전자

사 설

경주와 문화 월드컵

—고속철 경주우회 결정을 환영하며

현 정권의 무모한 개발정책이 문화재보호를 외치는 여론의 압력에 밀려 제동이 걸렸다.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있어서 우회통과노선으로 결정될 것이 확실시 된다. 경제논리만을 앞세운 경주시내 관통을 고집했던 이른바 건설교통부안인 형산강노선이 무산된 것이다.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한 결정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더구나 2002년 월드컵을 유치하고 우리문화 우리 것을 세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는 시점에서 우리의 문화·문화재의 보존이 얼마나 중대하고 절실한 사안인가 깨달을 수 있었다.

정부당국의 경주도심통과안이 발표되자마자 사부대중이 함께 범불교적인 대책기구를 발족하여 백지화를 위한 투쟁에 나섰었다. 특히 재가회의가 중심이 되어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발족된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백지화추진위원회'는 민족문화유산인 성지 '경주'는 꼭 지켜야 한다는 신념아래 범국민적인 계몽운동을 펼쳐왔다. 우선 서명운동을 통해 15만명이 넘는 불자들의 동참을 얻어냈다. 여러 차례 세미나를 개최하여 이론적인 뒷받침을 마련했고, 성명서·건의서 등을 통해 잘못된 정부정책의 철회를 거듭 촉구한 바 있다. 각계 각층의 시민운동단체와 연대하여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여 갔다. 이러한 경주지키기 운동은 문화재에 관한 정부정책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지지를 받아냈고 문화체육부가 '건천-화천 우회노선'을 제안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고속철도 경주도심통과 결사반대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왔고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건교부안의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문화재의 산실인 경주의 파괴는 민족역사를 말살하는 매국적 행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일제가 우리민족의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 경주중심을 관통시켜 놓은 동해남부선도 이전하고 경주문화재를 전혀 손상시키지 않은 새로운 경주 우회노선의 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중대한 정책을 졸속·밀실행정 차원에서 확정해서는 안된다. '역사 바로세우기'의 차원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연구·검토한 다음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경주가 살아 숨쉬는 역사박물관임을 정책입안자들은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된다. 이번 정부정책 철회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많은 교훈을 얻었다.

첫째, 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옛 격언을 다시 한번 새기게 된다. 경주의 옛 도시 보존과 문화재보호를 위해 부처님의 정법수호 차원에서 지속적인 투쟁을 벌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불교계의 역량과 저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새삼 인식시켜 주었다. 우리 불자들이 조금만 더 적극적인 삶의 자세를 가진다면 불교사회운동을 통한 깨달음의 사회화는 쉽게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세계화·개방화 시대에 외국인들에게 자랑스럽고 훌륭한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자존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월드컵 축구대회, 아시안게임 등 각종 국제행사를 유치함으로써 관광문화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가고 있다.

셋째, 정부는 국가정책수립에 신중을 기해 오류가 없도록 노력하길 바란다. 지난 92년 경주노선 발표후 4년만에 원점으로 돌아감에 따라 막대한 재정낭비와 국력낭비를 초래하였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더이상 시행착오가 없기를 기대한다.



◇태고종은 5월 29일 서울 한강시민공원 야외공연장에서 1만여명의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2002년 월드컵유치 성공기원 10만 관등 영산대법회를 개최했다.

열린마당

2002년 월드컵과 불교

한반도를 온통 축구열기로 채운 2002년 월드컵유치 경쟁이 성공리에 끝났다. 이번 월드컵 유치에는 어느 때보다도 불자들의 염원이 간절했다. 한국 월드컵의 새 장을 화려하게 열어놓은 불자들의 기원은 6년 후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월드컵을 앞두고 불교계가 해야 할 일을 미리 챙겨본다. 〈편집자 주〉

선의의 경쟁 한일감정 해소

재 홍 〈태고종 교무부장〉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가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참예한 민족감정으로 대립된 두 나라중 어느 한쪽에서 개최되기 보다는 공동개최된 것이 잘된 일이라고 본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남은 문제는 누가 더 성숙된 모습으로 대회를 치뤄내느냐에 있다. 이것 또한 온 국민이 하나된 마음으로 일본과 겨뤄야 하는 민족감정이라면 선의의 경쟁이 될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앞으로 다가올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뤄내기위해 온 국민과 더불어 함께 노력해야할 것이며 태고종은 다시 한번 부처님전에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치뤄낼 수 있도록 기원하는 영산대법회를 계획하고 있다.

불교 전통문화 재조명 기회

성 광 〈화계사 국제선원 부주지〉

불교계는 이번 월드컵대회 유치를 계기로 국제포교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한국불교가 세계의 불교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그동안 한국불교가 국제사회에서 올바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심지어는 일본이나 타불교국의 불교로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드컵대회를 유치했다는 기쁨보다는 지금의 한국불교의 모습을 재조명해 볼 때다. 1천6백여년동안 한국문화의 큰 맥으로 이어온 한국불교가 국제사회에 올바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같이 찾아보자.

지금부터 팔만대장경, 천년고찰 등 수많은 불교문화재의 진수를 알리고 해외포교의 신기원을 이룰 수 있는 범종단 차원의 준비작업을 서둘러야 하겠다.

국제포교사 조직화 할때

이 완 배 〈국민체육진흥공단 무량회고문〉

올림픽과 함께 세계양대 스포츠제전인 월드컵은 단지 체육행사에 머물지 않는다. 경제는 물론 정치·문화 등 우리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불교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세계화의 현장이며, 불교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경기가 열리는 지역의 사찰안내 팜플렛 등 홍보물을 만들어야 한다. 외국어에 능통한 불자들과 지난해부터 배출되기 시작한 국제포교사를 조직화해서 불교의 세계화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자원봉사도 불자가 앞장

김 흥 국 〈대한불자가수회 회장〉

2002년 월드컵 유치 날짜가 다가오자 초조해지면서 종교적 힘이 필요했다. 이를 극복하고자 2002배를 하게 되었다.

이처럼 월드컵유치에는 개인뿐 아니라 종단차원으로 불교계가 앞장섰다.

6년 앞에 있는 월드컵 성공개최에도 불교도가 앞장서야 하겠다.

축구장을 많이 찾아주는 것은 물론 절대적 인원을 필요로 하는 자원봉사자, 한국을 찾는 관광객 안내에 이르기까지 불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겠다. 특히 월드컵 유치는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이면서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훌륭한 불자문화인이 되는 것도 월드컵을 앞둔 불교도들의 몫이라 하겠다.

인터넷 포교 자료구축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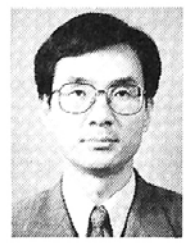
박 수 호 〈천리안불교동호회 시삽〉

올림픽이나 월드컵같은 세계대회는 이제 개최국의 모든 것, 특히 문화적 자산을 드러내는 복합적인 이벤트이다.

우리나라의 문화적 자산은 불교의 우수성이라고 믿는다. 나는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가장 효과적으로, 손쉽고 빨리, 그리고 전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매체는 컴퓨터 통신이나 인터넷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아있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컴퓨터통신이나 인터넷을 통해 유네스코가 세계문화재로 지정한 석굴암과 팔만대장경의 영상자료와 그에 따른 해설, 불교 사이트를 통한 선불교의 재인식 계기 제공,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의 홍보 등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알리는 노력을 계속해야 하겠다.

나의 견해



박 경 준 〈동국대 불교학과 교수〉

한국불교 바로 알리는 문화잔치로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가 결정됐다. 이제는 2002년 월드컵 개최를 위한 차분한 준비가 필요하다.

불교계 또한 새로운 전환의 기회로 십분 활용할 때임을 알아 월드컵을 통한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준비해야 한다.

불교를 세계에 알린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하겠지만 일제치하에서 왜곡되고 차단된 한국불교의 전통과 사상을 바로잡아, 올바르게 구미각국에 알리는 일은 한국민의 몫임을 우리는 각인하지 않을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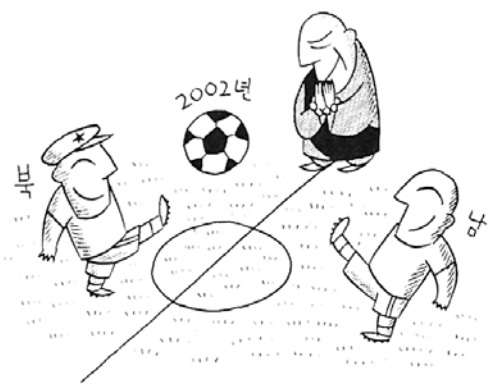
한국불교의 고유의 전통과 사상, 그를 통해 일본불교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고 한국불교의 위상과 우수성을 정립할 때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행사를 넘어 문화대제전으로 승화할 수 있다. 또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할 수 있는 첩경일 것이다.

때문에 월드컵을 준비하는 불교계의 노력은 더욱 막중하다. 우선 한국불교를 구미각국에 제대로 알리기 위해서는 외국어 홍보책자를 제작해 배포하고, 불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불교학자를 초청, 미래사회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불교에 대한 재인식을 시도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한국불교의 전래를 통해 일본불교가 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학문의 일본 역수입이라는 모순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전환의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불교계는 문화잔치로써 여법하게 월드컵을 치뤄내기 위해 불자 개개인 모두가 '살아있는 정신'으로 한국불교의 우수성을 세계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준비하는데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현대만평

박구원



통일돼서 함께…

목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들 각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적 현상의 그림자다. 우리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 세상의 상태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 물질적인 풍요만을 추구한 나머지 인간의 심성과 생활환경이 말할 수 없이 황폐된 것은 누구의 탓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 자신이 저지른 재앙이다. 흙과 물과 나무와 공기와 햇볕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들이 그와 같은 고마운 자연을 끊임없이 더럽힌다.

일찍이 동양의 신앙은 산하대지를 신성한 존재로 여겨 귀의의 대상으로 삼았었다. 그래서 인간과 환경과의 조화를 이루었다. 그러나 서양의 백인들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고 환경의 지배를 추구했다. 그 결과 과잉소비와 포식사회를 이루어 오늘날과 같은 온갖 질병과 환경위기를 불러들인 것이다. 삶의 원천을 망각한 채 도시화와 산업화로 줄달음치면서 날로 인간의 설 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다.

우리들의 그림자

이제 새삼스럽게 삶의 질을 문제삼을 만큼, 그동안 우리들이 추구했던 그 풍요가 한낱 허구임이 드러나게 되었다. 자연에서 이탈한 인간은 그만큼 부자연스럽다. 커다란 생명체인 이 자연에 대한 존경심을 잃으면 자연 속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인간을 깔보게 된다. 우리가 어머니인 대지에 소속되려면 먼저 그 대지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돌아가 그 품에 안길 대지를 살아 있는 생명체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현재와 같은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과 생활습관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지구는 황량한 사막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봄이와도 꽃이 피어나지 않고 새들도 찾아들지 않을 것이다. 꽃이 피지 않고 새들이 떠나간 땅이라면 얼마나 적막하겠는가. 그런 곳에서는 생물인 인간도 살아갈 수 없다."

최근 출간된 법정스님의 명상에세이집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의 머리말이다.

소리내어 대중앞에서 낭송이라도 하고싶은 마음이었는데 마침 6월5일 환경의날을 맞아 너나없이 자신의 그림자를 보았으면 싶어 그대로 옮겼다.

새싹불자를 위한 부처님 말씀

말로써 옳고 그름 가리려하면

너희들은 서로 싸우지 말라.
말로 말로써 옳고 그름을
가리려하면 한 평생을 싸워도
끝날 날이 없으리라. 오직 참
는 것만이 진실로 말싸움을
끝낼 수 있나니.

〈중아함경〉

협찬 관 음 암
주지 지 인
TEL.(0394)34-8600

청정운동 실천전국대회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청정운동 선언문

오늘날 이땅의 겨레는 화합의 가치를 잃고 지혜로운 삶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인간 상실의 시대를 살고 있다.

종교는 권위와 세력을 위한 집단 이기심으로 갈등의 불길이 팽배되고 있으며 정치는 권모와 술수로 감정의 대립을 계속하여 불신과 오욕의 어둠속에서 민족의 동질성을 잃어가고 있다. 물질에 대한 무분별한 욕심은 공기와 물, 나무와 땅을 훼손하여 다시는 되돌리기 어려운 상태로 이 강산, 이 국토를 더럽히고 있다.

오늘 우리는 결사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으니 그것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이루고자 하는 "청정운동"의 길에 우리 모두가 하나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의 가르침을 생활 속에 살리고 올바른 사회 질서를 선도하여 이 땅을 깨끗이 함에 큰 물줄기를 이루고자 함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본래 부처님의 가르치심이었고 이땅의 겨레가 수천년을 지켜온 아름다운 모습이었음을 자각하며 "청정운동"의 대열에 우리 함께 매진할 것을 선언한다.

청정운동 '96실천지침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을 위하여

■ 매주 월요일은
· 아침 예불을 올리고 독경, 참선 등 수행을 한다.
· 술, 담배, 고기를 먹지 않고 음식물을 남기지 않는다.
· 달을 삼가고 화내지 않는다.
·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한다.

■ 매월 1회 이상
· 가족이 함께 법회에 참석한다.
· 가족과 직장 단위로 한달간 돈을 모아 보시한다.
· 환경 개선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 활동을 한다.

대회일정

지역	전주	광주	대전	논산	부산	대구	서울
일시	6월9일(일) 오후 2시	6월18일(화) 오후 7시	6월28일(금) 오후 7시	6월30일(일) 오전 10시	7월6일(토) 오후 3시	7월7일(일) 오후 3시	7월17일(수) 오후 2시
장소	전북예술회관	남도예술회관	우송예술회관	연무대 법당	부산일보대강당	대구시민회관	다보빌딩대법당
연사	정 병 조	강 건 기	송 석 구	고 은	목 정 배	이 기 영	이기영 외
연제	"깨끗한 마음, 깨끗한 세상"						회향대회
주최	"청정운동"추진협의회						
주관	한국불교대원회 전북불교대학 외	한국불교재가회의 광주불교능인회 외	대불련총동문회 대전 대불련 동문회 외	대한민국육해공군 군승단 외	대한불교청년회 대불청 부산지구 외	구도회 대한불교대불회 외	우리는 선우 대한불교진흥원
협찬	동국제강주식회사						
문의	전국불교대학 0652-86-3977	광주불교능인회 062-226-5161	대불청대전지구 042-585-7790	호국 연무사 0461-741-3734	대불청부산지구 051-862-0082	대한불교대불회 053-254-2430	대한불교진흥원 02-719-2606

청정운동 추진협의회 : 121-050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 대한불교진흥원 내 / 전화 : 02-719-2606 / 팩스 : 02-719-5052

환경의 날 특집

"작은 실천이 나와 자연을 살립니다"

5일 '환경의 날' "불교가 환경운동에 앞장서자"

불자서원 채택·공연·전시등 청정국토한마당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96년 불교환경축제인 '제2회 96 청정국토한마당'이 지난1일과 2일 조계사와 수송공원일대에서 다채롭게 열렸다. 1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종총무원장 월주스님 환경부 정종택장관 환경운동연합 최열사무총장 공해추방불교인모임회장 성타스님 불교환경교육원장 법륜스님 조계종 총무부장 법타스님 태고종 총무부장 법현스님을 비롯 청년 어린이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정국토한마당 기념법회가 열렸다. 이자리에서는 '만 생명을 위한 불자의 서원'을 구체적인 실천강령과 함께 채택하고 생명살리기인 불교계의 환경보전의지를 다졌다. 이어 2일에는 2천여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연 청소년·어린이관련행사 환경전시행사 교환 및 판매행사 캠페인행사 학술행사 등이 조계사와 수송공원 일대에서 다채롭게 펼쳐져 불교의 환경정신을 재다짐했다.

만 생명위한 불자서원

1. 뭇생명을 나의 부모 형제처럼 소중히 공경 하겠습니다
2. 평등·평화 이루는 생명살림의 일꾼이 되겠습니다
3. 물질보다 마음을 풍요롭게 하겠습니다
4. 더럽고 하찮고 싫은 일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5. 불편하더라도 자연 살리는 길을 택하겠습니다
6. 무소유 정신으로 이웃에게 자비행을 실천 하겠습니다
7. 모든 물건을 소중히 다루겠습니다
8. 절제의 마음으로 생활하겠습니다

청정한마당 이모저모

환경노래극 공연 갈채

○… 조계사 대웅전앞에서 1일과2일 양일간 공연된 녹색예술단의 환경마당극 '금수강산 좋을씨고'는 수공가를 현대적으로 각색하여 환경노래 춤 연극이 어우러진 노래극을 펼쳐 많은 박수갈채를 받기도.

○… 조계사 백송밑에서 봉행된 경불련 환경모임의 발우공양의식 시연〈사진〉은 많은



언론매체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며 특히 음식쓰레기가 전혀 안나오는 것에 놀라움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고사리 손도 '환경보호'

○… 청년정토회의 생명나무만들기는 어린이들이 푸른 생명의 나무에 환경의지를 모아 글을 쓴뒤 매달았는데 금새 풍성한 열매가 맺혔다.

○… 전통사찰음식 만들기 시연장에는 이다원어린이(개봉초등학교 4학년)가 꼬마요리사로 시연을 펼쳐 화제. 길을가던 스님들과 보살님들은 시식하며 만드는법을 배워가기도 했다.

"국립공원개발 환경파괴"

○… 한국불교문화원이 국립공원 사찰환경에 대한 입장관에 녹색스티커를 붙여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의 설문조사에는 2백50여명의 불자들이 참여했다. 불자들은 국립공원의 개발은 자연환경이 파괴되므로 제한하고 입장료징수는 국립공원입장료만 내야한다는 입장이었다.

○… 수송공원에서 열린 환경만화가 사인회에는 4백여명의 어린이들이 참석하여 길게 줄을 늘어서면서도 즐거운 표정.

환경수행 캠페인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

환경운동은 생명 살리기 운동이다. 따라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는 수행 곧 환경운동이다"는 '환경수행' 캠페인이 교계에 확산되고 있다. 지구보전의 위기 속에 이 운동의 길잡이로 최근 조계종이 펴낸 '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에서 꼭 지켜야 할 생활 속의 환경수행 '지금 나부터 바꿔봅시다'와 사찰에서의 환경지침 '사찰중심으로 생명살리기 운동'을 간추려 소개한다.

생활속의 환경지침

1. 물은 생명 아껴쓰고 잘 보존하자

'물쓰듯 한다'는 이제 옛말. 천연세제 사용, 지하수오염 방지, 세탁물 재사용 등으로 맑은 물 지키고 절수하자.

2. 쓰레기, 검소한 생활로 해결

우리나라 년간 쓰레기 총량은 5천만톤. 음식량 조절, 일회용품 줄이기, 물건대물림, 종이 재활용, 사찰증심 재활용운동 적극 펼치자.

3. 바른 식생활로 자원절약

육식문화 지양, 제철과일 먹기, 외식지양, 검소한 식단, 소식 생활화, 발우공양 등으로 생명살리는 문화를 이루자.

4. 자연생태계를 보호하자

생물 서식지 보호, 남획방지, 농약사용 줄이기, 외래어종 무분별 도입방지, 매장을 화장으로.

5. 녹색교통운동으로 환경보존

대중교통 이용, 승용차는 소형으로, 자전거 이용, 카풀제 동참, 자동차는 꼭 필요할 때만 타자.

6. 에너지 절약 생활화

냉난방 적당히, 조명기구 주기적 청소 및 교체, 부분조명사용, 엘리베이터 닫힘버튼 누르지 않기.

사찰서의 환경지침

1. 사찰을 환경적으로 바꾸기

대형불사 무분별한 국토개발로 인한 사찰 환경파괴를 막자.

2. 사찰에서 환경교육을

법문시간에 환경교육 상설 지역주민 참여유도, 발우공양등 불가전통의 생활수행 집중 수련, 잘 보존된 곳과 파괴현장에서의 체험교육

3. 우리사찰 알고 가꾸기

사찰 문화유산 조사, 환경지도 만들기, 국립공원 보존운동

4. 사찰 환경위원회 결성

사찰의 환경교육 수료생 중심으로 녹색회등 구성

5. 국립공원 지키기

무분별한 개발, 계곡 오염, 나무훼손방지, 매립쓰레기 처리, 사찰입구 자가용 출입금지, 사찰유래·문화 소개

6. 생명살리기 방생법회

방생지역 특성조사, 먹이주기, 방생장소 깨끗하게, 낚시금지, 환경야외법회 개최

7. 알뜰시장 생협운영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쓰는 정기 알뜰시장, 재활용품·유기농산물 상설매장, 전자제품 수리센타 운영

8. 사찰에서 환경캠페인

천천히 살기, 발우공양, 우유팩 모으기, 자동차 안타기, 작게 살기 건전한 휴가 보내기, 청년회 휴가지역 녹색규찰 등

환경운동 불자
원 상 식씨



인터뷰

"마음 맑아야 공해도 줄어요"

택시운전하며 카메라들고 환경감시

94년 8월 원씨는 삼익건설 건축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는 것을 보고 관리자에게 1차 환경계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화학폐기물을 소각하자 사진은 고작 벌금조치했다는 통지서 한장뿐이었다. 그래도 그는 카메라를 들고 폐수 불법쓰레기 매연 단속을 계속하고 있다.

"사회가 혼탁하기때문에 환경도 혼탁해지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원씨는 차내에서도 부처님 말씀 테잎과 환경캠페인테잎을 승차한 사람들에게 들려주어 마음을 맑게 하고 있다.

"환경운동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관심을 갖자는 것이지요."

모범택시를 운전하며 카메라를 들고 환경감시와 환경실천운동을 자발적으로 펼치고 있는 원상식불자(법륜회 회장). 90년 불교방송 통신원으로 불교와 인연을 맺은뒤 93년도부터 환경에 깊은 관심을 갖고 활동중이다.

매주 일요일이면 가까운 산을 돌며 쓰레기와 오물수거작업을 벌이는 것은 물론 폐수 오물 폐유 감시운동도 펼치고, 굔소 손님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주는 것은 그의 일상적인 생활이다.

이와함께 불교방송 통신원모임에서 보내는 화환도 깃발로 대치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그는 환경실천이 몸에 배인 '환경불자'이다.

김원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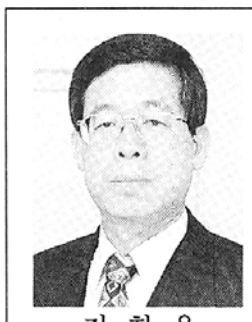
시 론

21세기 환경이 좌우한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헌법 제35조 제1항). '자연은 인간의 모체이며 삶의 터전이다. 공기와 물과 흙과 같은 환경의 은혜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지금 적절하게 대처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환경은 더욱 오염되어 품위 있고 건강한 삶의 유지는 물론 지속적인 국가발전도 어렵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권리와 환경을 보전해야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확인하고…'(1992.6.5자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선언문)

광안리 앞바다의 수질

인류의 역사는 우리의 생존과 발전의 조건인 개발·성장을 중심으로 오늘날의 풍부한 재화와 편리함을 가져왔다. 그러나 도시화·산업화와 인구증가 및 생산구조의 변화·과학기술혁신은 필연적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의 오염과 훼손을 초래하고 자원의 소모를 가중시켜 앞으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에 관하여 많은 회의론이 있어왔다. 개발·성장과 환경의 보전은 인간의 이중적 욕구로서 이러한 양자를 모두 이루기 위해서는 과괴를 수반하지 않는 개발, 개발과 환경보전의 조화라는 상호모순적이기도 한 2개의 목표를 모두 달성해야 하는 어려움을 맡고 있다.



김 희 옥
〈사법연수원 교수·부장검사〉

우리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 또는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환경이다. 보통 모든 생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인 자연환경과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재산의 보호 및 동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생활환경으로 나누지만 그 양자 모두 우리 인류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환경침해는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일체의 환경오염 행위로서 사람의 건강에 위해를 주거나 이에 관련된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넓은 의미에서는 인류의 일상생활 자체가 환경침해 행위를 반드시 수반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번 침해된 환경은 그 회복이 극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는데 오늘날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있음은 우리 모두 아는 사실이다.

문제는 우리에게 필요한 개발·성장을 위하여 어느 쪽을 어느 정도 훼손하고, 침해를 최소화하며 훼손된 환경의 복구를 위하여 어떻게 노력할 것인가에 있다. 개발·성장의 필요와 욕구는 여전히 증대하고, 그 역기능으로 환경훼손·오염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필자는 약 18년전 부산지검에 근무할 무렵에 광안리에 있는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때 광안리 앞 바다의 수질은 비교적 자연 상태에 가까운 보통의 바닷물이었다. 재작년에 다시 부산지검에 근무하게 되었고 마치 관사도 광안리에 있어 매일 아침 1시간씩 바닷가를 걸으면서 수질을 살펴보니 너무나 오염정도가 심하여 그 원인을 따져본 일이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그 포구 양안에 대형 매립이 이루어져 해수의 흐름을 막고 방향도 바꾸어 버렸는데 이에 따라 해수욕장으로 사용되던 모래사장은 그 기능을 잃고 진흙화되어 버렸다. 부근의 생활오수도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과연 이러한 정도로까지 파헤치고 개발을 해야하는 것인지, 또는 그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과 앞을 내다보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이 결합되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이미 이전에 그러한 결과가 오리란 것을 예측하지 못하였던 것인지… 여름이 오면 멀리 하동에서 섬진강 모래를 배로 싣고 와서 해변에 깔아야 할만큼 자연환경, 생활환경을 해치고 만 것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환경을 훼손하는 개발을 계획하기 이전에 우리는 환경을 이익을 얻는 객체만으로 여기지 말고, 환경이야말로 부처님의 진리, 사물 그 자체(dharma)라고 생각하고 우리 인간과 동등한 주체의 위치에 있다는 입장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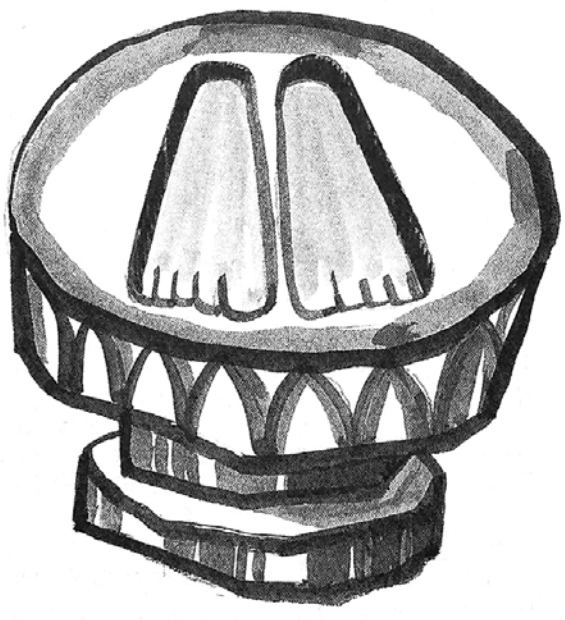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들 한다. 그만큼 환경보전이 21세기 경쟁력을 좌우한다. 더구나 지난 5월31일은 제1회 바다의 날이었다. 신라말 장보고 장군이 법화사상에 이념을 두고 청해진을 건설한 이날을 기해 바다의 날이 정해지고 해양부도 신설키로 했다. 미래의 국토인 바다 경영의 틀을 다시 짜자는 것이다. 어류남획 바다오염 등 우려되는 해양환경의 파괴로부터 장기대책을 세워야 한다.

개발정책의 눈 높이자

환경의 개선과 보전은 어느 누구, 어느 정부기관의 노력으로 될 문제도 아니고, 구호성의 캠페인으로 해결될 수도 없다. 환경을 다르마와 같은 고양된 가치체계로 인정하는 우리 모두의 철저한 의식을 바탕으로 개발·성장비용과 같이 환경비용도 필수적으로 책정해야 한다. 오히려 선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정책의 눈을 높인 다음 높은 과학기술의 지원을 받아야 환경문제의 실상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환경은 우리 모두와 꼭같은 주체적인 가치 덩어리이고, 더이상 성장·개발의 대상으로만 두어서는 안된다. 이제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하는 우리 모두의 철저한 의식과 정책의 계발, 시행이 절실하게 요구된다.

생활 속의 불교 ⑦⑥

내가 태어나고 이 세상 벌어졌으니…



화두(話頭)란 무엇인가? 말의 첫머리이다.

말은 마음에서 나온다. 생각도 마음에서 나온다. 고로 마음이 말의 머리요, 생각의 머리이다. 마음(心)은 화두·염두이다. 그러므로 화두는 드는 게 아니라 보는 것(看話頭)이다. 간화선이란 바로 화두를 보는 수행, 즉 마음을 관하는, 비춰 보는 수행이다.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한 마디 말하기 이전의 자리를 관조(觀照)하는 것이다.

고로 화두는 줄 수도 없고 들 수도 없다. 어떻게 마음을 따로 들고 따로 주겠는가. 주고 받는 것은 공안(公案)일 뿐이다.

화두란 곧 마음이니 굳이 화두를 든다 함은 나의 일거일동을 누가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끊임 없이 의심하고 관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따로 공안도 필요 없다. 누구인가? 누가 하는가?라는 의문이 그대로 공안인데 거기에 무엇을 덧붙일 것인가? 덧붙인다면 군더더기요, 긁어 부스럼일 뿐이다.

어떤 사람에게 '그대는 그대가 누구인 줄 아는가?'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헛소리쯤으로 여길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 부모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해서 태어나게 되었지만 그런 생물학적 결합이 전부라고 보아지지는 않는다.

고로 먼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 수학을 풀지 못한 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사는 삶이란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는가?

'나'는 이 세상의 중심이요, 근본이다. 만약 내가 없다면 우주 삼라만상이 다 무엇이겠는가. 내가 있으니 일체의 사물도 실감이 되고 우주도 그 벌어진 모습을 보게 된다. 내가 이 세상에 나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은 없는 게 된다. 고로 나를 빼 놓고 무엇을 우주라고 하고 무엇을 진리라 하고 무엇을 법이라 하겠는가. 일체는 나로부터 시작되고 나로부터 출발한다.

나는 곧 원의 중심이요 우주 만물의 구심점이다. 천상천하유아독존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이 본래로 원만공적한 성품을 갖추고 있다 하셨다.

따라서 네 성품의 참 모습을 알면 그대로 유아독존, 우주의 주인됨을 알리라 하셨다. 이 얼마나 엄청난 소식인가. 내가 그대로 우주의 주인이요, 일체 만법이 나에게서 들고 난다 하니 그야말로 '내 손 안에 있소이다'가 아닌가.

나의 참모습, 참성품을 알고자 하면 보고 듣고 말하고 앉고 서는 중에 어느 때 어느 곳에서든 자동으로 응대하는 그 근본이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나야 그냥 나인데 밝히긴 무얼 밝히느냐' 하겠지만 그런 나를 가리켜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 하신 것은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참나란 생사윤회에 잠긴 나가 아니라 태어난다 죽는다를 뛰어 넘은 나를 뜻한다.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려면 내가 나를 보아야 한다. 육신의 나가 아닌 마음의 나를 관조해야 한다. 행주좌와, 하루 24시간 중에 끊임 없이 내 마음을 관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화두참선이다. 공안을 따로 붙잡고 씨름할 게 아니라 생활하는 가운데 나의 말 머리, 생각 머리를 공안으로 삼아야 한다.

불법은 생활 속의 법이지 따로 처놓은 울타리 속의 법이 아니다.

협찬: 불교조각원 이 남 형

법회 안내

정암사(0398)591-6925

학생법회 매주 일 오전11시30분
청년법회 첫째·셋째 금 오후7시
일반신도, 백상화법회
매월 1, 15일(음) 오전10시
관음재일 매월 24일(음) 오전10시

원각사(0398)62-5076

학생법회 매주 토 오후2시40분
군인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일반신도법회 매월 1, 15, 18, 24일(음) 오전10시

원각사(0394)33-0001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후2시
인등법회 매월 1, 15일(음) 오전10시
신중기도 매월1~3일 오전10시
철야기도 매월 24일(음) 오후8시
일반신도법회 일 오전10시30분

성불원(0371)762-4848

성불회원대법회 매월 9일 오후6시
불광청년회 매주 수 오후6시
시청법우회 첫째 수 오후6시30분
교인법회 둘째 토 오후3시30분
선우가족법회 매월 첫째·셋째 화 오후7시30분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중고학생회 매주 토 오후4시
인등법회 매월 1일(음) 오전11시
지장법회 매월 18일(음) 오전11시

법왕사(0371)46-1300

일요법회 매주 일 오전10시30분
대불련 매주 월 오후7시30분
청년교리법회 첫째 둘째주 화 오후7시30분
군인법회 매주 수 오후8시
청년회 매주 목 오후8시
어린이법회 매주 토 오후2시
학생회법회 매주 토 오후2시

구룡사(0371)44-8100

일반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용덕사(0371)41-3553

일반신도법회 매월 1일(음) 오전10시30분

보광사(0372)43-3007

일반신도법회 매월 1, 15일(음) 오전10시
청년회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학교 매주 토 오후2시30분
거사림법회 매월14일(음) 오후7시

삼화사(0394)43-8313

중고등법회 매월 둘째·셋째 일 오전11시
일반신도법회 1일(음) 오전11시

삼락사(0394)31-4082

어린이법회 매주 일 오전10시
중고등법회 매주 일 오전11시
일반법회 매월 22일 오전11시

법회안내를 원하시는 사찰·단체는 전화(02-722-4162) 팩스(02-737-0698)로 연락바랍니다.

교차로

석림동문회 정기총회



혜총스님(석림동문회 장)은 오는 14일 동국대 서울 정각원에서 석림동문회 정기총회를 개최한다.

'세간과 출세간' 펴내



지선스님(백양사 주지·전국불교운동연합 상임의장)은 최근 실천불교사상서 〈세간과 출세간〉(전 2권·사회문화원 刊)을 펴냈다.

보은 노인무료병원 개원



각현스님(연꽃마을 이사장)은 지난 11일 충북보은 노인무료병원을 개원했다. 이번 개원은 동제의원 이구섭씨의 기증으로 이뤄졌다.

황금불교 교양대학 개설



자용스님(수국사 주지)은 지난 4일 제1기 황금불교교양대학을 개설했다.(02)356-2001

대구佛放 기금마련 도예展



설봉스님(무애원 주지)은 대구·경북 불교방송 설립기금 마련을 위한 도예전시회를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 대구시민회관 대전시실에서 개최한다.

'한국정당특성' 초청 강좌

서돈각이사장(대한불교진흥원)은 12일 오후2시 정용석교수(단국대 정외과)를 초청, '한국당파의 특성과 현대 한국정당의 특성'을 주제로 제63회 다보문화 강좌를 개최한다.



제11회 아성학술상 수상



이기영원장(한국불교연구원)은 지난 7일 앰버서더호텔 2층 동궁홀에서 열린 아성학술재단 주최 '아성학술상 시상식'에서 제11회 아성학술상을 수상했다.

고교 '종교(불교)' 교과서 발간

혜일정사(진각종 회당학원 이사장)는 '제6차 교육과정 고교종교교육과정 개정안'의 방침에 따라 고등학교용 〈종교(불교)〉 교과서를 발간, 배포하고 있다. (02)512-6567

화란 국제 시인대회 참가



고은씨(시인·본지 논설고문)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네덜란드 노테르담에서 열리는 국제시인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다.

MBC 창작동화 대상수상

정임조씨(아동문학가)가 운평문화재단과 문화방송이 공동주최하는 제4회 MBC창작동화에서 '나무새의 발자국'으로 장편동화부문 대상수상자로 결정됐다. 시상식은 13일 오후3시 MBC 10층 대회의실.

학술교류위해 미국에



송석구총장(동국대)은 지난 7일 미국동문회의 초청으로 세계화시대에 걸맞는 학술교류확대방안과 학교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인사

동국대 의료원 △동국인천한방병원 원장 김갑성 △동국한방병원 진료부장 정지천

"건전사회는 청소년 교화에서"

최우수단체로 대통령상받은 청교련 현성 스님



현성스님((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장)은 5월30일 96년도 최우수청소년 단체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스님은 "청소년들의 포교를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를 계기로 청소년들이 더욱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로 수상소감을 대신했다.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는 1966년 창립, 30여년 동안 건전한 청소년육성을 위해 매년 수련대회, 지도자연수, 붓다의 메아리,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 청소년약물남용캠페인, 자원봉사활동, 장학사업, 교도소지원사업등을 펼쳐왔다. 〈근〉

"불교는 우리문화 탯줄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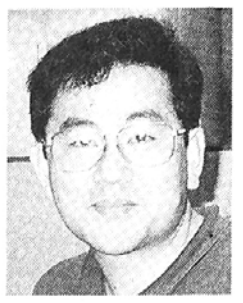
황룡사 영상복원 연출 황 용 호 PD

"영상복원 황룡사가 방송된 이후 많은 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픽인지 실물인지 모를 정도로 사실적인 컴퓨터 그래픽화면에 MC(건축가 김석철)가 들어가는 가상현실도 많은 사람들이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26일 KBS 1TV를 통해 방영된 '영상복원 황룡사'를 연출한 황용호PD의 말이다.

'영상복원 황룡사'는 신라 천년의 영화를 대변하던 사라진 황룡사의 역사적 가치와 민족문화재로서의 중요성을 일깨운 소중한 프로였다는 것이 시청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평이다. 〈관련기사 본지 69호〉

황PD는 작업과정에 대해 "황룡사와 같은 시대 건축물인 중국 응현목탑과 일본 법륭사등을 직접 답사, 삼국유사와 일본서기등의 관련기록을 면밀히 분석했다"면서 "특히 컴퓨터 그래픽작업은 전문가 8명이 4개월간 밤낮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방송을 통해 확실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당시 호국불교의 성격을 감안할 때 황룡사탑은 종교적 기능과 군사적 기능을 모두 갖춘 군사의 초소역할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기도.



황용호PD는 '영상복원 황룡사'에 대한 반응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경주 나원리 5층 석탑에서 나온 금동 9층소탑(지난 5월21일 공개, 황룡사탑 복제품 추정)을 영상제작에 참고못한 점을 못내 아쉬워하며 가상탑이 실제 탑으로 바뀌길 바랐다.

이은자 기자



'비전 동국대 1백년 후원의 밤'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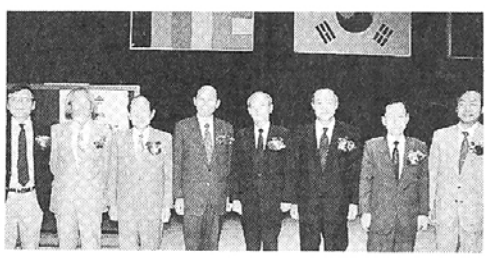
동국대는 5월29일 21세기 중심대학으로 발전하기 위해 힐튼호텔에서 1천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비전 동국 1백년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월주 녹원혜초 운덕 홍파스님과 대한불교진흥원 서돈각이사장 황명수총동창회장 최형우 남평우 김영구 권노갑의원 이길녀 길병원이사장 등 동문과 내외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위한 기원법회

은평구사원연합회(회장 서성운 삼천사 주지)는 지난 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은평구청에서 '호국영령과 은평구민을 위한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지역 사원주지스님과 이배영 은평구청장, 이도영 구의회부의장 등 기관장과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해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은평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김용정교수 정년퇴임 강연·출판회

'지해(智海) 김용정교수 정년퇴임기념 고별강연 및 출판기념회'가 지난 4일 동국대 학술문화관에서 동국대철학과 주최로 열렸다. 김규영 전 한국철학회장, 송석구 동국대총장, 윤명로 서울대교수 등 3백여명이 참석.

이날 상재된 논저는 〈과학과 불교〉 〈과학과 철학〉 〈칸트철학:자연과 자유의 통일〉 〈철학사상〉 제16집 등 4권이다.



불교자원봉사련 '정토의전화' 발대

불자들의 임종에 따른 장례, 불교이웃심방 및 상담기도 무료봉사를 도맡게 될 불교자원봉사연합회 부설 정토의전화(회장 대명)가 지난 2일 조계종 총무원 1층에서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산(중앙승가대 사회복지과 교수) 시현(문화사회부장) 성덕스님(불자연 회장)을 비롯 경희대 노귀남교수, 량승만 시인 등 사부대중 5백여명이 참석했다.



워싱톤 보림사 천불전 기공식

워싱톤 보림사(주지 경암)는 지난 5일 경내에서 새 법당인 천불전 건립기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법주사주지 향산스님, 미주 수도권노인회 김동성회장, 원종찬 총영사등 사부대중 2백여명이 참석했다.

보림사 주지 경암스님은 "15만 달러의 법당건립 기금이 마련됐다"며 "올해말까지 천불전을 완공하겠다"고 밝혔다.



소쩍새마을 원생 서울 나들이

서울대학교 부속병원 직원불자회(회장 조보현교수) 초청으로 소쩍새마을 80여명의 원생들이 지난달 25일 서울나들이를 했다.

서울나들이에 나선 소쩍새마을 원생들은 창경궁, 과천 어린이대공원 등을 차례로 관람하고, 조계사에 들러 원장 보각스님의 집전으로 반야심경을 봉독하는 등 즐거운 한때를 보냈다.

게시판

▲불교교양대학입문 출판기념회=서울 금하선원장 청암스님은 오는 17일 오후5시 서울 소피텔앰버서더호텔 볼룸홀에서 〈불교, 절(寺)에 대한 바른 이해〉 출판기념법회를 갖는다. (02)445-3261

▲어린이 유적답사=선덕사(주지 행법)는 오는 16일 자리산 쌍계사일대에서 제15차 어린이유적답사를 실시한다.

유적답사팀은 16일 오전8시30분 선덕사에서 출발한다. (062)263-4660

▲깨끗한 환경만들기 캠페인=(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 청소년자원봉사센터는 오는 16일 종각에서 종묘광장까지 깨끗한 환경만들기 가두캠페인을 펼친다. (02)737-9260

▲초청법회=천안 천불암(주지 인경)은 오는 20일 오전11시 큰스님 초청대법회를 봉행한다. 초청법사는 전 조계종 포교원장인 무진장스님. (0417)557-3223

▲태교교육=정토불교대학은 12일부터 16일까지 매일 오후2시 서초동 정토법당에서 '산모와 아기를 위한 태교교육'을 실시한다. 강사는 원명 정토수련원 지도법사이며, 참가비는 2만5천원. (02)522-2841

공고

불기 2540년도

대한불교 경승단 연수회 실시

대한불교 경승단에서는 경승활동의 활성화와 경승포교역량의 재충전을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불기 2540년도 경승단 연수회를 실시코자 하오니 전국 경승 여러분께서는 무루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연수회 일정 : 불기 2540년 6월 27일(목)-28(금)
■ 연수회 장소 : 경기도 화성군 소재 신흥사(0339-57-2695)
■ 참 석 대 상 : 전국경찰서 위촉 경승, 신규경승지원자
■ 연수교육비 : 50,000원정(교육비, 교재비, 식비등)
■ 접 수 기 간 : 6월 22일까지 전화 또는 서면신청 바랍니다.
■ 접 수 처 : 경승단(서울 종로구 견지동45) 전화/02-720-7060~4
※ 교통편 : 6월 27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버스출발
승용차 이용시는 27일 12시까지 신흥사에 도착요망

불기 2540년 6월 일

대한불교 경승단 총 재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송 월 주

제17회 여름불교학교를 위한 지도자 연수회

"부처님 세상 우리 손으로"

어린이 포교를 원력으로 열심히 부처님 법을 펼치고 있는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와 불교교육연구원에서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개설될 여름불교학교의 여법한 운영을 위하여 지도자 연수회를 마련했습니다.
좀더 다체롭고 체계적인 여름불교학교를 위해 어린이 법회지도자님들의 자질을 함양시키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운영법을 배우셔서 올 여름 보람찬 회향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1.때: 불기 2540년 6월 29일(토)
늦은3시 - 30일(일) 늦은 3시
2.곳: 양재동 구룡사/전화 (02-575-7766)
지하철 3호선 양재역5번 출구
구룡사 버스대기 (2시,2시40분)
3. 강의 및 강사 소개 별첨
4. 동참금 : 30,000원
(국민은행 023-21-0570-895 민병도)
5. 문의 :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02)935-4967
불교교육연구원 (02)725-7527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회장 민법현
불교교육연구원 원장 황학현 합장

내 용	강 사
어린이 포교 경험담	정우스님(구룡사 주지)
교재활용에 관하여	법현스님 (불교레크리에이션포교회 회장)
전래놀이의 유래와 실제	이상호(상월초등학교 교사, 전 놀이 연구회 회장)
아름다운 법당 디스플레이	이 상 종 (T,T,COM대표)
저학년용 신나는 율동 고학년용 다양한 댄스	김규선(기획다솜), 정기자(청룡암 주임교사,레크리에이션 2급지도자)
찬불가의 필요성과 활용법	황학현(불교교육원원장)
찬불가를 활용한 율동과 놀이	권양숙(기획"숲"기획실장, 레크리에이션2급지도자)
96새찬불가 및 효율적인 노래지도법	민선희(불교 소년 소녀 합창단 지휘자)
도구를 이용한 다양한 게임	김재성(통도사 서울분원 법계사 교사)
심성계발을 위한 프로그램	연 수 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활용한 분위기 연출	김희선(레크리에이션 2급지도자)
프로그램의 연결과 진행요령	이성훈(선재이벤트 실장, 레크리에이션 1급지도자)

"천년역사 공부하면 천년살고…"

산문밖의 禪

간송미술관서 30년 최완수 실장



'간송(澗松)이 만든 문화재 사원에서 도를 닦는 재가승'.

최완수씨(崔完秀 간송미술관학예실장)를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국보나 보물로 지정된 문화재만도 20점이 넘게 소장돼 있는 간송미술관은 우리나라 문화사 그 자체다. 우리 선대가 살아 온 유구한 시간이 고스란히 멈춰 있는 이 미술관 연구실에서 최씨는 강산이 세번 변하는 시간을 살았다. 도를 닦으며.

멈춰 있는 과거에 새로운 빛을 쐬이고 그 이름을 밝히고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그가 닦는 도의 내용이다. 지난 4월로 간송미술관과 인연 맺은지 꼭 30년이 됐지만 그에게는 시큰둥한 의미일 수 밖에 없다. 해야 하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뒤돌아 볼 새도 없이 살아 왔을 뿐이므로.

"천년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천년을 산 것이고 2천년의 역사를 공부한 사람은 나이가 이천살이 된 겁니다. 역사공부는 과거 사람들의 삶을 지금 사람들의 삶으로 옮겨오는 일입니다. 유물 유적은 과거 사람들이 남긴 과거의 모습이지만 그것 역시 오늘의 사람들이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우는 실물입니다. 역사를 사랑하는 것은 오늘을 사랑하는 일이지요."

그는 대학을 나온 직후 국립박물관 연구원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당돌하게도 관장에게 지방으로 보내달라고 졸랐다. 문화재를 직접 보면서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경주 부여 공주등 도시자체가 박물관인 고도들을 돌며 새벽밥에 도시락을 싸들고 유물 유적을 찾아 다녔다. 그렇다. 남다른 노력없이 옛 사람들의 숨소리를 듣고 마음을 읽어내는 심미안이 생겼겠는가.

"문화재를 보는 눈을 갖추는데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오감이 예민해야 하고 현장을 많이 답사해야 하죠. 또 학문적 뒷받침이 돼야하고 훌륭한 스승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최씨는 복을 타고났다. 남다른 총기에 책 보고 연구하는 자세를 가진 것 그리고 현장을 찾아다니는 열성은 천부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그는 스승복이 있다. 이미 고등학교에서 백아(白牙) 김창현 선생을 만나 한학과 보학(譜學)을 배우며 선비의 풍모를 갖췄고 대학에서는 동빈(東濱) 김상기 선생으로부터 동양사와 불교사를 배웠다. 그리고 문화재를 보는 심미안을 심어준 스승은 최고의 경지를 공인 받았던 혜곡(兮谷) 최순우 선생이었다. 당대 최고들로부터의 청출어람이 최씨라는데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것이다. 물론 그는 타고난 재량과 스승으로부터의 배움을 자기화 하는데 밤을 지새우는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추사연구나 겸재 정선연구에 독보적 존재로 부각되는 등 그의 연구성과 뒤에는 '경경위사(經經偉史)'란 좌우명이 있다.

"경전을 씨줄삼고
역사를 날줄 삼아
학문의 베를 짜야 한다"

추사와 경봉스님 간송 전형필 선생이 시대를 넘기며 화두로 삼았던 정신이다. 이는 경전(철학)을 씨줄로 삼고 역사를 날줄로 삼아 학문의 베(인생을 의미하기도 한다)를 짜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현재의 삶에 지혜가 드러난다는 설명뒤에 최씨는 "현대의 학문이 인간의 마음을 오히려 옹색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는 개탄도 내보였다.

"더러 불가에서 견성의 경지를 얘기합니다. 견성이란 어떤 분야에서든 그 정점에 다다른 것을 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득 올라서고 보면 모든 것이 훤하게 내려다 보이는 곳이 그곳이지요. 마치 큰 산꼭대기에서 이리저리로 내리 뻗은 계곡들을 조망하듯. 하나의 정상이 정상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계곡과 능선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들을 다 섭렵하지 않고 어떻게 정상의 시원함을 물씬 머금을 수 있겠습니까. 견성이란 이치를 두루 꿰뚫어 내는 것입니다."

최씨는 역사를 공부하는데 있어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자세를 무엇보다 중시한다. 물론 격물치지를 이룬 단계를 견성의 단계로 보고 있다. 건축이건 탑이건 불상이건 그것은 진면목을 보기 위해서는 옛 예인(藝人)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성의 이치와 상징의 이치 등을 두루 꿰뚫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최씨는 거듭 강조했다.

"불상이건 탑이건
진면목 보려면
옛 사람 마음 읽어야"

최씨는 격치(格致)를 소홀히 하지 않음으로 겸재의 그림을 보는 순간 겸재의 숨소리를 듣고 추사의 필체를 보는 순간 추사의 정신을 오롯이 사숙하는 재미를 맛보는 것인가. 그는 지난 30여년 수 없이 많은 옛 사람들로부터 무언의 가르침을 받아왔다. 과거의 스승과 현세의 스승들이 최완수란 거인을 만든 셈인데 그 동안(童顔)의 거인은 이제 그간의 공부를 체계적으로 정리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라고 밝힌다. 당대 최고의 스승들이 전수해준 의발(衣鉢)을 후세의 대중들에게 골고루 전해주는 작업일 것이다.

젊은 날에 간송의 먼지 덮힌 미술품 속에서 〈대정신수대장경〉을 보고 '한 10년 읽을만 한 책이구나'하며 성북동으로 몸을 옮겼던 열정이 아직 조금도 식지 않았다. 대학 입학식에 한복을 입고 나가 주목 받았고 지금도 그는 한복만 입는다. 우리의 문화란 우리의 의식주이기 때문이다. 그가 〈명찰순례〉를 내놓은 이유도 사찰이 우리 문화를 가장 잘 보존하고 있는 곳임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다.

"유물·유적 오늘을 사는 지혜 일러주는 실물"

제분야 정점서면 견성…격물치지 자세로 노력

임연태 기자

육식을 많이하면 좋지 않은지요

문 중생이 사는 이 사회를 불국정토로 만들어 가지면 중생이 서로를 아끼고 특히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더구나 살생은 좋지 않은 인과를 낳게 될 것이므로 육식을 많이하는 것은 정토건설에 역행하는게 될 것입니다. 스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영민 · 서울 종로구 수송동〉

답 물론 살생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러나 한가지는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언젠가도 비슷한 질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생명체는 연쇄적인 먹이사슬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생명체를 취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어떤 생명체는 종족의 번식을 위해 일부러 다른 생명체의 먹이가 되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먹이사슬 속에서 살생을 취미삼아 하느냐 자연의 섭리에 따르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생명의 유지를 위해 다른 생명을 취하는 경우에 그 희생되는 생명체의 무명을 벗겨주는, 그래서 한 차원 높여준다고 한다면 그것을 살생이라고만 하겠습니까?

특히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그 생명체를 취해 나의 생명으로 혼합시켜 내 생명, 내 살, 내 마음으로 하나되게 하고 공부 열심히 하여 진리를 터득한다면 그대로 화화중생 하신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되면 그것은 생명을 죽인게 아니라 생명을 건진게 되겠지요. 따라서 살생해서는 안된다 하지 마시고 그 생명을 건지는 마음으로, 그 무명을 벗겨 보살로 화하게 하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였다면 그야말로 받아들인 사이가 없으니 살생해선 안된다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전 말씀에 약으로 쓰는 경우 육식을 허용했는데 그건 바로 서로가 서로를 구하는 도리라고 할 수 있지요.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방법은

문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는 불자라면 종내에는 대각을 이루어 부처가 되겠다는 꿈을 지녔을 것입니다. 스님, 어떻게 해야 육도윤회를 벗어날 수 있는지 도를 닦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미 · 포항시 남구 동촌동〉

답 나는 여지껏 다른 말 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위해서든 생활을 위해서든 오직 나의 근본인 주인공을 믿어 일체를 거기에 놓고 관하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공부든 생활이든 내가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신해주지도 않고 대신해 줄수도 없고 빈다고 되지도 않고 그밖에 무슨 방편을 쓴다해도 나를 떠나서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무슨 절대자를 내세워 거기에 매달리라고 하는데 구원은 제가 저를 구원하는 것이지 그 밖에는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옛말에 '네가 주장자가 있다면 내 주장자를 줄 것이요 네게 주장자가 없다면 내가 빼앗으리라' 했답니다.

내가 세상에 나왔으니 우주가 벌어진 것이지 내가 없다면 우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아독존인 것이지요.

그러니 어디가서 도를 찾겠습니까? 도는 내 속에 있고 내가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밖으로 찾고 뭔가 신기한 것, 특별한 방편이 있어야 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첫째로 '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치닫는 마음을 놓아라, 방하착하라는 말이지요.

그러나 놓으라니까 어디다 놓느냐고 합니다. 본래 들은 것이 없으니 놓을 것도 없지만 원통 생각에 끄달리니까 너의 근본에 놓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가? 나를 이끌고 있는 그 주체는 무엇인가? 할 때에 그걸 아무리 사량분별하려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무가 있으면 보이지 않아도 뿌리가 있음을 믿듯이, 작년의 콩씨를 심었는데 작년 콩씨는 어디로 가고 콩나무가 무성해져 올해 콩씨가 주렁주렁 달렸듯이 그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내 속의 진짜 내 뿌리와 씨가 있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면 바로 그 자리에 놓으라는 것이지요. 나는 그걸 주인공이라 이름했습니다. 이름이야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불자님께서 취향대로 이름을 붙여도 좋겠지요. '내속의 부처님' 하셔도 좋고 '하나뿐인 내님' 하셔도 좋고 그냥 '내님'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 믿었으면 놓고 놓았으면 지켜보라고 합니다. 놓았다고 하면서 요렇게 되었으면 조렇게 되었으면 한다면 그건 놓은게 아니라 붙잡은 것이요 또하나의 사량분별인 것이지요. 놓을 때는 콱! 죽든지 살든지 알아서 하라는 배짱으로 놓아야지요. 가령 하인이 주인을 못믿어서 말로는 믿는다 해놓고 이런저런 군말이 많다면 그게 믿는 것은 아니지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지수화풍 사대로 구성되어 있고 우주도 세상만물도 지수화풍 사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대를 바탕으로 누구나 광력 · 지력 · 전력 · 통신력을 충만히 가지고 쓸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니 자신을 믿지 못하는 결과가 됩니다. 자기가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지 못할 때 공부인들 제대로 되겠습니까?

내 몸속의 생명들이 한마음으로 돌아가는 게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일체를 놓고 맡기세요. 내가 주인이요 독존입니다.

지상상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행에 관해 의심이 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서신 · 팩스로 보내주십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 · 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22-4162 팩스 : (02)737-0698

성 명 서

본교는 종단내의 무관심속에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한 뜻있는 학인스님들에 의해 1979년 설립되어 자생적으로 운영되어 오다 지금은 미약하나마 종립학교로서 종단 내외의 관심과 협조속에 운영 되어지고 있습니다. 숱한 어려움과 난관속에서도 불교의 발전은 승려교육에 있다는 일념하에 때론 비난도 감수하면서까지 눈물겨운 노력으로 불교를 대표하는 교육기관으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명실상부한 종단의 종립학교로서 종단과 이사회에서 학교측과 협조속에 책임감있게 학교발전과 교육불사에 매진해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는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왔고 저희들의 목소리를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송월주 총무원장 스님이 이사장으로 취임한 이래 학교이전불사는 사실상 백지화 내지 무기한 연기상태에 놓여있고 학교 예산은 동결되었으며 학교정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불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던 이사장스님의 공약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사장님의 이전불사에 대한 의지와 약속이 공염불에 지나지 않았음이 확인된 지금 저희 학인들은 허탈감에 빠져 있습니다. 소위 학인들의 피와 땀으로 탄생한 개혁종단의 책임자가 당신의 편리에 따라 수없이 말을 바꾸어 왔습니다.

또한 저희 학교 최고 의결수렴기구인 운영협의회의 건의사항이나 학인들의 의견과 질의에 대해서 단 한번도 성의있는 답변이나 의견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학교 발전에 대해서는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에 저희 학생회에서는 이사장스님의 일방적인 학교운영과 학교를 장악하여 학교발전을 저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막아 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종단의 사활이 걸린 교육불사가 원만히 회향되어야 종단이 발전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오늘날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의 근원은 승가교육의 부재에서 기인한다라고 뜻있는 분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의 체계화와 교육불사야 말로 그 어떠한 종단사업보다 최우선 과제로 추진되어져야 한다는 판단하에 저희 학생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 우리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요구 사항

1. 이사장스님은 이전불사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을 밝히고 올 상반기에 김포 금정사 부지에 착공하겠다는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 학교 이전불사금으로 책정된 금액은 차질 없이 집행하고 향후 재원 조달 방안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근본적으로는 학교법인 자산을 마련하라.
3. 공개적 논의와 검증을 거치지 않고 이사장스님의 개인적 이해관계에 따라 일방적이고 전격적으로 결정한 학장선임을 즉각 철회하라.
4. 현 안암동 불사를 여름방학중에 조속히 마무리 짓고 도량을 정비하라.
5. 명실상부한 종립학교로서 위상을 갖추고 질서 있는 수행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자금을 인상하여 전액 지원하고 학인들의 등록금을 전액 종비로 하라.
6. 총무원장스님께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학교운영을 시정하고 학교법인의 고유한 독립성과 자주성을 보장하라.
7. 종단 정치변화에 상관없이 학교법인의 고유한 독립성 속에 주체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하여 총무원장스님께서는 이사장 당연직으로 있는 종법을 개정하라.
8. 각교육기관들끼리 갈등 없이 조화롭게 발전하기 위하여 종단의 교육체계를 일원화하고 교육불사에 우선적으로 재원을 지원하라.
9. 이사장스님께서는 하교제반문제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이와 같은 요구사항을 실천할 의지가 없다면 이사장직을 사퇴하라.

불기 2540년 6월 4일

중 앙 승 가 대 학 학 생 회

"업·윤회사상 환경운동 모티브"

불교환경운동의 사상적 배경은 무엇인가? 이안 해리스 교수(영국 셩마틴대학 종교·사회윤리학)와 필 브라운(불교평화연맹 연구원)이 이 문제에 대해 자신들의 논문 〈영국 불교환경운동의 잠정적 유형〉과 〈불교와 환경의 위기〉에서 나름대로의 답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의 논문은 인터넷을 통해 '불교실천윤리'와 '보디넷'에 각각 발표됐다.

해리스·브라운교수 인터넷에 논문 기고

'환경보호' 인류 공동 관심사…종교 연대 촉매제

해리스 교수는 〈불교환경운동의 잠정적 유형〉에서 불교의 정신·정의·전통을 통해 환경운동의 유형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현대의 주요 종교는 환경문제로 인해 자신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타 종교단체와 연대를 모색하도록 요구받았다는 것. 결국 1991년 바티칸에서 각 종교단체에서 후원하는 환경단체들이 종교회의를 개최해 명실공히 '인류공동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각각의 테두리에서 벗어난 다원종교'로서 위상이 급상승됐다는게 해리스 교수의 분석이다.

또한 그는 태국과 스리랑카에서 불교가 주도하고 있는 '사회개혁운동'과 '농촌개발운동' 등의 예를 통해 동시대 불교의 경향이 '사회 참여적 불교'로 변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불교의 환경운동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해리스는 불교가 보다 적극적인 불교 환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이러한 세기말적 불교의 유형을 토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하나의 '불교환경운동윤리'를 정립해 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라운씨는 〈불교와 환경의 위기〉에서 불교가 환경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는 당위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그는 "환경문제는 에너지·부(富) 등을 지나치게 탐하는 현대문명의 이기적 속성이 기술 방종을 조장한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과학문명으로 생겨난 환경문제를 다시 과학적 방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경향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환경운동의 올바른 사상적 배경이 필요하다는 것. 그에 따르면 불교가 바로 인류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과학의 공헌을 인정하면서, 인연·업·윤회·공덕 등의 철학적 사유를 통해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하는 마음의 병 '삼독'(三毒)을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세기말에 이르러 지역과 사상의 테두리를 벗어나 인류가 직면하게 된 환경문제가 종교적 주제로 떠오르기 시작한 시점은 '에코-(eco-)'란 접두어가 불교·기독교 등의 주요 종교의 머리 어휘로 쓰이기 시작한 1970년대부터이다. '에코'란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를 연구하는 생태학, 즉 '에콜로지(ecology)'의 머리 어휘에서 가져온 것이다.



◇서구 물질문명의 극단적 병폐로 꼽히는 환경문제의 치유책은 동양사상, 그것도 불교의 환경윤리에서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기되고 있다(사진은 범어사 인근 경동아파트 건립을 반대하며 가두시위하는 스님들 모습).

오종욱 기자

백양사 대웅전

佛放光明偏世間 (불방광명변세간)
照躍十方諸國土 (조약시방제국토)
演不思議光大法 (연부사의광대법)
永破衆生痴惡暗 (영파중생치혹암)
佛身普遍諸大會 (불신보변제대회)
充滿法界無窮盡 (충만법계무궁진)
寂滅世間不可取 (적멸세간불가취)
爲求世間而出現 (위구세간이출현)
基中衆生不可量 (기중중생불가량)
現大神通悉調福 (현대신통실조복)

부처님 세간에 놓으신 광명
시방국토 두루 비추시고
생각으로 헤아리지 못할 넓은 법 설하시어
모든 중생 어둡고 미혹한 마음 부숴 버리네
부처님의 법신 모든 회중에 널리 나투사
온 법계에 충만하여 다함이 없네
고요한 밝은 성품 취할 일도 없건만
세간중생 건지시려 출현하셔서
한량 없는 중생들을
크나 큰 신통 나타내어 빠짐 없이 조복 받네

해설 여러 사찰의 대웅전 주련이 그렇듯 백양사 대웅전의 주련도 부처님의 한량없는 위신력을 찬탄하고 있다. 부처님은 시방세계에 나투시지 않는 곳이 없으며 세간의 무수한 중생들을 고루 제도 하시고 큰 신통력으로 빠짐없이 교화하신다는 내용이다. 이 주련을 찬찬히 읽어 보면 부처님이 어떻게 중생을 제도 하시는가를 알 수 있다. 부처님이 직접 나투시는 것과 부처님의 법을 통한 구제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다.

앞 부분이 법을 설하여 중생의 어리석고 미혹함을 타개해 주시는 모습을 형상화시킨 것이라면 뒷부분은 직접 중생계에 나투시어 신통력으로 중생을 구한다는 묘사로 이뤄졌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부처님의 법이 부처님의 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부처님은 형상에 얽매이지 않는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또는 수행하는 모든 행위는 성불을 위한 것이다. 부처님의 형상이나 가르침은 그 과정에서의 훌륭한 길잡이가 되는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의 법을 공부하고 기도 수행하느냐에 달린 것이다.

〈안동 경안중 교사〉

한국 사찰의 주련



권 영 한

부처님 광명 법계에 충만하네

"중간법계 도입·보살불교 강화를"

정병조교수 '평신도 운동' 세미나서 제안

미래의 재가(在家) 불교운동은 첨예한 사회적 문제에 불교적 방법의 대응이 전개될 것이며, 그 방법은 부처라는 이상향의 인격수련과 사회정의 실현의 '보살불교'이다.

정병조 교수(동국대 사회교육원장)는 지난 5월30일 서울대에서 서울대 종교문제연구소 주최로 열린 '현대한국종교의 평신도운동' 주제 세미나에서 불교계 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재가불교운동의 개념을 불교원리를 탐구하려는 태도와 그 원리를 다변화된 사회속에 전개할 수 있는 실천의지라고 규정지은 정교수는 1960년대 이후 태동하기 시작한 재가 불교운동이 80년대 들어 크게 신장됐으나 아직도 사회 봉사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바람직한 재가 불교운동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 △독립재정 형태의 조직성 제고 △사원의 기능을 다변화시킬 수 있는 의식향상 △불교인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종단의 행정적 지원 △교육위주를 탈피한 불교의 현실적용방법 등을 꼽은 정교수는 적극적 사회참여를 위한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교수는 불교의 사상적 특성상 출가와 재가를 엄밀히 구분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이 둘 사이에 중간 법계를 제정, 이들 중간 법계자들에게 사찰경영, 사회봉사, 생활불교 등의 현실적 임무를 맡기는 중간 법계제(法階制)를 제안했다.

한명우 기자

"조선왕실·민중 명부신앙 선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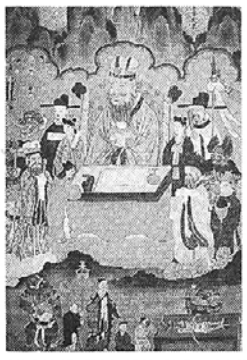
김정희 '지장시왕도연구'서 밝혀 孝사상 내세구원 영향

절마다 있는 명부전(冥府殿)은 지옥을 연상시키는 갖가지 불화와 불상을 모셔 불자들에게 지옥을 실감케함으로써 생전에 자비를 베풀고 덕을 쌓아 극락정토에 가도록 가르치고 있다.

미술사학자 김정희교수(원광대 고고미술사학)는 최근 발간한 책자 '조선시대 지장시왕도 연구'(일지사 刊)에서 불교회화 가운데 이런 지옥그림의 대표격인 지장보살도와 시왕도가 어떤 종교적 배경 아래 함께 조성·봉안되었으며 어떤 형식과 양식을 이루면서 변천해 왔는가를 심도깊게 고찰하고 있다.

명부는 사람이 죽어서 가는 암흑세계를 뜻한다. 지장보살은 지옥의 고통으로부터 중생을 구하는 구세주이며, 시왕(十王)은 죄를 묻는 10명의 심판관으로 둘 다 명부의 주인들이다. 따라서 절마다 이 두 그림을 한 폭에 압축해 봉안했던 것이다.

김교수는 조선시대 숭유억불 정책 아래서도 명부신앙은 유교의 孝사상과 맞아떨어지고 유교가 제시하지 못한 내세의 복을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왕실은 물론 여염집까지 불교를 신앙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런 배경에서 조선시대의 명부전 불화는 불교를 숭상했던 고려불화의 귀족적이며 우아한 자태와 인물표현에서 벗어나 사실적이며 민중적인 형상, 곡선보다는 직선을 선호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우〉


◇일본 오쇼지(寶性寺) 소장 조선전기 시왕도(제4왕 오관대왕)

충주 미륵사지 석굴·석실 훼손

세계사 무분별 공사탓

충주의 대표적 문화유적지인 상모면 미륵리 미륵사지(사적 317호)를 인근 世界寺가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미륵사지안에 위치하고 있는 세계사측은 시주함을 만든다며 석불입상을 둘러싸고 있는 석굴의 벽과 바닥에 드릴로 24개의 구멍을 뚫고, 대형 시멘트못을 사용하면서 석굴은 물론 석실 일부를 파손시켰다.

이번에 세계사가 훼손시킨 석실은 고려시대의 불교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아 충주시가 없어진 부분을 원상복귀하기 위한 예산지원을 문화재관리국에 신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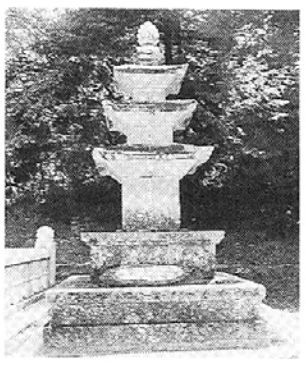
미륵대원으로도 불리는 미륵사지는 현재 보물 제95호인 5층석탑과 96호인 석불입상, 유형문화재 제19호인 8각석등등이 있는 충주의 대표적 불교문화지다.

중앙박물관 임시휴관

6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국립중앙박물관이 정부의 일제잔재 청산작업에 따라 오는 7월 철거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중앙박물관은 지난 1일부터 10월말까지 5개월간 임시 휴관한다.

박물관 전시유물은 현재 경복궁내 신축중인 조선왕궁역사박물관으로 옮겨져 이중 일부만이 전시된다.


◇해인사 길상탑은 신라시대말의 대표적 소탑으로 불교연구의 귀중한 자료로 꼽힌다.

해인사 길상탑 완주 송광사 대웅전·종루 보물지정

해인사 길상탑과 완주 송광사 대웅전, 종루가 보물로 지정됐다.

문화재관리국은 5월31일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남 합천 해인사 길상탑을 보물 제1242호로 지정하고 전북 완주 송광사의 대웅전과 종루를 보물 1243호, 1244호로 각각 지정했다.

해인사 길상탑은 신라 진성여왕 9년(895년) 전란중 순교한 승병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건립된 3m 높이의 단아한 소탑으로 해인사 및 불교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평가돼 왔다.

송광사 대웅전은 조선 광해군 14년(1622년)에 건립됐다가 인조 14년 개축에 이어 조선 철종 8년(1857년)에 재건립된 목조 전각건물로 넓은 간격의 기둥사이에 휘어진 대들보를 얹고 있으며, 특히 천장 네 모서리에 하늘을 나르는 선녀의 모습이 그려져 아름다운 천장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송광사 종루는 조선 세조 12년(1466년)에 창건, 임진왜란때 소실됐으나 철종 8년 대웅전과 함께 재건된 2층 공중누각으로 팔작지붕을 교차시켜 짜올린 2층짜리 목조 누각이다. 조선시대의 유일한 十자형 종루여서 보존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茶 최초 전래인 신라 '김대렴' 아닌 '대렴'

국내에 茶를 처음으로 들여온 사람은 김대렴이 아니라 대렴(大廉)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재휘씨(서지학자)는 최근 각종 사료를 통해 차를 중국에서 들여온 사람은 신라 흥덕왕(서기 9세기)때 당에 사신으로 갔던 대렴이며, 1940년 일본 총독부가 창씨개명을 공포한 직후 총독부 직원이 지은 '조선의 차와 禪'에 김대렴이라고 오기되면서 지금까지 잘못 전해져 왔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지난 81년 국내에서 차를 처음 재배한 곳을 기념하기 위해 쌍계사에 세운 기념비에마저 김대렴이라고 적히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씨는 〈삼국사기〉 〈삼국사절요〉 〈신증(新增)동국여지승람〉 등에 모두 대렴으로 되어 있다는 증거자료를 제시했다. 〈우〉





고대불교 우주론

부처님 교설과 거리있다

보르헤스의 ⑯ 불교강의

불교의 우주관

불교는 힌두교의 우주관을 받아들여 우주는 같은 구조로 된 무한히 많은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우주가 유한하다고 긍정하는 것은 옳은 식견이 아니다. 우주가 무한하다고 보는 것 역시 옳지 못하다. 유한하지도 않고 무한하지도 않다고 하는 것 또한 옳은 의견이 아니다. 이러한 삼중부정(三重否定)은 아마도 우리에게, 현세(現世)에서의 견성성불(見性成佛)이라는 시급한 문제에 집중하도록 독려하면서 공허하고 무익한 논쟁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 같다.

에반스-웬츠(W. Y Evans-Wentz)가 〈티벳 사자(死者)의 서(書)〉 서문에서 소개한 고대불교의 우주관에 의하면, 각 세계의 배꼽(중앙)에는 '메루(Meru)' 혹은 '수메루(Sumeru)'라고 불리는 산이 솟아 있다. 그 산은 머리부분을 잘라낸 피라미드 모양을 하고 있다. 동쪽 사면(斜面)은 은으로, 남쪽 사면은 옥으로, 서쪽 사면은 루비로, 북쪽 사면은 금으로 되어 있다. 꼭대기에는 신(神)들의 도시와 선인(善人)들의 낙원이 있다. 맨 아래 층에는 지옥이 있다.

팔만사천 마일 높이의 메루산 위로 태양, 달, 성좌(聖座)가 돌고 있다. 메루 대륙중 여기가 가장 크며 주민들의 얼굴은 사각형이며 채식주의자들이다. 주민들의 영혼은 사후에 나무에 깃든다.

대륙마다 두개의 작은 위성대륙이 있다. 인간이 사는 대륙의 왼쪽에는 라크샤사(rakshasa)의 위성대륙이 있다. 그들은 인류의 적인 악마들인데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시체를 선동하고, 제사를 망치고, 착한 자를 괴롭히고, 인간을 잡아먹는다. 얼굴이 못생긴 악마도 있고, 아름다운 악마도 있다. 어떤 것들은 외눈이나 외귀도 있다. 다리가 두개인 것, 세개인 것, 네개인 것도 있다. 고대 서사시에는 그들의 별명이 자주 등장한다. 살인자, 악한, 공물도적, 어둠의 거인, 몽유환자, 식인종, 육식동물, 흡혈귀, 걸식가, 흑면귀(黑面鬼) 등으로 불린다. 일설에 의하면 라마교의 고승인 파드마-삼보하바가 8세기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파했다고 한다.

동쪽 대륙 주민의 수명은 2백50년, 남쪽 주민은 1백년, 서쪽 대륙 주민은 5백년, 북쪽 대륙 주민의 수명은 이천년이다. 구약성경에는 인간의 생명이 7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연수명을 1백년이라고 보았다. 쇼펜하우어의 견해는 인도인의 생각과 일치한다. 병으로 죽는 것은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 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사고(事故)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수평적인 묘사이다. 수직적으로 보면 세계는 세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아래층은 감각의 지역이다. 이곳엔 신, 인간, 악마, 유령, 동물 그리고 지옥의 생물들이 산다. 이 층의 가장 아래 부분은 지옥인데 팔열지옥(八熱地獄)과 팔한지역(八寒地獄)이 있다. 지옥의 위에는 우리 인간들이 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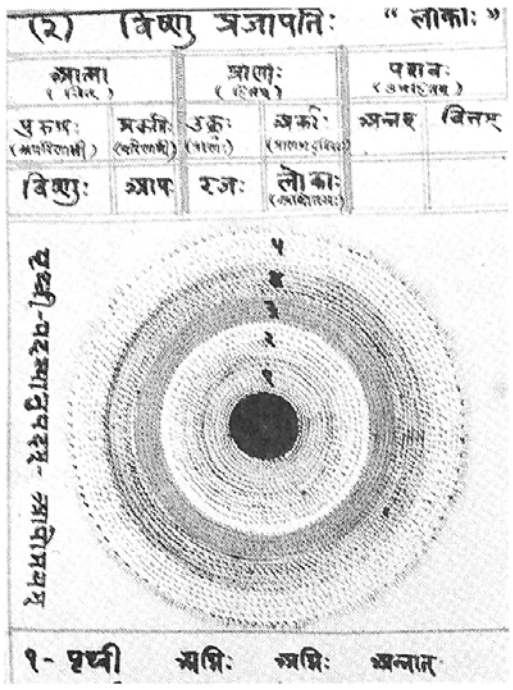
가운데 층은 형상의 지역이다. 제일 위층은 무형(無形)의 지역이다. 가운데 층과 윗층에는 신들만이 살고 있다.

신들은 수명이 무척 길지만 영생(永生)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신들은 메루산 꼭대기에서 살고, 다른 신들은 허공 위에 세워진 궁전에서 산다. 신들의 계급이 올라갈수록 쾌락은 비육체적인 것이된다. 하급으로 내려갈수록 인간과 비슷하게 된다. 하급신의 사랑의 행위는 인간과 유사하다.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사랑의 행위도 키스, 애무, 미소 혹은 명상으로 바뀐다.

신의 세계에선 임신과 출산도 없다. 자식들은 이미 예닐곱살 먹은 상태로 신의 무릎 위로 급작스럽게 태어난다(유태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아담은 33살 먹은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한다). 가운데 층의 신들은 감각적인 쾌락과는 상관이 없다. 그들의 음식은 환희이며 그들의 몸은 섬세한 물질로 되어 있다. 그들에게 시각과 청각은 있지만, 미각과 후각 그리고 촉각은 없다. 최상층의 신들은 육체가 없고 순수한 명상적 무아경(無我境) 속에 산다. 그 명상은 2만, 4만, 6만, 8만 우주년(宇宙年)까지 지속된다.

각각의 세계는 물 위에 떠있고, 물은 바람 위에, 바람은 창공 위에 떠 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세계들은 세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각 그룹들 사이에는 넓고 황량하며, 어두운 빈 공간이 있어 유형(流刑)의 장소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위에서 묘사한 이러한 환상적인 우주관은 석존이 가르친 교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석존이 한결같이 강조했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해탈로 이르게 하는 실천적 수행이다. 힌두교 전통 하의 인도에서 불교가 등장한 것은 실사구시(實事求是)적 개혁을 의미했던 것이다.



◇고대불교의 환상적 우주관은 부처님의 교설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그것은 힌두교의 우주관에 대한 전통하에서 불교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사진은 베다시대의 전통에 따른 우주변회도의 일부분으로 18세기에 종이에 잉크와 그림물감으로 그린 것이다.

"우주가 유한하다고 보는 것도 옳지 않다
우주가 무한하다는 생각도 옳지 않다
유한하지도 무한하지도 않다는 것도 옳지 않다
이러한 삼중부정은 견성성불을 독려하면서
공허한 논쟁서 벗어나도록 하는 방편이다"

해탈위한 수행강조…힌두사회 實事求是 개혁

산 주위에는 일곱개의 황금산이 차례로 메루산을 둥글게 둘러싸고 있고, 각각의 황금산 사이에는 일곱개의 바다가 동심원(同心圓)을 그리며 메루산을 에워싸고 있다. 따라서 세계 지도는 일곱개의 원이 그려져 있는 화살 과녁 모양이 된다. 바다의 깊이와 산맥의 높이는 중심에서 멀어져 갈수록 낮아진다. 마지막 산맥 외부에 위치한 바다가 인간이 접하는 바다이다. 이 바다에는 네개의 대륙과 무수한 수의 섬이 있다.

동쪽대륙은 반달형의 모양인데 그곳 주민들 역시 반달형의 얼굴을 하고 있다. 그들은 성품이 차분하고 인자하다. 대륙의 색깔은 흰색이다. 남쪽 대륙엔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데 대륙과 인간 얼굴의 모양이 모두 배(梨)를 닮았다.

이곳엔 선과 악, 부(富)와 유복(裕福)이 있고 청색을 띠었다. 서쪽 대륙은 둥글고 붉은 색이다. 주민들은 힘이 센데 소고기를 먹고 둥근 얼굴을 하고 있다. 북쪽 대륙은 사각형으로 녹색이다. 네 대륙 중 여기가 가장 크며 주민들의 얼굴은 사각형이며 채식주의자들이다. 주민들의 영혼은 사후에 나무에 깃든다.

대륙마다 두개의 작은 위성대륙이 있다. 인간이 사는 대륙의 왼쪽에는 라크샤사(rakshasa)의 위성대륙이 있다. 그들은 인류의 적인 악마들인데 공동묘지에서 살면서 시체를 선동하고, 제사를 망치고, 착한 자를 괴롭히고, 인간을 잡아먹는다. 얼굴이 못생긴 악마도 있고, 아름다운 악마도 있다. 어떤 것들은 외눈이나 외귀도 있다. 다리가 두개인 것, 세개인 것, 네개인 것도 있다. 고대 서사시에는 그들의 별명이 자주 등장한다. 살인자, 악한, 공물도적, 어둠의 거인, 몽유환자, 식인종, 육식동물, 흡혈귀, 걸식가, 흑면귀(黑面鬼) 등으로 불린다. 일설에 의하면 라마교의 고승인 파드마-삼보하바가 8세기경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전파했다고 한다.

동쪽 대륙 주민의 수명은 2백50년, 남쪽 주민은 1백년, 서쪽 대륙 주민은 5백년, 북쪽 대륙 주민의 수명은 이천년이다. 구약성경에는 인간의 생명이 70년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자연수명을 1백년이라고 보았다. 쇼펜하우어의 견해는 인도인의 생각과 일치한다. 병으로 죽는 것은 전쟁터에서 전사하는 것 만큼 자연스럽지 않은 사고(事故)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세계의 모습은 하늘에서 내려다 본 수평적인 묘사이다. 수직적으로 보면 세계는 세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맨아래층은 감각의 지역이다. 이곳엔 신, 인간, 악마, 유령, 동물 그리고 지옥의 생물들이 산다. 이 층의 가장 아래 부분은 지옥인데 팔열지옥(八熱地獄)과 팔한지역(八寒地獄)이 있다. 지옥의 위에는 우리 인간들이 산다.

가운데 층은 형상의 지역이다. 제일 위층은 무형(無形)의 지역이다. 가운데 층과 윗층에는 신들만이 살고 있다.

신들은 수명이 무척 길지만 영생(永生)하는 것은 아니다. 몇몇 신들은 메루산 꼭대기에서 살고, 다른 신들은 허공 위에 세워진 궁전에서 산다. 신들의 계급이 올라갈수록 쾌락은 비육체적인 것이된다. 하급으로 내려갈수록 인간과 비슷하게 된다. 하급신의 사랑의 행위는 인간과 유사하다. 상급으로 올라갈수록 사랑의 행위도 키스, 애무, 미소 혹은 명상으로 바뀐다.

신의 세계에선 임신과 출산도 없다. 자식들은 이미 예닐곱살 먹은 상태로 신의 무릎 위로 급작스럽게 태어난다(유태인들의 전설에 의하면, 아담은 33살 먹은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한다). 가운데 층의 신들은 감각적인 쾌락과는 상관이 없다. 그들의 음식은 환희이며 그들의 몸은 섬세한 물질로 되어 있다. 그들에게 시각과 청각은 있지만, 미각과 후각 그리고 촉각은 없다. 최상층의 신들은 육체가 없고 순수한 명상적 무아경(無我境) 속에 산다. 그 명상은 2만, 4만, 6만, 8만 우주년(宇宙年)까지 지속된다.

각각의 세계는 물 위에 떠있고, 물은 바람 위에, 바람은 창공 위에 떠 있다.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세계들은 세 그룹을 형성하고 있는데, 각 그룹들 사이에는 넓고 황량하며, 어두운 빈 공간이 있어 유형(流刑)의 장소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위에서 묘사한 이러한 환상적인 우주관은 석존이 가르친 교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석존이 한결같이 강조했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를 해탈로 이르게 하는 실천적 수행이다. 힌두교 전통 하의 인도에서 불교가 등장한 것은 실사구시(實事求是)적 개혁을 의미했던 것이다.

편 역 : 김 홍 근
〈외대강사 · 문학평론가〉

나의 수행일기

강영숙 〈예지원 원장〉



삼배를 마치고 조용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좌했다. 같이 간 세명의 동행자는 조심 조심 문안 인사말을 하였다. "오래 못 뵈었습니다. 그동안… 뉴욕에서 뵈온지 벌써 오래 되었습니다…"하며 옆에 있는 나를 소개했다. "옛날 유명한 아나운서였구요…" 나는 룩 찔렸다. "지금은 예지원(禮智院)이라고 우리의 심성교육을 하고 있는 강영숙원장입니다.…"

나는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목례를 했다. 4~5분이 흘렀다. 아무말이 없으셨다.

'이럴수가… 그래도 방문객인데… 정중하게 삼배를 올렸는데…' 같이 간 일행은 다른 이야기들만 하고 있었다. 그런 분위기를 잘 알고 있는 모양이다. 처음간 이 사람은 4~5분이 4~5시간만큼 어색하고 당황하게 만들었다.

내가 뭐 잘못 된 것이 있어 노하셨는가? 예비 지식없이 방문한 것이 후회스러워졌다. "저 이제 일어나지요… 다른 손님들도 배례드려야 할 꺼니까요"하고 일어서려 할 때 큰스님은 누군가를 불렀다. 젊은 스님이 와 무릎꿇고 앉아 무엇인가 지시를 듣는 듯 싶었다. 얼마있으니 10권의 책자와 10개의 비디오테이프를 가지고 왔다.

역시 아무 말 없이 내 앞으로 밀어놨다. 이번에는 더 당황했다. 아무런 말도 질문도 없었던 4~5분의 순간들이 무엇을 말 했을때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지. 보이지도 갖지도 만질수도 없는 심성을 가르친다니 얼마나 애로가 많으냐. 얼마나 고달픔이 많으냐. 여기 이 책을 보면 무엇인가 깨달을만 하구나 깨달았을 때 다시 만나자꾸나…"

말 한마디 주고 받지 않았어도 내마음을 꿰뚫어보신 스님. 대행(大行)스님이셨다.

그후 4~5년이 휙 흘렀다.

수행도 공부도 부족한 것을 항상 느끼면서도 찾아 뵙지 못한 세월들. 그러나 말없이 건네주시고 말없이 받은 그 책. 그 속에 주옥같은 구절 하나하나는 나의 마음에 불빛을 밝혀주어 괴롭고 외로운 예절의 길을 밝혀주며 깨달음과 용기를 얻고 있는 것이다.

모든 불자들은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한다. 1백8번. 3천번. 며칠 철야기도하며 올리는 절.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절(寺)의 부처님이 말을 하던가… 생각해 봤다. 그저 웃고만 있는 표정이다. 그 표정의 의미를 어리석은 내가, 중생이 어찌 깨달을 수 있을까.

기쁜 일에도 와서 절하고 괴로운 일에도 와서 절하고 좋은 일에도 절하고 나쁜일에도 절하니 부처님인들 어찌 표정을 순간 순간 바꿀 수 있을까. "그래 그래 알고 있지…"하는 미소의 표정이 아닐까.

말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나는 항상 조심스럽고 불안한데 하물며 열리는 입이라고 그저 내 놓는다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까. 그렇다고 우리가 절에 모신 부처님처럼 아무말도 않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람은 생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눈 뜨면서부터 말을 하는 것인데 그 말을 잘 가려서 살례가 되지 않게 말의 예절을 지키며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더러는 말없는 곳에서 진실을 듣는 경우가 있는 것이다.

나는 대행스님의 그 모습에서 모든 것을 감싸 안는 온화한 표정을 느꼈고 묵묵한 가운데 내마음을 관찰하신 그 미소를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말없이 오고가는 하나의 경지가 아닌가하는 생각을 한다. 정녕 우리사회에서 떠도는 필요한 말보다 필요치 않은 말에 끄달려 나를 흐트리고 살지 않는지 돌이켜 보는 습관도 바로 그 스님과의 인연이 준 신선함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다.

나는 바르게 살기를 서원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런 삶의 자세를 남에게 가르치고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내가 맡은 소임이기도 하다. '바르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내게 주어진 일을 말없이 수행하며, 인연 닿는 모든이와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것이라 믿고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의 삶에 있어 바를 정(正)자 하나의 의미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드릴 큰 지혜이다. 나는 그 지혜의 말없는 실천가로 살고자 말없이 나를 건너다 보시던 그 푸근한 시선을 잊지 못하는 것이다.

"말의 예절지키며 실천 중시하자"

대행스님 '無言의 가르침' 삶의 좌표로 삼아



"암, 중풍, 성인병, 부인병, 신경통, 관절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등 온갖 질병에 대해 기적적인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불교전통 쑥뜸비방"

"뜨겁지 않고 흉터가 생기지않는"

◎ 바라밀 쑥뜸기 구입시 불가사의한 영험력을 나타내는 금강경 신탑 다라니 1매씩을 같이 드립니다.
◎ 전국 시, 군 단위로 바라밀 쑥뜸기를 보급할 분을 찾습니다.

신비의 바라밀 쑥뜸기 보급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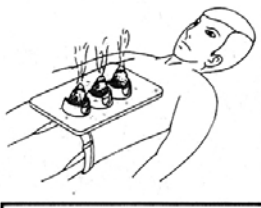
- 현재 가족중에서 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 원인을 알수없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 주위에 오랜기간 병을 낳고자 별방법을 다써도 치유되지 않아 오랜기간 고통스러워하시는 분은 안계십니까?
- 이런분은 주저하지 마시고 무조건 바라밀쑥뜸을 먼저 떠보시기를 진심으로 권합니다.
- 그동안 갖가지 질병으로부터 고통받은 많은 사람들이 바라밀쑥뜸요법으로 완치되었고, 현대의학도 포기한 수백명의 환자들이 바라밀쑥뜸으로 다시 살아난 실증에가 많기 때문입니다.



1)신약중의 신약인 강화 약쑥만을 엄선하여 쑥뜸의 재료로 사용하고 한번에 영묘한 쑥의 약효를 몸속으로 많이 침투시키기 위해 뜸쑥기등을 크게 만들어 뜨도록 되어있다.(재래식 뜸쑥의 50배 이상되는 크기)
2)한약재와 곡물과 경면주사등으로 만든 쑥뜸 링받침과 이것을 받칠수 있는 또하나의 받침대 2종류를 사용하여, 뜨거움을 본인이 조절함으로서 흉터가 생기지 않고 살갗에 직접뜨는 쑥뜸보다 질병치료 효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3)쑥뜸은 쑥을 태울때 생기는 쑥엑기스의 성분과 열자극으로 병이 치유되기 때문에 바라밀쑥뜸에서는 쑥엑기스를 최대한 많이 피부표피(땀구멍)속으로 흡수시켜 오장육부와 14경락을 잘 통하게 하고 거기에 고통이 없는 열자극까지 주어, 염증을 억제하고 노폐물을 산화시켜 병을 치료시키는 원리이다.

바라밀 쑥뜸 건강요법·치료의 사례들
(바라밀 쑥뜸은 이런 병들을 고칩니다)

중풍, 허리디스크, 요통, 좌골신경통, 관절염, 안면마비, 만성두통, 빈혈, 수족냉증, 만성위장병, 위염, 궤양, 위암, 대장염, 간염, 간암, 간경화, 황달, 당뇨병, 비만증, 방광염, 전립선염, 자궁이상, 생리불순, 냉증, 질염, 요도염, 치질, 불임증, 심장, 저·고혈압, 폐렴, 기관지염, 폐결핵, 기관지 천식, 편도선염, 후두염, 축농증, 전신피로, 갱년기장애, 기미, 주근깨, 여드름, 배군살, 피부미용, 시력증진, 알레르기성체질, 술·담배 많이 드시는 분, 정력감퇴, 각종 성인병 예방 등



주위사람 도움없이 편리한 시간에 혼자서 3군데 혈자리를 동시에 뜰 수 있는 점이 큰 특징
5장 6부에 생기는 모든 병의 치료의 근간이 되는 배꼽, 단전, 중완 3군데 혈자리에만 집중적으로 뜨거운 고통이나 흉터자국없이 혼자서 안전하고 효과있게 쑥뜸을 뜰 수 있도록 고안된 바라밀 쑥뜸건강요법



쑥뜸기 내용
1)바라밀 쑥뜸을 뜰 수 있는 15가지 도구셋트화(강화약쑥 약 2개월분 포함)
2)쑥뜸 도구 일체 반영구적
3)쑥뜸기 한셋트로 전가족이 사용
4)노부모님의 효도 선물로는 제일입니다.

"이제 시술이 간편하고 즉효성이 두드러진 바라밀쑥뜸기로 쉽게 자신의 병을 완치시켜 보십시오."

구입문의및 상담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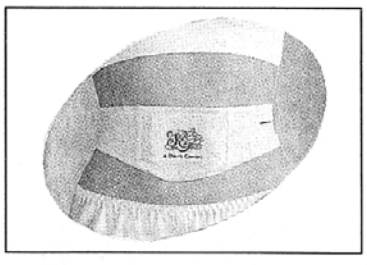
본원: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3동 581번지 (한신상가5층5층)
● 대한불교조계종 보문포교원(원장 각광 스님)
● 부설 : 불교 바라밀 건강 연구회
● 전화 : (051)864-3740

본회: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30-1 (능원빌딩3층) 성지관음회
● 전화 :(0335)34-9490, 39-1906
이건/ (0342)705-3060

서울강남지회 : (02)597-7581
서울강북지회 : (02)747-7033
부산지회 : (051)516-2713(지장정사)
대구지회 : (053)323-2598
대전지회 : (042)222-4936
광주지회 : (062)228-8544
제주지회 : (064)22-3324
경기수원남부지회 : (0331)291-8549
경남진주산청지회 : (0596)73-0039
경남마산지회 : (0551)23-9016
경남울산지회 : (0522)74-7536
창원지회 : (0551)62-0076
제천단양지회 : (0443)46-3023
의정부지회 : (0351)873-0532
경주지회 : (0561)772-3255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를 사용해 보세요!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리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 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질병을 치료하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나에겐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 )
5. 기미가 있다. (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 )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 )
17. 변비가 있다. ( )
18. 당뇨와 갑상선으로 고통받는다. ( )

2가지 이상 관련되시는 분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제품문의 : (株)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수신자 부담 080) 200-4545, 02) 755-9821

다시 푸는 경서 치문경훈 〈61 · 끝〉

戒互用之罪 (계호용지죄) ③

甚寡常住 以爲己有 爲如何哉
심절상주 이위기유 위여하재
彼明眼人 被互用罪
피명안인 피호용죄

상주물을 도둑질하여 제 소유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저 눈밝은 이(수용을 가리킴) 일지라도 어긋 나눠쓴 죄를 입어

尙受苦報
승수고보
況具縛人 取三寶物 私用之罪 豈可逃乎
황구박인 취삼보물 사용지죄 기가도호

오히려 지옥과보를 받았거든 하물며 세간번뇌에 얽혀 사는 이가 삼보공양물을 제것으로 삼으면 사사로이 쓴 죄를 어찌 도피할 수 있단 말인가

又東山監公 行業高潔
우동산연공 행업고결
自東山 遵至五峰
자동산 천지오봉
見火筯 與東山方丈所用
견화근 여동산방장소용

그 권속들에게 이르기를 이것이 동산 방장의 물건이 아니더냐 하니 권속이 그렇습니다. 피차 상주물인지라

"삼보공양물 제것삼아 사사로이 쓰면 지옥과보 면하기 어려우니 삼가해야"

無利害故 將至矣
무리해고 장지의
師 曰汝輩 無識
사 왈여배 무식

이해상관을 따질게 없는고로 가져왔습니다 하였다.
선사가 가로되 너희들은 무식하구나

安知因果 有互用罪 急令送還
안지인과 유호용죄 급령송환

어찌 인과에 어긋나눠쓰는 죄가 있음을 알리오 하시고는 급히 돌려보내라 하였다.

稽古 得髓得皮 (계고 득수득피)

達磨 住小林 經九年 欲返天竺
달마 주소림 경구년 욕반천축
乃謂門人曰時將至矣
내위문인왈시장지의

달마조사가 소림사에 머물기를 9년동안 하시고 천축국(인도)으로 돌아가시고자
이에 문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때가 되었으니

蓋各言所得歟
개각언소득고
道副 曰不執文字 不離文字 以爲道用
도부 왈부집문자 불리문자 이위도용

다들 각자 얻은 바를 말하라" 하였다.
도부가 이르되, "문자에 집착하지도 않고 문자를 여의지도 않으면서 이로써 도를 쓰고 있습니다(생활가운데 도가 있습니다)"하였다.

曰汝得吾皮
왈여득오피
總持 曰我今所解 如慶喜 見阿閦佛國
총지 왈아금소해 여경희 견아촉불국

달마조사 가로되 '너는 나의 가죽을 얻었노라' 하였다.
총지가 이르되 제가 이제 아는 바로는 "경희(아촉불의 나라)가 아촉불의 나라를 보는것과 같이

一見 不在見 曰汝得吾肉
일견 부재견 왈여득오육
道育 曰以我見處 無一法可得
도육 왈이아견처 무일법가득

한번보니 다시 보지 않나이다(제가 저를 보니 다시 본다 할 것이 없나이다)" 하니 조사가로되 '너는 나의 살을 얻었노라' 하였다.
도육이 이르되 "제가 본 곳으로써 이를진대 한법도 가히 얻을게 없나이다"하니

曰汝得吾骨
왈여득오골
最後 慧可 出禮三拜 依位而立
최후 혜가 출예삼배 의위이립

조사가로되 너는 나의 뼈를 얻었노라 하였다.
최후에 혜가는 조사앞에 나와 삼배를 올리고 제자리에 돌아와 서있거늘

曰汝得吾髓
왈여득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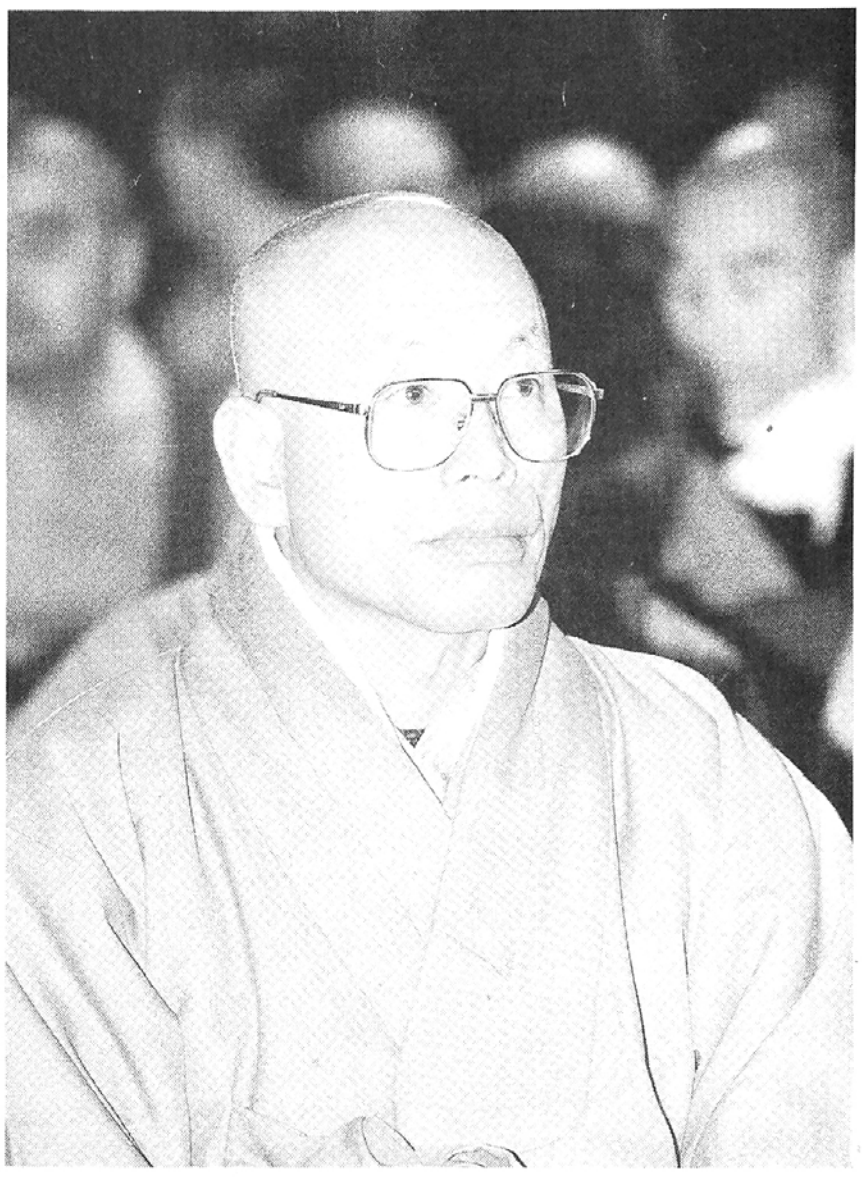
조사가로되 '네가 나의 골수를 얻었느니라' 하였다. 龍眼

인기연재물 '치문경훈'은 본회로 끝내고 다음호부터는 중국 운문산 허운(虛雲) 노화상이 지은 '참선요지'를 연재합니다. 독자 제현의 많은 성원 바랍니다.

★ 지상법석

"바로 지금 이자리

현해스님 〈월정사 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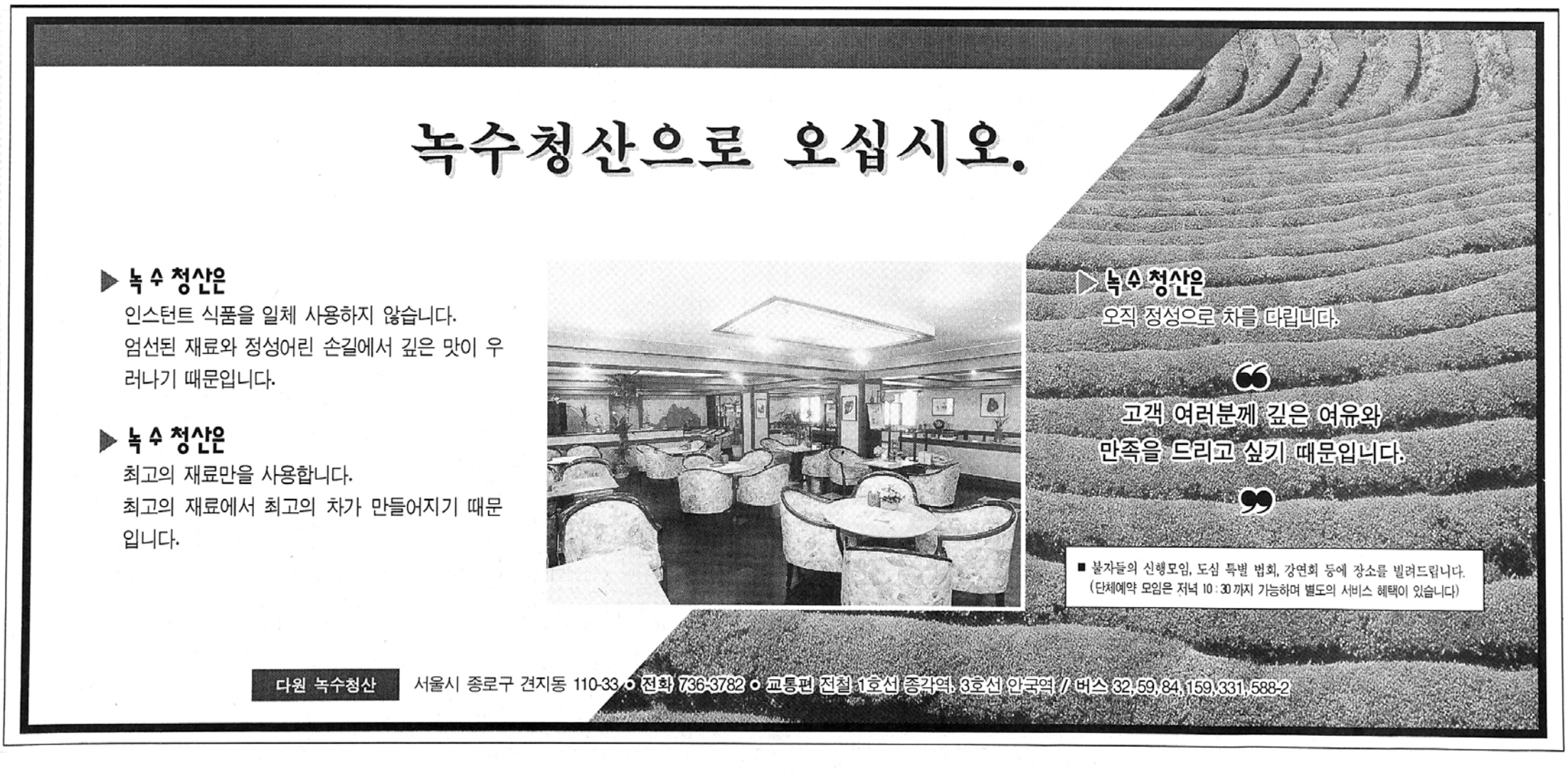


악력
- 35년 울산 生
- 58년 월정사에서 만화스님을 은사로 득도
- 62년 월정사 강원 졸
- 동국대 불교학과 및 대학원 졸
- 일본 고마자와 대박사과정 수료
- 일본 와세다대에서 동양철학 천태학 연구
- 조계종 제3·7·10대 종회의원 역임

어느새 더위가 턱까지 차오릅니다.
그러나 이 여름이 아무리 더울지라도 가을은 옵니다.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요. 계절이 자꾸 바뀌는 것입니다. 바뀌는 계절을 좇아 허덕이며 사는 모습이 보기에 좋습니까. 안타깝습니다. 더우면 더워서 탈이고 추우면 추워서 탈입니다. 계절을 뒤좇아 사는 사람은 언제나 탈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세상도 언제나 탈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노비가 되어 좇아가는 사람에게는 탈이 많을 수 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세상 모든 것은 변해 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자신의 변화를 제대로 응시하며 스스로를 잃지 않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은 늙어가고 죽어 가는 가운데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 성품, 즉 불성(佛性)이라고 합니다. 본성(本性)이라고도 하지요.
그러니까 그 본래의 성품을 찾는 일은 물질계의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그대로인 불변의 자리를 찾는 일입니다. 그것을 찾아내어 '내가 부처구나'하고 확실한 모습을 찾는 것을 수행이라 하고 그것을 이룬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을 뿐아니라 아무나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백유경〉의 이야기 한 토막을 들어 봅시다.

내가 누구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골똘히 생각하며
가지런한 몸가짐이
수행의 첫걸음

옛날 어떤 사람이 돈은 많은데 욕심이 많고 머리가 조금 나빴습니다. 어느날 친구집에 놀러 갔는데 근사한 3층 누각을 지어 놓은 것을 보고 자기도 3층누각을 짓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서 일 잘하는 목수를 불러 3층 누각을 지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며칠후 부터 목수가 일을 하는데 땅을 자꾸 파니까 그 부자가 목수를 보고는 "나는 3층 누각이 필요한데 왜 자꾸 땅을 파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수는 "땅을 파서 기초를 다지고 주춧돌을 놓고 1층과 2층을 짓고 3층을 짓는 것이 일의 순서입니다"라고 대답 했겠지요. 그러나 그 어리석은 부자는 "땅 파는 것도 필요 없고 1층, 2층도 필요없고 다만 나는 3층 누각만 필요하다"고 우겨대는 것이었습니다. 목수는 이 어리석은 주인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며 그 집을 떠나 버렸습니다.
수행을 하여 부처를 이루는 일은 어렵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 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 같이 어리석은 사람은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 어리석음으로 인해 불법에 귀의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고, 혼자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사람이 함께 정진하는 곳을 찾아 거기서 조금씩 수행력, 즉 근기를 키워야 합니다. 아니면 훌륭한 스승을 찾아가 스승의 도움을 받으며 자기의 본래 모습을 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성급하게 해서도 안됩니다. 〈백유경〉의 이야기가 암시하듯이 기초를 다지고 아랫층부터 차근차근 지어올라가지 않으면 바른 집은 지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요.
요즘은 소위 '스피드 시대'가 되어서 그런지 뭐든지 빨리빨리 해버리려 합니다. 남보다 빨리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일 수 있지요. 그만큼 능력이 탁월하다는 증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니까요. 시대가 그런 쾌속을 요구하는데 느릿느릿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는 빨리 할 것과 차근차근 할 것을 잘 가리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얼른 해서 마치고 보자는 생각이 뒤에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 오는지 최근 몇년 사이의 대형사고들이 잘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수행은 어려운 것입니다. 서둘러서도 안되고 제 멋대로 해서도 안됩니다. 가서 이를 곳이 어떤 자리인지를 분명히 인식하지 않으면 안될 기나긴 여정이 수행인 것입니다. 그러나 수행이 어려운 것이라는데 집착을 하면 더 큰 무명을 낳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진리는 무엇인가, 본래 내 마음 자리는 어느 곳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며 몸을 가지런히 하는 것부터 수행은 시작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행동의 삶이 그 수행의 기본틀 안에서 영위되어야 합니다. 생활불교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활이라는 현실적 욕구와 수행이라는 지극히 초월적인 행위의 결합이란 얼마나 어려운 것입니까. 그 두가지를 두가지로 나누어 보는 한은 영원히 이뤄낼 수 없을 겁니다. 생활속의 수행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생활과 수행을 따로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앞에서 여러번 수행은 어려운 것이라고 말 했지만 그것도 합정입니다. 생활이



지상법석

본래 마음 찾는 터전입니다"

"너와 나는 부처님자리 향해가는 예비부처들
생활속에서 불성 조금씩 찾아내는 수행을…"

수행이고 수행이 생활이 된 자리에서는 어려울 것도 쉬울 것도 없습니다. 어렵다 쉽다를 따질 이유마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혹은 수행하며 가장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신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모든 중생은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나와 여러분 모두가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불성, 즉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가르침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함은 시작됐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태어나신 직후 '천상천하유아독존'을 선언 하신 것도 모든 존재에게 성불의 가능성이 있음을 예시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처님의 자리를 향해 가는 예비부처들 입니다. 그래서 수행의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불성을 조금씩 발견해 나가는 것은 즉 불(佛)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법(法)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요, 승(僧)은 비구·비구니를 말합니다.

또 다른 삼보로는 주지(住持) 삼보가 있습니다. 〈법화경〉에 코면, 주지 삼보에 있어서 불보(佛寶)는 돌이나 흙으로 나의 모습을 빚어 나를 향하여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법보는 종이나 대나무, 나뭇잎에 글로써 쓰는 것을 말하니 경전(經典), 즉 책입니다. 주지 삼보의 승보는 삭발염의하고 가사를 걸친 범부 비구입니다.

부처님을 잘 믿으면 윤리 도덕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율(戒律)을 지니게 되고, 계율을 잘 지키면 모든 공덕을 스스로 갖추게 됩니다. 둘째로 공양, 즉 먹고 입는 것이 절로 생깁니다. 우리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모든 것이 구족하여 주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내게 불성이 있다는 것과 내 삶의 현장이 그 불성을 드러내 보는 자리라는 믿음을 삼보에 대한 믿음과 함께 지닐때 우리는 아무런 걸림이 없을 겁니다. 무엇이 두려워 갈 곳을 못가고 무엇이 무서워 할 일을 못하겠습니까. 믿음은 용기를 낳고 용기는 지혜를 낳습니다. 나 스스로 용맹스럽고 지혜로운자의 요건을 갖추는 것이 바로 믿음의 벽을 굳게 드리워 나를 우뚝 세우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불성을 밝혀 지혜를 완성한 자신의 모습을 볼때 그때를 우리는 견성성불이라고 합니다.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삶에 중생고를 짊어지고 파 묻혀 버린다면 끝내 중생으로 남아 흐르는 시간과 변화하는 계절의 노예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의 존귀함을 자각하고 나를 불성의 중심자리에 일으켜 세울때 불교도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가 바르게 선다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 세상을 휘감은 진리로 넘쳐 난다는 것입니다.

나만이 불성을 가진 불자가 아닙니다. 내 이웃과 모든 인연닿는 중생이 모두 부처의 성품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뒤섞여 사는 이 세상이 중생의 세상이라 하지만 이 중생세상이 부처 세상으로 바뀌는 것은 불자들이 얼마나 열심으로 수행정진 하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수행해야 할 것인가를 알았으니 남은 것은 알음알이를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것 뿐입니다.

제행(諸行)이 무상(無常)하니
시생멸법(是生滅法)이라.
생멸이 멸이(滅已)하면
적멸(寂滅)이 위락(爲樂)이라.

모든 것은 변하지만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는 참 부처님을 찾아 봅시다.

"가르침을 행동으로 실천해야 바른믿음이죠"
불자들의 수행정진 '중생세상 정토화' 가는 길

삶을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불성을 지녔다는 믿음 못지 않게 중요하게 믿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는 이 현실의 세상이 곧 우리가 본성을 찾아 부처의 경지에 오를 터전이라는 겁니다. 이는 생활과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님을 절실히 깨닫는데서 비롯되는 실천불교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부처님의 말씀인 〈성구경(聖救經)〉에 보면, 세간의 생활을 일곱 종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간의 생활에서 첫번째는 이득(利得)을 따지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익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지요. 직장 생활도 월급을 받기 위해서이고, 장사하는 사람도 돈을 벌기 위해서 합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인간 사회의 지극히 정상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득과 반대되는 손실(損失)이 있습니다. 살다보면 우리 뜻과 다르게 손실을 볼 수 있는것이 우리 생활입니다.

세번째는 이름입니다. 명예를 말하는 것이지요. 명성을 위하여 아등바등 노력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네번째는 인간은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상찬(賞讚)이라 합니다. 상받고 칭찬받는 것을 말하지요.

다섯번째는 칭찬과 반대되는 비방받는 것입니다. 남을 칭찬하기 싫어하고 남을 비방하기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여섯번째로는 앞에서 말한 여러 가지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일어나는 다섯 가지 괴로움입니다. 그 다섯 가지가 잘 이루어질 때에는 즐거움이 생기지요. 즉, 고(苦)·낙(樂)입니다.

이득·손실·명성·상찬·비방·고·낙, 이 일곱가지를 세간 생활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것이 고(苦)고, 어느 것이 낙(樂)입니까? 이 세상의 살림살이가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싫어집니다. 울고 웃는 것이 인간의 세간사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단 우리의 세간사를 부정적인 눈으로 보았습니다.

세간사(世間事)를 고(苦)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고(苦)란 무엇입니까? 생(生)·노(老)·병(病)·사(死)이지요. 태어나서 늙어가고 병들고 죽는 것이 고(苦)라고 못을 박아 버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괴로움에서 구원되는 방법도 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의 첫번째로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화엄경〉 '현수품'에 보면,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가 되느니라. 모든 선법(善法)을 증장시키고, 모든 의혹을 없게 하며, 깨끗한 믿음은 더러움을 없게 하고, 공경의 근본이 되느니라. 믿음은 보장(寶藏) 제일의 법이 되느니라. 믿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내가 알고 실천하는 데 어려움을 없게 하고, 장애를 없게 하느니라. 또한 믿음은 모든 착함을 이루게 하고, 구경(究竟)에는 부처님의 곳(心)에 이르게 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믿음은 불교에서 근본이 됩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중요시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佛)·법(法)·승(僧) 삼보입니다.

삼보에는 화상(化相) 삼보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생각으로 미치지 못하는 부사의(不思議)한 일을 이루게 됩니다.

> "나에게 불성이 있다는 믿음
> 불성 드러내겠다는 믿음
> 삼보에 대한 진실한 믿음 지닐 때
> 걸림없는 용기와 지혜 얻게 됩니다"

또 부처님 법을 믿으면 어떤 이득이 있는가 하면, 일상생활에서 만족을 느끼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불평 불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스님을 믿으면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신심을 일으키게 되고, 물러나지 않으며, 싫증이 없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힘은 이렇게 우리 생활에 큰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또한 악지식(惡知識)을 멀리하게 됩니다. 악지식은 자기도 잘 알지 못하고 남을 이끌어가는 것으로서 남에게 못된 것을 가르치니, 스님을 잘 믿으면 어떤 사람이 날 잘 지도해 주는지 못해



과학속의 불교 ┐
불교속의 과학 72
김 성 구
반야심경과 물리학 ⑨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설한후 바로 반야심경은 '수상행식(受想行識) 역부여시'라 선언하고 있다. 관자재보살이 색수상행식의 오온이 다 공하다는 것을 반야로 보았음을 선언하고 잇달아 그 내용을 설하는 것이니 물질계만 공한 것이 아니라 일체의 감각 지각과 사람의 감성및 이성을 포함하는 정신작용도 공하다고 설하는 것이 오온개공의 선언과 부합하지만 이렇게 수상행식 역부여시라 강조한 이유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반야심경은 정신·물질의 일원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물리학자들이 입자·파동의 이중성을 입자에서 발견한 것처럼 반야로 보면 정신과 물질도 하나임을 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입자와 파동이 하나의 입자가 갖는 이중성이듯이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는 정신·물질마저도 하나인 그 무엇이 갖는 이중성에 불과

일체즉 유심조

정신과 물질 하나…일체감각 공의세계
사물·현상은 의식이 만들어낸 창조물

함을 사리자에게 설하고 있는 것이다.

과학은 물질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정신계는 더더욱 모른다. 따라서 지금 정신·물질을 입자·파동의 이중성과 같은 수준에서 얘기하거나 확인할 길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일원론은 일찌기 대두되었고 그러한 일원론의 입장에서 정신-물질-생명을 하나로 보고 연구하는 사람이 있음도 사실이다. 특히 혼돈의 과학, 복잡계의 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인공생명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인공생명과 실제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 사이엔 개념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음을 주장하고 있다.

물질계를 다루는 학문이 물리학이지만 물질계를 다루고 관찰하는 것은 의식(意識)을 가진 사람이기에 물리학도 의식문제를 도외시할 수는 없다. 사실 관찰자와 물질계를 나눌 수 없다는 원리가 물리학에 있는데 이 원리를 불확정성 원리(不確定性 原理) 또는 일반화시켜 상보성 원리(相補性 原理)라 부른다. 이 원리는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물질계든 정신계든 그 무엇을 대상으로 삼아 연구하는 사람들, 학자가 아니더라도 관찰하는 '나'와 대상인 사물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분별지가 작용하여 주·객을 분리시킬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해 설명한 중국의 우화를 생각해 본다.

옛날에 수염이 아름다운 노인이 있어 소문이 널리 퍼졌기에 임금이 보고 싶어 불렀다. 과연 소문만치 아름답고 긴수염이기에 임금은 감탄하고 상을 내렸다. 그리고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어 노인에게 물었다. 잘 때 수염을 이불속에 넣고 자는지 아니면 수염을 이불 밖에 내놓고 자는지에 관해 물었다. 평소에 의식치 않고 지냈던지라 노인은 대답을 못하고 집에 돌아왔다. 돌아와서 잘 때 자기가 어떻게 하고 자는지 살펴 보았더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수염을 이불 속에 넣어 보았더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이불 밖에 내놓았더니 이번엔 허전하고 무엇인가 빈 것 같아서 잠이 오지 않았다.

한 생각도 없이 이불과 나를 분리시키지 않았을 때는 아무런 문제도 없고 편안하던 것이 한 생각이 일어나 나와 이불을 분리시킨 그 순간부터 노인에겐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 불편했다는 얘기다. 편안함과 불편함은 노인이 갖는 하나의 느낌에 불과하여 다른 느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복잡한 생각이 일어나 마음속에 여러가지 사건이 일어났음을 생각해 보기에는 어렵지 않다.

편안함을 느꼈던 불편을 느꼈던 노인이 만들었던 것이다. 물리학도 이 우화와 비슷한 설명을 자연계에 대해 하고 있다. 분리할 수 없던 하나, 즉 자연을 바라보는 관찰자와 관찰되는 자연은 하나인데 이 하나로부터 관찰자와 자연을 분리시켜 주·객으로 나누었기에 복잡하다면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 현상이 생겼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이 현상은 모두 관찰하는 사람의 창조물이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사물과 현상은 본질적으로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창조물인 것이다. 일체 즉 유심조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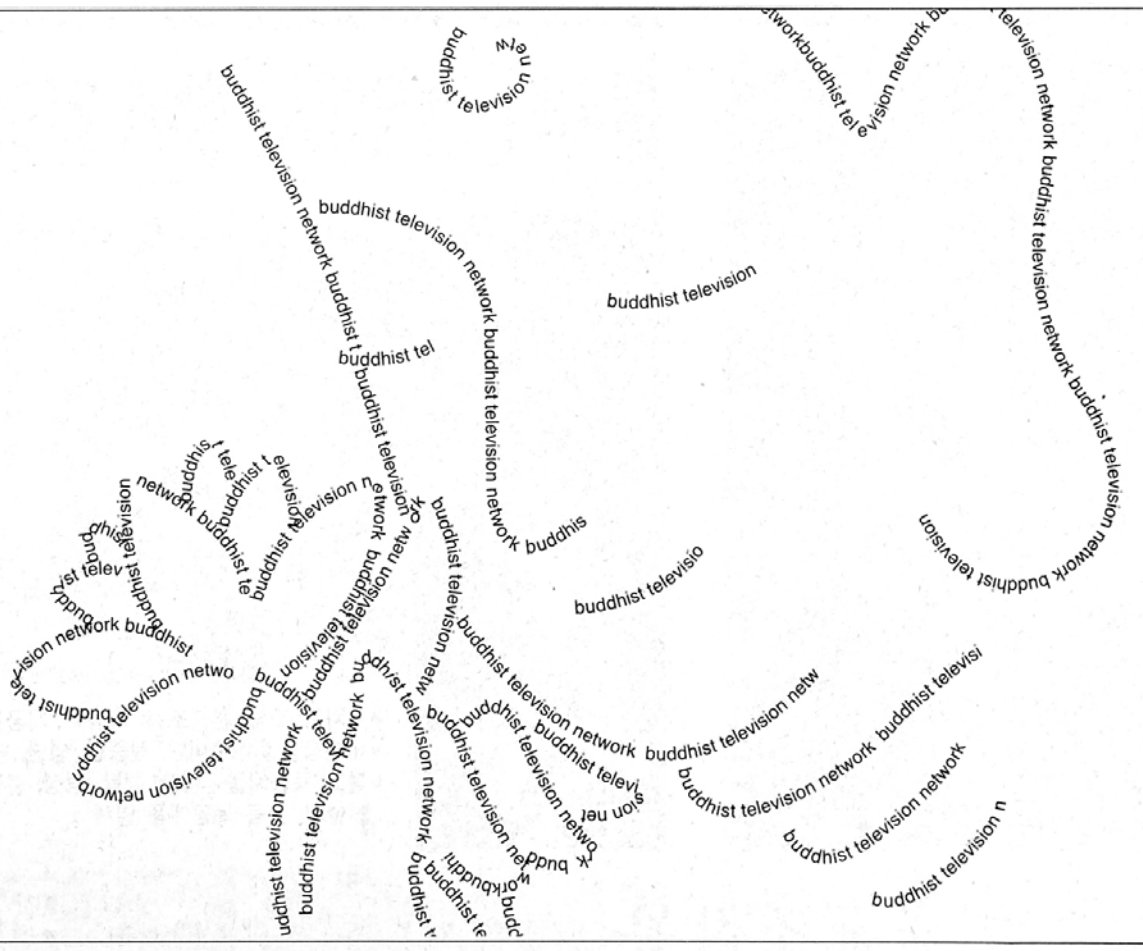
〈이화여대 교수·물리학과〉

btn캠페인① 불교 TV시청자가 됩시다

부처님을 자주 뵈면 부처님이 됩니다

불교TV!
부처님을 매일 만납시다

불교TV를 보면 불교를 알게됩니다.
불교TV프로그램 하나하나에는
우리민족 정서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불교문화전통의 짙은 향기가 배어 있습니다.
미소 그윽한 부처님의 자비정신을
이제 불교TV영상을 통해 만나보십시오.



btn 불교텔레비전 3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 418 (금호전기빌딩)
전화:(02)3270-3300 Fax:3270-3498

케이블TV 설치 문의처
■ 서울지역 강남케이블TV(강남구)518-3000 · 강동케이블TV(강동구)4747-115 · 강서케이블TV(강서구) 3663-1414 · 구로케이블TV(구로,금천구)830-8300 · 관악케이블TV(관악구)877-5000 · 노원케이블TV(노원구)934-3366 · 동대문엔칩방송(동대문구) 215-0114 · 동부케이블TV(중랑구)433-2121 · 동서울케이블TV(성동,광진구)498-6000 · 동작케이블TV(동작구)824-8080 · 마포케이블TV(마포구)717-1125 · 미래케이블TV(도봉,강북구)999-5555 · 북부케이블TV(성북구)942-0001 · 서대문케이블TV(서대문구)365-0101 · 서초케이블TV(서초구)525-8952 · 성신케이블TV(성신구)318-2700 · 우리종합유선방송(송파구)418-3000 · 은평케이블TV(은평구)388-8000 · 중앙케이블비전(종로,중구)753-6781~3 · 한강케이블TV(영등포구)634-3200 · 한국통신케이블TV(양천구)645-2222 부산지역 금정케이블TV(금정구)515-6140 · 낙동케이블TV(강서 사상 북구)326-9112~6 · 동남케이블TV(남 수영구)620-5000 · 벡젠케이블네트워크(부산진구) 640-8585 · 부산케이블TV(동래 연제구)555-0300 · 서부산케이블TV(서 사하구)293-0300 · 중부산종합유선방송(중 동 영도구)412-0666 · 해운대케이블TV(해운대구)748-1122 대구지역 금호케이블TV(북구)953-4000 · 동구케이블방송(동구)985-7777 · 대구케이블비전(중 남구) 656-5555 · 서대구케이블TV(서구)567-6000 · 수성케이블방송(수성구)768-8888 · 푸른방송(달서구)551-2000 인천지역 남동케이블TV(남동구)422-4757~9 · 남부종합유선방송(연수 남구)875-0307 · 북인천케이블TV(부평 계양구) 551-9300 · 서인천케이블TV(서구)582-3211~4 · 서해종합유선방송(중,동구)761-8888 광주지역 광주케이블텔레비전(동 북구)512-4433 · 광주케이블TV네트워크(서 남 광산구) 370-5700 대전지역 대전케이블TV(대덕 동구)673-3322 · 한빛케이블TV(중,서 유성구)222-8350~1 기타지역 수원방송국(수원)257-4011~9 · (주)강원케이블TV(춘천시,홍천 철원 화천 양구군) 242-2131~2 · 청주종합유선방송(청주시,청원군) 271-3000 · 천안케이블TV(천안시,천안군)551-9991~8 · 전주케이블TV(전주시,완주군)250-6500 · 서남방송(목포시,신안,무안군)76-7777 · 경북케이블TV(포항시,울릉,영일군) 251-7777 · 경남케이블TV(창원,진해시)67-6900~4 · 제주케이블TV(제주시,북제주군)41-7777

고은 불교대하소설



백옥의 병

우녀의 나날은 인담이 떠난 이래 그녀 혼자서 섬을 독차지하고 있는 통뎅그렁한 것이었다. 이를테면 그것은 섬 전체가 8만대장경의 책더미로 뒤덮여서 어떤 책부터 읽을지 모를 지경이 된다는 가정 따위는 조금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허무감이기도 하였다.

그래서 이 섬에서 오직 한 가지의 책을 지니고 있었던 서하문집의 인담이야말로 서하문집이 그저 책이기보다 그가 반듯이 갖추고 있어야 할 가사나 밥을 담아먹은 바리때와 다를 바 없었다. 그것을 책으로 보아, 문자놀이에 빠졌다고 한번씩 내지른 그녀 자신이 혼자의 나날을 지내는 동안 하나의 속절없는 뉘우침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만권의 책인들 어찌 그것이 책일 뿐이겠는가. 이미 그 책더미 속에 파묻힌 젊은 선비가 있다면 그 선비는 책 속의 문자에 예속되기보다 그 문자들이 자아내는 비문자 너머의 찬란한 세계를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또다른 실상이 아니겠는가.

책의 내용인즉 그 이치와 주제가 그것을 읽는 사람을 충성스러운 노복을 만드는가 하면 어느덧 그 노복은 자유를 얻어 훨훨 날고 있는 해방일진대 인담이 임춘의 애절한 시를 읽노라면 그 애절함이란 어느덧 또하나의 세상을 이루어 임춘의 삶과 비슷한 방황을 기약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인담화상이 나보다 한 수 위였어!" 라고 우녀가 결코 책 따위로 뒤덮이지 않은 섬의 여기저기를 돌아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녀는 이어서 어떤 생각에 미치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혹시나?"하고 고개를 갸우뚱거리기까지 하였다.

"혹시나… 무욕도에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은 더 나아가서 "…나도 이곳을 떠나버린다면… 그래야만 이 섬은 옛날의 사람 없는 섬으로 돌아가 그야말로 무욕의 섬이 되겠지… 누가 파도소리를 듣고 누가 이토록 포기할 줄 모르고 불어대는 바람을 감당할 것인가."

서해의 다른 무인도들은 이미 그런 일을 이어오고 있거니와 그 가운데서 무욕도가 인담이 건너옴으로써 섬 자체의 본래면목에 사람이 끼어들어 그 본래면목을 사람의 것으로 삼았던 것이다.

새삼스럽게도 우녀는 그녀 혼자가 뭄으로써 그동안 이 섬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쏟아지지 않는 은덕을 실감할 수 있었고 그 은덕은 곧내는 빛이 되어 마땅하다.

하지만 그녀로서는 그런 은덕 뿐 아니라 그녀나 다른 사람들이 이 섬에 산 것이기보다 이 섬이 그들을 불러들여 섬의 한군데를 꾸몄다고 여기기까지 하였다.

인담이 없는 곳에서 인담의 자취가 더 역력하게 된 우녀의 심경에는 무욕도의 고독으로 하여금 쏘아대는 눈빛의 힘을 풀어서 바다 속의 고기들이 물속에서 눈빛을 물에 적셔버리는 것처럼 그녀의 눈은 따뜻한 눈물로 고여있게 되었다.

"내가 화상을 이렇게 연모하는 것인가." 라고 그녀는 그녀의 발굼치를 뽀족한 바위 끝에 다친 아픔과 함께 떠난 사람을 하나의 아픔으로 삼고 있었다.

"다 떠나버린 빈 섬이야말로 커다란 도를 이룬 경지이리… 아니 다 떠나버린다는 것은 남은 두 사람만이 떠나는 것이자 이 섬이 오래전부터 가꾸어온 소나무나 다른 나무들 그리고 풀과 바위 바위 위를 넉넉히 덮고 있는 흙들이야말로 이 섬의 일자가 아닌가. 우리 무욕도 식구들이야 그동안 이 섬에 신세진 한동안의 나그네들이 아니었던가… 아 오랜만에 술에라도 취하고 싶구나… 지난날 예성강 나루터의 한 주막에서 빈 속에 얻어마신 막걸리 한 사발로 빙 돌았던 일이 떠오르다니… 얼마만인가… 인담화상이 오지 않는다면 나혼자 이 도량을 떠나 그 예성강 나루 주막에 의탁하여 술꾼들에게 술이나 따라주며 살아갈까…"

그녀는 삼엄하기까지 한 침정으로서의 정신적 긴장보다 몽롱한 취기야말로 많은 수행자들이 겪어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경지인지 모른다고 여겼다. 진묵이라는 사람을 그때 떠올렸다. 언젠가 불이가 전라도 바닷가에 있는 진묵도인을 찾아갈까라고 말하는 것도 생생하게 떠올리고 있었다.

"아서라."

그녀는 술에 관한 일이라면 여기서 뱃길로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곳에서 사는 그 무애승 진묵을 더이상 떠올리기보다 부처님 당시 부처님을 몰아내고 그 교단을 장악할 의도를 가진 사촌동생이 취한 코끼리를 몰아 부처님을 밟아죽이려 한 일을 떠올렸다.

그녀는 어슬렁어슬렁 섬 꼭대기까지 올라가 보았다. 지난날 벌채로 있던 용맹정진의 방은 이제 없어졌다. 그곳은 바닷바람의 냄새나 소리가 뚝 끊어진 숲속으로 독립되어 있었다.



80

그곳 숲속에서 동쪽 내리막에 다담아 거기서 육지의 바닷가 전체를 한눈에 담았다. 그녀의 눈에는 그 전경(全景)으로서의 풍경과 함께 그 풍경 속의 한 석불이 이쪽을 향해서 오래오래 서 있는 것과 그 석불 뒤쪽에서 움직이고 있는 어떤 사람이 들어와 있었다. 실로 숱개의 눈처럼 밝은 그녀의 눈이었다.

오랜 석불은 백제시대의 미륵불이거니와 그 석불은 서해에 떠 있는 무욕도의 동쪽 기슭에 있는 천연의 바위멍어리 하나가 석불을 빼다 박은 듯이 서 있어서 바다를 사이에 둔 그 두개의 석불은 하나의 인위(人爲)와 하나의 자연을 합치시켜 오랜 시간을 속세의 사랑이나 세속을 초월한 아름다운 상즉(相卽)의 관계를 이루고 있었다.

저건너 바닷가의 석불 뒤에서 움직이는 사람의 모습을 떠올린 우녀의 눈에는 그 사람의 모습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되어 인담의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었다.

"인담화상이다! 틀림없이"

과연 그때 인담은 먹숭산과 가야산을 두루 찾는 동안 정혜사의 화주승에게 서하문집 간행을 의뢰한 뒤 우선 세질의 필사본으로 만든 것을 받았다. 그것을 기름종이로 포장하여 걸망 속에 챙겨서 안면도에 건너오는 중이었다. 그러니까 원본은 화주승에게 넘긴 것이다. 아무튼 우녀가 본 인담은 이때의 인담이었는지 모른다. 그런 인담은 무욕도에 있던 인담이 아닐 만큼 달라져 있었다. 그것은 오래동안 품고 있던 일을 이루었기 때문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무욕도의 공부에 끼어있는 이끼가 벗겨질 만큼 육지의 여기저기에서 빛나고 있는 법열(法悅)의 기운들을 쏘여 새로운 심신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인까.

> 새벽이었던가. 인담이 누운 옆에 사람 기색이 있었다. 제정신을 차리고 더듬어 보니 그 집 낭자가 아닌가.

꽃 속에 노니니 그 향기 옷 속에 가득하여라
(弄華香滿衣)

인담의 몸에서도 청년 무욕도의 바닷바람에 젖은 냄새와는 다른 냄새가 풍겨나는 것 같았다.

그는 화주승으로부터 실로 진기한 백옥(白玉)으로 된 작은 병을 선물로 받았다. "이 빈 병안에서 이따금 향내가 우러나올 것이오. 하기야 향기라는 것도 덧없는 오관(五官)중의 한가지 그림자에 불과하거늘… 아무려나 몸의 심심풀이로 지니고 있으면 어디 가다가 여각(旅閣)의 국밥 값이라도 하게 되겠지"라는 그의 너덜너덜한 말은 장황한 것만큼이나 어떤 뜻을 머금고 있는 것 같았다.

"이를 감사하기에는 너무 모자랍니다"

"앞으로 인담선사께서도 그런 용동(龍動)의 시절이 올터인즉… 그럼 어서 건너가시지요. 서하 임춘선생은 이제 나에게 맡겨두시고… 이제 선사는 임춘을 내주신 은사 담인보살의 숙원을 다 이루어드린 것이니까."

"다시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 어서 먼 길 조심하시도록… 하기야 몸 가는대로 가는 것이 무상대도(無上大道)일 것이오. 하하"

아니나 다를까, 인담은 오래 진 짐을 벗어놓은 듯이 마음이 활짝 열려 부풀었고 몸은 나비인양 가벼웠다.

그는 무욕도로 건너가는 갯가에 오기까지 도중에서 하룻밤 머물러야 하였다. 안면도의 소금고개 넘기 전의 한 오막살이에서 하룻밤을 의존하였다. 노인과 외동딸인 낭자가 살고 있어서 입다문 낭자가 새로 지은 밥상을 받았다. 마치 비몽사몽간의 일 같았다.

눈썹이 길고 눈빛이 등잔불빛을 물리치도록 검었다. 목이 길었다. 노인의 좋은 점만을 닮은 것이었다.

"마침 목이 마르던 참이라…"라고 느린 말투가 이어졌다. 숭늉그릇을 딸이 가져올 때까지 인담은 벌써 밥을 거의 먹어치웠다.

"자아 한모금 마십시다."

그것은 숭늉이 아니라 술이었다. 하루내내 걸어온 피곤과 배 고픈 뒤의 식곤 때문인지 거기에 더하여 뜻밖의 술 때문인지 바로 잠이 들었다.

새벽이었던가. 인담이 누운 옆에 사람 기색이 있었다. 제 정신을 차리고 더듬어보니 그 집 낭자가 아닌가.

어떻게 된 영문인가. 그는 재빨리 일어났다. 그의 옷도 벗겨져 있었다. 주섬주섬 옷을 찾아 입어야했다. 옆에 누워서 깊은 잠을 자는 낭자 몰래 문을 가만히 열고 밖으로 나왔다. 등골에 땀이 났다.

기울어진 별들이 마지막으로 빛의 마당을 펼치고 있었다. 누가 저 하늘의 별무리만큼 완벽하게 세상을 차릴 수 있겠는가. 먼동 직전인지 한밤중의 어둠과는 다른 어둠 속에서 저 아랫마을의 닭우는 소리도 들려왔다.

그는 길을 나섰다. 그런데 그의 뒤에 따라오는 인기척이 있었다. 그가 돌아다 보았다. 어둠 속을.

그림 · 조향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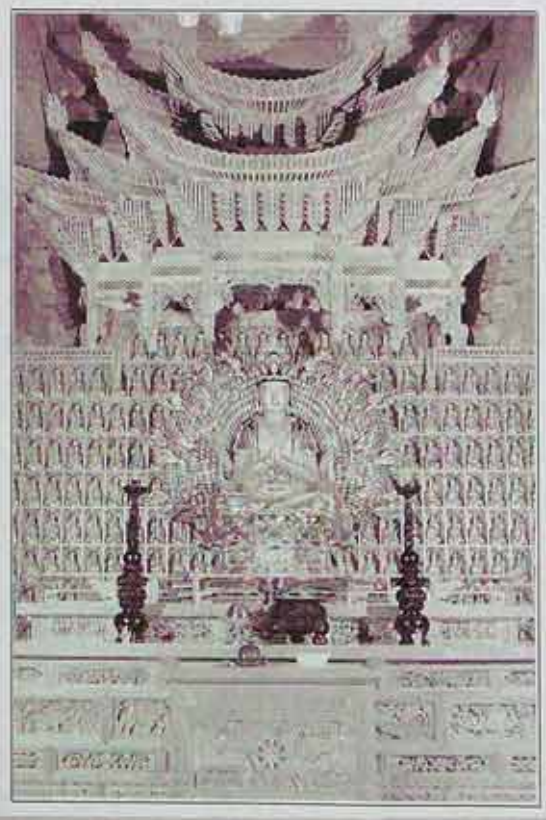
"은사의 숙원을 이뤄드렸으니 이제 龍動의 시절이…"
서하문집을 간행한 인담은 짐을 벗은 듯 가벼웠다

불사의 현장에서 함께 일하겠습니다





- 부처님 조성, 천불조성, 목탱화, 개금불사, 천불감실
- 내부장엄불사(수미단, 신중단, 영단, 닫집…) 등등
- 불교 목공예품~ 법상, 경탁, 경상, 불전함, 목어, 호신인등, 연설대, 등등 목공예품 일체



불사의 전당 **불교조각원** 서울 종로구 견지동 81번지 2층 (조계사 건너편)

■사 무 실 (02) 738-8447~8
■공 장 (051) 804-8907
■부산사무실 (051) 556-0541~3

대표 **이 진 형** 합장

4박5일 단기출가 여름산사 산문 활짝

송광·해인·통도사등 참가신청 접수
일부사찰 서류전형등 동참인원제한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4박5일동안 묵언과 참선수행을 하며 마음공부에 전념하고 있는 여름사찰 수련원생들. 〈사진은 지난해 송광사 수련회 모습〉

도시는 서서히 열탕처럼 끓어 오르기 시작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이나 바다를 연상하며 휴가의 꿈에 부풀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근 여름휴가를 수많은 인파로 북적이는 유명 해수욕장이나 관광지를 찾기 보다는 단기출가를 통해 승가의 엄격한 법도와 출가승려의 칼날같은 용맹정진을 체험하며 휴가를 뜻있게 보내려는 불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출가 4박5일. 4박5일동안의 출가생활은 입회 첫날 먹물옷을 갈아입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새벽예불부터 수련이 끝나는 날까지 묵언과 참선을 하고 걸을때는 차수(叉手)를 해야 하는 등 모든생활이 출가스님과 똑같이 진행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체험해보지 못하는 스님들의 수행의 길을 한걸음씩 좇아가며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본다는 점에서 인기가 높다.

이처럼 재가불자들의 심신수련과 신심함양을 위한 단기출가의 수련대회는 전국의 각 사찰에서 개설하고 있다. 사찰 여름수련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서둘러 사찰측에 참가신청을 해야한다. 7월초부터 6~7차에 걸쳐여는 송광사, 해인사, 통도사 대흥사 등의 경우는 신청접수를 6월중순까지로 정했다. 참가비는 평균 6만원 안팎.〈표참조〉

그러나 접수를 하더라도 모두 수련대회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 사찰에서 제시하는 서류전형을 통과해야 한다. 이는 많은 인원수를 무작정 수용하는 것보다 몇안되는 작은 인원이라도 보다 알차고 수련회다운 수련회로 이끌겠다는 사찰의 의도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즉 참가자들에게 출가수행승들의 생활에 버금가는 강도높은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의 오묘함을 느끼도록 해주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4박5일간의 일정으로 6차례에 걸쳐 수련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송광사의 경우 올해는 참가자를 무작정 받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특히 올해 수련대회는 정계, 재계, 교육 등의 분야에 근무하는 지도자급을 비롯 수련대회 참석 경험이 없는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선발, 참선을 통해 신심증장과 포교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6차 수련대회는 전문가반으로 구성, 그동안 수련법회 참석한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수련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참가자들은 선실수를 통해 자신을 다스리는 법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게 된다.

해인사는 참선뿐만 아니라 등반, 1천8배, 법문 등의 시간을 갖는다. 특히 참가자들은 지도했던 스님들과 대화를 통해 수련회 기간동안 체험했던 것들을 맘껏 나누는 시간도 마련된다.

지난해 송광사 수련대회에 참석했던 금강심보살은 "스님들로부터 도량에서의 몸가짐, 공양예법 등을 차근차근 배우고 수련기간동안 쉴틈없이 이어지는 정행군을 통해 그동안 내가 얼마나 무절제하게 생활했던가를 깨닫게 되었다"며 "불자라면 한번쯤 수련대회에 참석해 보는 것이 자신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통도사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련회를 실시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다. 8월3일부터 6일까지 실시되는 수련대회는 판사, 검사, 의사 등 자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어린이 교사 일반인들까지도 참석할 수 있도록 산문을 활짝 열어 놓고 있다. 인천 무량사도 지난해와는 달리 이번 여름수련대회를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를통해 가족간의 유대강화는 물론 가정불교를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부산 범어사, 화성 신흥사 등도 7~8월에 열리는 여름수련대회 준비에 한창이다. 조용한 산사에서 좌정하고 앉아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도 한 여름의 무더위를 이기고 알찬 여름휴과를 보내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사찰의 여름수련대회는 외부로만 향했던 자신을 내면에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됨은 물론 지긋지긋한 인욕의 시간들이 지나면 마음의 고향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종근 기자

주요사찰 여름수련대회 일정 (1회 4박5일)

사찰명	기간	대상	연락처	접수마감	횟수
송광사	7/7~8/15	일반·교사·불일회원	(0661)755-0107	6월10일	6회
해인사	6/29~8/14	초등·중고·일반	(0599)33-7960	6월20일	7회
통도사	7/20~8/11	어린이·교사·일반	(0523)82-7182	선착순	5회
범어사	8월초	어린이·중고	(051)508-3127	미정	2회
직지사	8/2~8/5	일반	(0547)436-6606	선착순	1회
대흥사	7/7~8/15	초등·중고·일반	(0634)34-5502	6월24일	7회
신흥사	7/23~7/30	초등·중고	(0339)57-2695	7월20일	2회
무량사	7/25~7/28	초등·중고·일반	(062)575-3882	선착순	1회

인터뷰

송광사 수련국장 대원 스님



"사물 바로보는 공부하는 휴가"

특성살린 프로그램 개발·참가자 관리 선행돼야

"4박5일의 단기출가수련회에 참석하는 불자들은 가장 먼저 모든 근심걱정을 놓아 버리고 산문을 들어서야 합니다. 그리고 금강과 같은 신심으로 용맹정진할 때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볼 수 있고 출가의 진면목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기출가 입방 경쟁률이 가장 세다는 승보종찰 송광사가 오는 7월 7일부터 8월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개최하는 4박5일동안의 여름수련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대원스님(수련국장).

송광사의 이번 여름수련대회는 불일회원, 일반인, 교육의 현장에서 2세교육에 전념하고 있는 교사들까지 광범위하게 수련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참가자들로부터 수련대회 이후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되었고 삶의 활력소가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때가 가장 뿌듯했다고 말하는 대원스님은 "여름휴가를 수많은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는 해수욕장이나 휴양지에서 보내는 것도 좋겠지만 휴가이후의 느낌은 단기수련대회 참가한 사람에 비해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가 있다"며 "4박5일의 짧은 출가생활이지만 모든 사물을 올바로 볼 줄 아는 눈을 뜰 수 있다"고 강조한다.

4박5일동안의 여름단기출가는 요즈음 각 사찰에서 붐이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스님은 "아무계획없이 수련대회 개설만 서두르면 자칫 수련대회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사찰 나름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과 체계적인 참가자들의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스님은 4박5일의 단기출가에 참석하는 불자들은 반드시 4박5일동안 출가한다는 초발심의 굳은 마음으로 여름수련대회에 참가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만화 法句經 법구경

* 여러가지의 장 *
교만과 방종에
빠진 사람에게
번뇌는 점점
늘어만 간다



이 향 원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참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집 제1호를 발간하였습니다.

주옥 같은 법문, 불교의 근본 원리를 속시원히 파헤친 기획물들, 생생한 불교사의 발자취…

이 모든 것들을 손상 없이 잘 간직하고 싶었던 분들, 지금 곧 연락 주십시오.

■ 합본호 1집: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 10. 15) ▶ 제59호(95. 12. 27)
■ 가 격: 50,000 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02)737-8881 팩스: (02)737-0697

척추교정·지압 개인지도 (CHIROPRACTIC)
• 교육내용▶척추및 각 관절 교정법
목·허리디스크, 신경통
관절염·중풍예방시술법
비만 관리 시술법
음양오행 건강 지압법
시술도 병행함
장삼수 건강연구원 압구정역 543-7306

각종 염주 주문생산 전문
(사찰명, 사진 등 삽입 가능)
단주, 합장주, 목걸이, 팔찌, 차걸이, 주불, 열쇠고리 등
한남상사
Tel: 02)795-4083, Fax: 02)792-9659

신비의 신라범종 개발
창업 46년의 역사로 범종주조의 기술혁신을 선도해온 저희 성종사가 수년간 계속된 연구 끝에 드디어 새로운 음향과 아름다운 문양의 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범종 제작 및 불상 조성 TAPE(비디오 테이프)를 원하시는 스님·사부대중께서는 전화 문의시 직원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각본사 범종제작 및 대표작품 실적 다수
국내최대 범종주조회사 聖鍾社 대표 元光植(梵山)합장
☎ (02)733-6141(서울사무소)
☎ (0331)283-2083(공장)

사암매도
대전시내에 위치한 기도도량으로 최적지임. 교통좋고 주위환경도 아주 좋은 사암으로 인연있는 분의 운영을 바랍니다.
■ 주소:대전광역시 동구 낭월동 71-2번지 봉덕사 (대전역에서 금산가는 방향으로 버스로 20분거리)
■ 물건:대지 191평 요사체 25평 법당 23평
■ 가격:약3억6천만원
※ 동사무소, 농협, 파출소, 우체국, 보건소 3분거리
■ 연락처:(042)271-3251

寺刹 및 古殿건축 木材에
■ 木材放火劑(화재예방용)
■ 木材활열방지제(갈라짐 변색)
■ 木材방충·방부제 목재(원목) 수입 판매
■ 木材탈취제(청변균제거)
韓國木材防腐工業株式會社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동 56-11 상원B/D (올지로 2가)
전화:(02)266-2629
팩스:(02)266-2679

봉축 현수막 전문 제작
공장 직영
삼 보 기 업
전화:(02)279-2715
팩스:(02)275-3739

불교사업 동참하실분
■ 불교 교육사업에 뜻이 있는분
■ 불교지도자 양성사업 하실분
■ 불교 단체 운영하실분
※ 교육청 인가
만 대 교 학 대 학 원
등기1969호
한국불교지도자연합회((931-6075~6(代)

보리수
취급 품목: 각종수입향, 염주 / 불교악세사리 / 일체
남대문 자유 수입상가 구84호
전화:778-5345, 팩스:777-1917

포교원 양도
포교원을 운영하다 지방의 사찰불사 중이라 포교원 운영 하실분을 찾습니다.
■ 법당 40평(삼존불,탱화,방사,주방시설 완비)
■ 5년간 운영·신도다수
■ 전세 3천만원
■ 시설비 일체는 1600만원이오나 500만원에 양도함
비구니스님 보살님 연락바랍니다.(0331-41-4315)

토지이용 개발관련 두뇌 제공
본 연구소에서는 불자님들의 토지이용 개발과 관련된 일체의 사업 계획과 구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를 대행 또는 용역, 기타 두뇌를 제공코저 하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업무내용
■ 지주 공동 개발 사업
부동산 매매 및 건축자문
■ 도시계획 관련 문제 상담
■ 각종 법정부담금 및 토지이용관련 세금상담
※ 기타 부동산 실명제 등 무료상담해 드립니다.
부산시 금정구 남산동
韓中土地利用開發研究所
전화 : 051-582-6550~1 팩스 : 051-582-6551

불교인들의 만남,불법 속의 생활 그리고 사랑을 추구하는 결혼 연구원
안녕하세요
그동안 불자님들의 사랑으로 이자임 결혼연구원이 크게 성장하면서 여러분의 성원에 다소라도 도움을 드리고 싶어 전화비 명목의 적은 비용으로 96년 4월부터 행사기간을 정하였던바 6월 30일까지 행사기간을 단축하고자 합니다. 이점 양지하시기를 바랍니다.
6월의 초여름 사이로 시원한 바람이 가슴으로 스미는 계절입니다. 지성을 겸비한 청춘 남녀의 근사하고 멋스러운 분들이 기다립니다.
■ 구비서류
· 초혼남녀:주민등록 등본,졸업증명서, 사진(각1통)
· 재혼남녀: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졸업증명서,사진(각1통)
♥학력:(남) - 전문대졸 · 대졸이상 (고졸은 특별상담)
(여) - 고졸 · 대졸이상
♥연령:남녀(23세~70세 까지)
■ 초재혼:여(국졸,중졸 한-35세 까지 특별 무료 상담 환영)
■ 특수한분:정신장애,육신장애를 갖고 어렵게 살을 살아가시는 분들께 행복한 결혼의 도움이 되고자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 남:전문대졸 · 대졸이상(고졸특별 상담)
· 여:학력제한없음(특별 무료 상담 환영)
♣ 부모님 상담 환영
날마다 좋은 날이 되소서

大卒,초,재혼,신원 확실하고 직업 확실한 미혼남녀 환영. 지방에 계신 불자님은 서신과 전화로 연락바랍니다.
이자임 결혼연구원
원장 이자임 합장 (법명:無等心)
농협온라인구좌:112-01-021221 예금주 이 영 숙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5가 18번지 영신상가3층 317호 /대표전화: (02)634-4910~2

월간 '동쪽나라' 5월호로 휴간

새싹 포교 '구멍'…"인수자 찾습니다"

"〈동쪽나라〉를 살려주세요. 매달 초에 잡지를 눈빠지게 기다리는 초등학교 3·4학년인 아이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 지 모르겠어요. 스님과 신도들이 〈동쪽나라〉를 살리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불교계의 유일한 어린이 전문잡지인 월간 〈동쪽나라〉(발행인 김형균)의 잠정 휴간 소식을 접한 동쪽나라어머니회 회장 지삼상보살의 눈물겨운 호소다.

출판사업 불황으로 '불지사 운영' 한계

어린이 불교문화와 포교를 이끌어 온 〈동쪽나라〉가 발행 7년만에 잠정 휴간을 결정,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은 어린이 포교에 비상이 걸렸다. 〈동쪽나라〉는 지난 4일 몇 년에 걸쳐 누적된 적자폭이 3억원 이상을 상회하는등 경영난으로 6월부터 잠정 휴간에 들어가기로 결정하고 새로운 인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균 발행인은 "나름대로 어린이 불교문화사업의 중요성과 사명감으로 애를 썼지만 최근 2년여에 걸친 어린이 독자 감소로 인한 수입 격감과 그동안 재정적 뒷받침을 해 주었던 출판사업의 전례없는 불황으로 극심한 경영난에 처해 부득이 정간에 이르게 됐다"며 "어린이 독자와 후원자들에게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쪽나라를 잘 아는 관계자들은 동쪽나라의 정간이 종단과 불교계 어른들의 무관심으로 빚어졌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마디로 어린이 포교가 교계 전체의 중요문제라는 공동인식의 부재가 근본원인이라는 것.

〈동쪽나라〉는 90년 1월 재단법인 대원정사에서 〈굴렁쇠어린이〉(발행인 장상문)로 창간된 이래 발행 2년만에 재정적인 이유로 폐간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을 지금의 발행처인 (주)불지사가 인수, 지난 4년간 적자를 감수하며 불심하나로 발행해 왔다. 인수당시 대원정사와 불교진흥원으로부터 매달 4백만원의 지원약속을 받았으나 장상문거사의 타계로 흐지부지 되고 만 것도 재정난의 한 요인이 됐다.

지난 2년간에는 월 1천만원, 연간 1억원 이상의 적자가 계속돼 더 이상은 불지사 혼자만의 힘으로 발행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유수의 불교기관이나 단체에 간접적인 구독지원과 발행처 이전등을 타진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포교는 각종 불사의 우선순위에서 항상 밀려나 있기 때문이다.

적자누적등 경영난 교계 무관심 안타까워

하지만 이와 대조적으로 타종교 어린이잡지는 '잠재적인 신도확보'라는 포교전략 아래 교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 동쪽나라보다 30여년이나 앞서 발행된 기독교의 〈새벗〉이나 가톨릭의 〈소년〉은 교단차원의 지원과 학부모들의, 신심에 힘입어 현재 월 6만부의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으나 〈동쪽나라〉는 5천부(유료독자 2천명) 발행에 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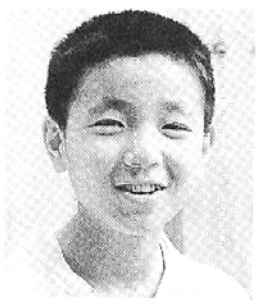
이와관련 어린이포교 전문가들은 "〈동쪽나라〉가 폐간된다면 이는 불교계가 어린이 포교를 포기한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조계종이나 불교진흥원 등 교단차원의 관심과 지원으로 반드시 계속 발행돼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재경 기자



◇ 불교계 유일의 어린이잡지 〈동쪽나라〉가 재정난과 교계의 무관심으로 5월호를 끝으로 휴간에 들어가 교단차원의 지원이 절실해지고 있다.

'아빠, 난 아빠같은…' 펴낸 중학생 작가 박상욱 군



"어둠 속에서 나를 찾는 일이란 쉽지 않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자신을 찾으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현대판 선재동자인 박상욱군(서울 삼선중 1년·14)의 에세이집 〈아빠, 난 아빠같은 아빠가 될래요〉(가리온 간)에 나오는 자신과의 대화 내용이다.

지난해 이미 〈키는 1미터 마음은 2미터〉라는 책으로 또래 아이들 같지 않은 성숙함을 보여줬던 상욱이가 이번에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쓴 일기를 책으로 펴내 화제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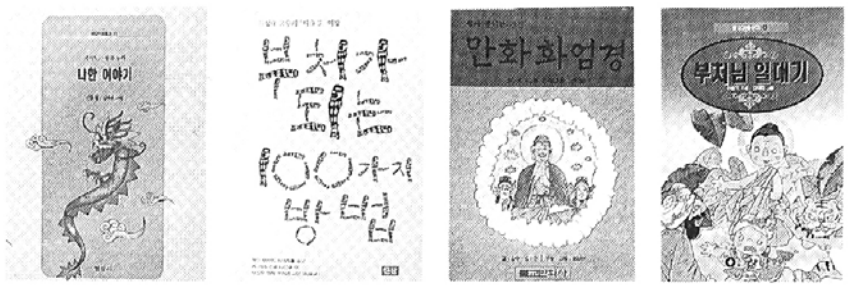
현대판 선재동자 일기 '책으로'

마음·죽음등 담아…경전번역 '꿈' 한문공부

상욱이는 이 책에서 존경심이나 참을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기도 하고,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무엇인지, 눈으로 볼 수 없는 내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죽으면 마음은 어디로 가는지 어른들도 풀기 어려운 문제를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다. 그야말로 선재동자가 걸었던 구도의 길을 다시 보여주는 듯 하다.

아버지 박중식 시인(44)의 말처럼 '전생에 스님이었을지도 모를' 상욱이는 이런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점점 부처님을 닮아가고 있다. 상욱이는 부처님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때 부터 참선을 시작했고, 경전을 번역하기 위해 인사동 연천서실에 다니며 한문과 서예, 동양화를 배우고 있다.

"글과 그림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게 상욱이의 꿈이다. 〈재〉



나한이야기
부처가 되는…
만화 화엄경
부처님 일대기

청소년 불서 4권 '눈길'

재미있고도 내용이 알찬 청소년용 불서가 4권이 새로 나왔다.

아동문학가 선용씨의 〈나한이야기〉(현암사)와 영남대 김성규교수의 〈부처가 되는 100가지 방법〉(큰산), 임기준 글·조성연 그림의 단행본 〈만화 화엄경〉(불교만화사), 동화작가 이슬기씨의 〈부처님일대기〉(하나원) 등이 그것이다.

〈나한이야기〉는 16나한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다룬 불교동화책이다. 전생에 박쥐였던 인계타, 힘이 천하장사인 벌사라불다라, 어머니 뱃속에서 여섯해나 있다 태어난 나호라 등 생김새와 성격이 서로 달랐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훌륭한 아라한이 되어 따뜻하고 바른 세상이 되도록 힘쓴 나한들의 이야기를 친근하고 재미있게 소개하고 있다.

〈부처가 되는…〉은 의과대교수인 저자가 〈백유경〉에 나오는 불교우화를 통해 청소년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읽으면서 배꼽을 잡고 웃는 사이에 웃음 뒤에 숨겨진 진주와도 같은 지혜를 발견하게 하는 우화집이다.

선재동자의 구도기인 〈만화 화엄경〉 시리즈 7, 8, 9권 완간과 동시에 나온 단행본 〈만화 화엄경〉은 80권 40품으로 구성된 방대한 〈대방광불화엄경〉의 전체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한 후 만화로 쉽게 풀이하고 있다.

또 〈부처님일대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전신인 연등불 이야기에서부터, 탄생, 왕자의 생활, 야수다라와의 결혼, 성문 밖에서 만난 사람들, 고행, 깨달음, 그리고 부처님이 되어서 들려 주신 법문,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일대기를 그림을 곁들이면서 흥미있게 엮었다.

조계종 청소년 법요집 발간

사찰예법 불교학생회 의식 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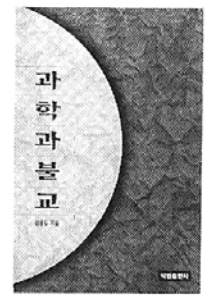
불교청소년의 해를 맞아 〈청소년 법요집〉이 새롭게 출간됐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성타)은 지난해 7월부터 청소년 전문가들로 구성된 편찬위원회를 구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포교를 목적으로 신세대의 성향에 맞는 청소년 법요집을 준비해왔다. 〈청소년 법요집〉은 총 8장으로 사찰예법, 법회, 수계 포살법회, 찬불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그동안 각 사찰에서 치뤄지는 청소년 법회에서 마땅한 교재가 없어 자체적으로 법회자료집을 준비하거나 제대로 법회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발간돼 주목된다. 포교원은 종립학교와 청소년 불자연합 파라미타를 통해 전국적으로 배포할 예정 이다. (02)720-7060



과학과 불교 김용정 지음

연기·공사상에 접근하는 과학분석

화제의 책



지난 2월 정년퇴임을 기념으로 〈과학과 불교〉를 상재한 동국대 김용정 교수는 "붓다의 우주관과 인생관이 세계의 어느 종교나 철학사상보다 우주와 인생의 진실을 잘 해명하고 있는가는 현대과학이 논증해 주고 있다"고 말한다.

현대과학은 나와 세계, 물질과 정신, 주관과 객관, 유와 무, 유기체와 무기체, 의식과 무의식의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그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 동일한 실체가 양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간주, 자연과 물질을 해명하고 있다. 김교수는 "이러한 현대과학이 불교의 색심불이(色心不二)와 연기 및 공사상에 접근해 오고 있다"며 "과학과 불교는 결코 대립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잘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한다. 〈석림 1만3천원〉

새로나온 책…

▲부처님의 유언(공파스님 역해)=부처님이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간곡하게 당부한 유언을 담은 〈불유교경(佛遺敎經)〉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드러내고 있다. 20여년간 이 경을 독송하고 해득해 온 공파스님이 원문을 번역 해설했다. 〈태일 7천원〉

▲무문관으로 배우는 선어록 읽는 방법(혜원스님 역)=당·송시대 언어에 대한 저자(秋月龍珉·秋月眞人 공저)의 십수년에 걸친 어학적 문법적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선어록 해석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방법을 제시한다. 역자는 동국대 선학과 교수인 혜원스님.

〈운주사 1만2천원〉

▲키작은 인간의 마을에서(한승원 저)=금강석 같은 지혜가 담긴 불교설화와 민간설화, 그리고 평범한 우리 이웃들의 진솔한 삶속에서 길어 올린 샘물 같은 글편들을 담고 있다. 또한 일상에서 만나는 사랑과 감동의 편린들, 욕심을 여의고 넉넉함을 얻은 작가의 지혜를 곳곳에 새겨놓고 있다. 소설가 한승원씨의 에세이집. 〈고려원 7천원〉

▲심경 및 십현담(해안 강설)=〈반야심경〉과 〈십현담(十玄談)〉은 짧은 글에 불교 진리의 골수를 담고 있어 그 깊은 뜻을 알기가 쉽지 않다. 해안스님이 서래선림(西來禪林)의 수좌들을 위해 〈심경〉과 〈십현담〉을 설한 법문을 엮었다. 〈불교전등회 5천원〉

▲무문관(문재현 역)='無'자 화두로 정진한 지 6년만에 점심시간을 알리는 북소리에 확철대오한 무문선사의 면모가 숨김없이 드러나 있고 그 때달음의 경지가 유감없이 발휘되어 있는 공안집이 〈무문관〉이다. 공안 각 칙마다 도움말과 시송을 달면서 역해했다. 〈바로보인 1만2천원〉

▲화랑문화의 신연구(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 엮음)=화랑도는 불교 유교 도교 등의 근본이념까지 포함하는 신라인의 이상적 이념체계이자 행위체계다. 향토사연구전국협의회(회장 김택규)가 종교 철학 역사 문화 군사 등 관련 연구성과를 집약했다. 〈문덕사 2만5천원〉

◇기사넘쳐 '불서백선' 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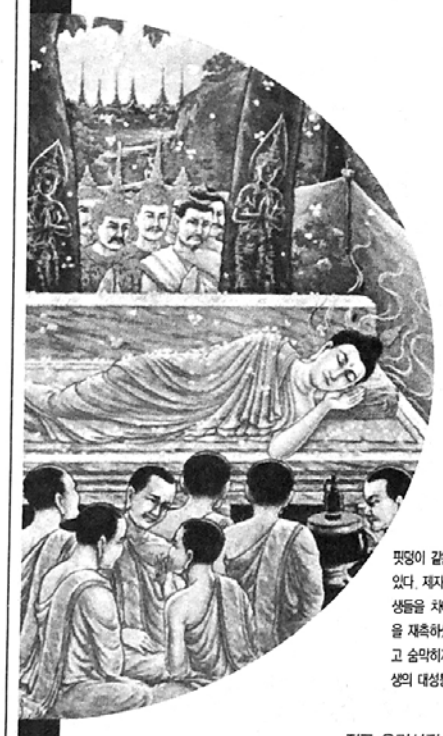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여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법 정	샘 터
2	달을 듣는 강물	김진태	해 냄
3	능엄경 주해	운 허	동국역경원
4	전생여행	김영우	정신세계사
5	훨훨 털고 같이 가세	서 암	정 토
6	그냥 살래 바꾸고 살래	법 륜	모 색
7	금강경 강의	무 비	불 광
8	무비스님과 함께하는 불교공부	무 비	민 족 사
9	저마다 깨친 인연이 있었네	김원한	우 리
10	기도	일 타	효 림

구입문의:(02)737-0695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파 스님 역해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발로 땅을 딛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판/400면/값 7,000원

핏덩이 같은 중생들을 두고 떠나셔야 하는 열반의 시간이 점점 다기오고 있다. 제자는 걱정 마시라고 오히려 대스승을 위로하고 있지만 가엾은 중생들을 차마 두고 떠나시기가 안쓰러워 의심이 있느냐고 거듭거듭 질문을 재촉하셨다. 숨을 죽여가며 열반을 지켜보는 모든 제자들에게 다급하고 숨막히게 이어지는 그분의 마지막 유시가 곧나자 산천초목과 억조창생의 대성통곡이 전 허공계를 울리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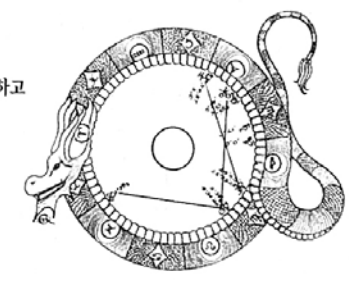
◇ 계율에 대하여 ◇ 욕심에 대하여 ◇ 회론에 대하여
◇ 마음에 대하여 ◇ 만족에 대하여 ◇ 수행에 대하여
◇ 음식에 대하여 ◇ 떠남에 대하여 ◇ 의문에 대하여
◇ 수면에 대하여 ◇ 정진에 대하여 ◇ 진리에 대하여
◇ 인욕에 대하여 ◇ 정념에 대하여 ◇ 부촉에 대하여
◇ 교만에 대하여 ◇ 선정에 대하여 ◇ 무상에 대하여
◇ 아첨에 대하여 ◇ 지혜에 대하여

전국 유명서점 절찬 판매중! 태일출판사 단체 주문 받습니다 927-2834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다.
그리고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환생의 체험 사례
나는 아흔여덟 번 환생했다
조 파셔 지음 /손민규 옮김

한때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받아들이기 힘든 때가 있었다.
그래도 지구는 돌고 있었다.
환생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지금에도
환생은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느낌이 더 많은 체험을 갈망하게 하고
이 갈망은 우리의 잠재력이 완전히 실현될 때까지
우리를 계속 지상에 돌아오게 만든다.



"어쨌든 그대는 다시 태어날 것이다.
환생의 법칙은 우리에게 〈영원〉을 선물한다."

환생설은 티벳 불교인들의 생활양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선한 자와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
또한 환생설은 연기설(緣起說)과 인과(因果)의 법칙과도 관련되어 있다.
지혜와 자비의 계발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이 이룬 더없는 깨달음의 경지를
지향하는 바, 따라서 이런 계발 과정이 있기 위해서는 환생이 필수요인이다.
- 달라이 라마 -

신국판/280면/값 6,000원
태일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79개 범종소리 'CD로 재생'

故조규동교수 작업…범허스님 복원
"장중한 울림 중생번뇌 절로 녹는다"

장중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지녀 속진과 번뇌를 씻어주는 청량수와도 같은 맑은 범종소리. 우리나라 범종은 학명으로까지 '한국종'이라고 불릴만큼 그 소리에 있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아하고 안정된 외형, 빼어난 비천상조각 등 공예미술에 있어서도 독창적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다. 그 범종소리가 '한국의 범종'이란 제목으로 두장의 CD음반과 카세트 테이프로 새롭게 출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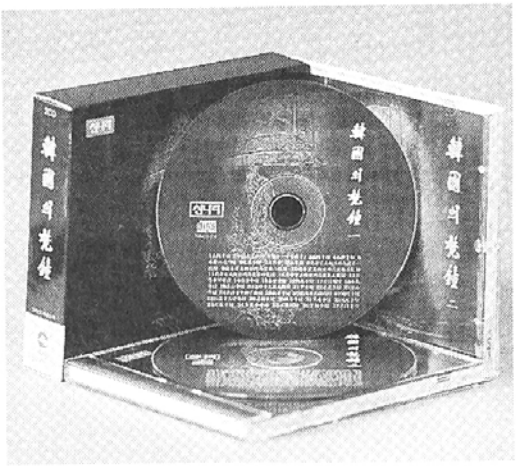
신라 고려 조선시대 제작돼 지금까지 남아있는 사찰 범종은 많지 않다. 일본등 외국으로 유출되거나 태평양전쟁때 강제공출돼 없어진 것이 많고 6·25전쟁때 소실되는등 많은 수난을 당해 남아있는 것이 별로 없을 뿐더러 현재 남아있는 종들도 관리상의 이유로 타종이 불허되고 있어 소중한 문화유산 범종소리의 체록 보존은 뜻깊은 불사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일을 한 선각자는 숙명여대 교수였던 고 조규동선생. 아무도 관심을 기울이지않던 시절 조교수는 우리 범종소리가 사라져감을 안타깝게 여겨 지난 62년부터 3년간에 걸쳐 전국사찰을 돌며 범종소리를 녹음했다. 66년 오아시스 레코드에서 EP음반(LP판보다 작은 사이즈로 SP와 LP의 중간단계 음반) 1천장 한정판으로 발매돼 주로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국빈에게 선물용으로 쓰여졌다. 그러나 한정판으로 나온 이음반은 세인의 무관심속에 잊혀져갔고 30년이 지난 올해 범허스님에 의해 다시 CD로 재출간됐다(신나라레코드 기획, 킹레코드 제작).


◇범허스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상원사종(국보 제36호)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신종(국보 제29호) 용주사종(국보 제120호)등 전국 유명사찰의 범종음반을 듣고 이 훌륭한 범음을 널리 펴도록 하자는 원력으로 CD복원작업에 나섰다는 범허스님은 "잊혀져가는 범종소리를 널리 펴 삼독에 빠져있는 중생들이 종소리를 통해 번뇌에서 벗어나고 부처님을 한층 가깝게 느끼길 바란다"고 음반복원 취지를 설명한다.

스님은 이작업을 위해 문화재관리국, 동국대, 경주박물관 등 전국 각지를 누비며 관계자들을 만났다. 천신만고끝에 '한국의 범종' EP원판을 소유한 옥치엽씨를 만나 복원작업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잡음을 제거하는 크리닉작업을 했기 때문에 음질이 양호해 선조들이 크나큰 불심으로 조성한 에밀레종 등 사찰 범종들의 소리를 실제 듣는 것처럼 들을 수 있을 것"이라며 흐뭇해 한다. 범허스님은 춤꾼 이애주교수와 더불어 범종소리와 춤을 함께 엮는 CD롬작업도 구상하고 있다고 밝힌다.

이경숙 기자


◇CD로 재생된 '한국의 범종' 소리. 77개 사찰범종과 편종등 79개 범종소리가 들어있다.

***

"사찰 각양각색 꽃살문 한눈에"

관조스님 문살장엄 사진집 '꽃門' 펴내
범어사등 25개 사찰 1백여점 수록




◇관조스님

문은 한세계에서 다른 세계로 인도해주는 통로역할을 한다. 또한 집에서도 얼굴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문이다.

역사가 깊고 큰 사찰일수록 문이 많다. 몇겹의 문을 지나 큰법당에 올라보면 건물벽면 전체가 문으로 장식되어 있고 갖가지 화사한 꽃 식물 동물들의 문양이 정교하게 조각 장엄되어 있다.

관조스님(범어사)이 이러한 사찰의 문살장엄을 렌즈에 담아 화사하면서도 한폭의 예술작품으로 승화시킨 사진집 〈꽃門〉을 펴냈다. 도서출판 미술문화(대표 지미정)의 우리문화보기시리즈 2편으로 나온 이 사진집에는 범어사팔상전 통도사 적멸보궁 신흥사극락보전 동화사대웅전 정수사대웅전 등 25개 사찰의 꽃살문 1백여작품을 담았다.

우리 선조들의 빼어난 미의식을 보여주는 꽃살문은 매화 연꽃 모란 국화 무궁화 등의 꽃을 새겨 회려하게 채색하거나 금강저 만(卍)자 또는 6모난 거북등 무늬를 응용해 연속무늬를 짜 중생들에게 법당으로 드는 길을 즐겁게 안내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전국사찰을 다니며 사진작업을 해오고 있으며 이미 '수미단' '대웅전' 등 7권의 사진집을 낸 바 있는 관조스님은 해탈의 문에 들기를 기원하는 수행자 특유의 선안(禪眼)으로 자칫 지나치기 쉬운 문살의 아름다움을 포착해냈다. 또한 강순형씨(궁중유물전시관)의 '절 꽃문 살피기' 해설문이 들어있어 문(門)에 대한 이해를 한층 도와주며 영문으로도 실렸다. 관조스님은 도서출판 미술문화와 더불어 부도 탑, 불화, 일주문 등 주제별 우리문화보기 사진작품집 발간작업을 계속 해나갈 예정이다. 〈숙〉

***


◇현대적인 이미지로 제작된 성철스님 사리탑 부도 모형도.

성철스님 사리탑 설계 확정

최재은씨 올곧은 수행 상징 제작
10월기공 98년 10월 완공 예정

지난 93년 열반한 성철스님의 사리 100여과를 봉안할 사리탑설계안이 확정됐다. 성철스님문도회는 최근 재일(在日)설치미술가 최재은씨가 제작한 성철스님사리탑 이미지 설계안을 공개하고 스님열반 3주기인 오는 10월 기공에 들어가 98년 10월 완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인사 일주문 오른쪽 100m 지점에 건립될 성철스님 사리탑의 외부물레는 가야산세와의 조화를 고려 상단과 하단으로 분리해 설계됐고 핵심부분인 부도는 두개의 반구위에 하나의 구(球)를 얹어놓은 모습으로 정적이며 시간성을 느낄 수 있게 했다.

작가 최재은씨는 "이 원들은 성철스님의 생애를 요약한 상징으로 서로 의식하며 이동 공존하는 과정과도 같은 것으로 영원한 시간을 상징한다"며 "전통적인 부도의 형태를 응용하되 거대한 상징성보다는 올곧은 수행과 청정한 삶으로 일관한 큰스님의 정신세계를 보다 가깝게 느껴지도록 표현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재은씨

불심시심 〈53〉

비속의 외로운 성

斷雁斜陽外 (단안사양외) 기러기 노을 끝에 아물아물
孤城暮雨中 (고성모우중) 저녁비 속 외로운 성
故臺秋葉落 (고대추엽락) 옛 누대 가을 잎 지고
喬木亂西風 (교목난서풍) 울창한 나무 서풍에 흩날려

지난번에 보았던 월저(月渚)대사의 시이다. 평양에서 옛 일을 회고하며 지은 것이다. 평양은 스님의 고향이기에 남다른 감회가 있었을 것이다. 조선시대의 평양은 옛 왕조의 도읍 터이다.

옛날 화려했던 그 도읍 터. 이제는 변함없는 가을풍경뿐이다. 그러니 호화롭다 쓸쓸하다 함은 대상에 대한 인위적 감정의 꾸밈이지 풍경 그 자체에는 그러한 감정이 있을 리 없다. 이 시에 등장된 소재 기러기, 저녁노을, 비, 가을 잎, 울창한 숲, 서풍 등은 언제나 있는 것으로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호화로웠던 그 당시에도 있었던 것이요, 쓸쓸하다는 오늘에도 변함없이 있을 뿐이다. 다만 시간과 처지의 변역에 의하여 쓸쓸하게 느끼는 것 뿐이다. 이는 실상의 법리에는 다를 것이 없으니, 그 자체가 바로 법체의 실상이다. 따라서 이 시의 구성은 그 있음의 실상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에서 옛날의 감회를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때문인가. 여기서 斜陽이니, 暮雨니, 秋葉이니 하는 언어의 상징의미가 유한한 시간속에서 어딘가 모르게 종말적 시간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요, 孤城이니, 故臺니 하는 공간상황도 호화로웠던 지난 시간의 공간이 전제된 오늘의 모습을 보인 것이기에 쓸쓸하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이다.

영겁의 시간도 찰나의 순간으로 치부하는 스님의 처지에서야 이러한 시간적 변화가 인간적 애환으로 비쳐질 리가 없고, 그저 있는 실상의 여여함을 보였다 할 것이다. 이렇듯 있는 실상을 여여하게 보였지만 세속의 독자에게는 회고적 감회가 두드러지게 느껴진다. 우리는 선시의 묘미를 이런데서 느끼는 것이다.

이종찬 〈동국대 교수〉

문화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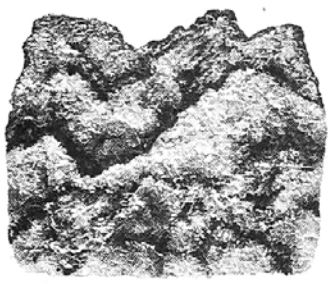
장흥 광명보육원내 무하문화사랑방 개원

석불연구회를 이끌며 우리문화사랑운동을 펼치고 있는 이근후박사(이화여대 신경정신과 교수)가 경기도 양주군 장흥면소재 광명보육원내에 아담한 문화사랑방을 개원했다. 지난 1일 개관한 '무하문화사랑방'은 28평 크기로 전시 이벤트 강연 소모임 등 열린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금강불교합창단 10년 14일 국립극장서 음악제

천태종 직할 금강불교합창단(단장 정순자) 창단 10주년기념 음악제가 오는 14일 저녁 7시30분 국립극장 대극장에서 열린다. 1부와 2부로 나뉘어 개최될 이번 음악회는 찬불가, 무용, 대서사곡, 작법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화제의 전시회


◇임효作 '無爲自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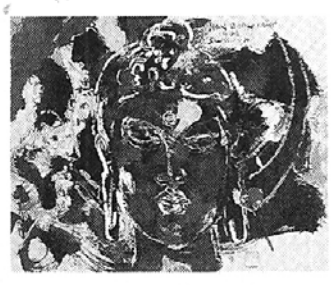
'무위자연' 연작 산수화 30여점
임효작품전

도부조 판화로 유명한 한국화가 임효씨가 현대적인 조형개념의 신 산수화전을 선보인다. 오는 18일까지 강남 청작화랑(549-3112)에서 열리고 있는 전시회에는 눈덮인 겨울산을 주제로 한 '무위자연' 연작시리즈 30여 점이 전시되고 있다. 두터운 종이판의 가장자리를 뜯어내 산봉우리 형태를 만들고 천연물감을 찍어바른뒤 그 위에 한지를 덮고 다시 물감으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얹는 작업으로써 거칠고 투박한 표면질감을 살리고 겨울산의 굵고 강한 선을 검정색 석채와 수정분말의 반짝이는 화면으로 담아 힘찬 산의 형상을 그려냈다.

"자연사랑·불교정신 화폭 가득"
한봉덕초대전

불교사상을 밑받침한 동양정신을 서양화기법으로 형상화해온 원로화가 한봉덕 초대전이 오는 18일까지 조선일보미술관(724-6323)에서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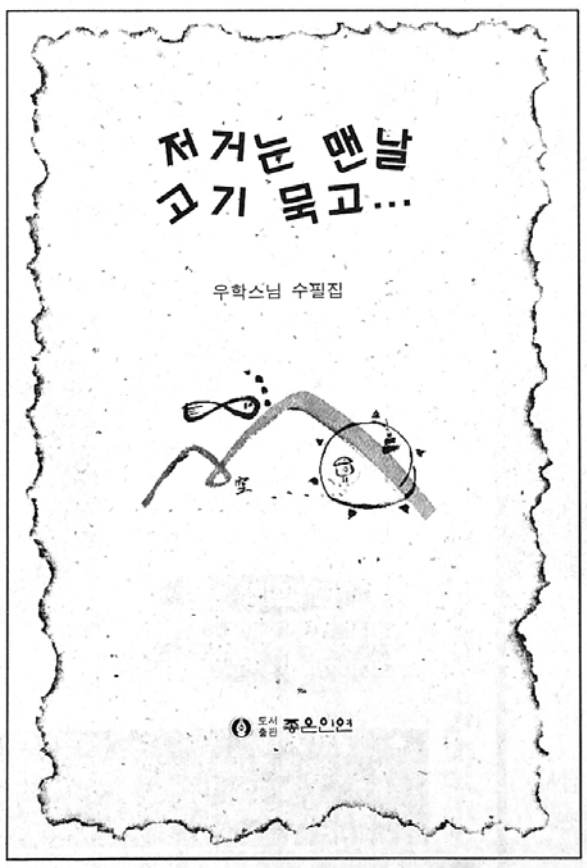
한씨의 50년 창작생활을 조감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無心' '佛經禪' '佛心' 등 불교를 소재로 한 작품등 추상 구상 그리고 추상과 구상을 접목한 1백여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지난 68~71년 서울 보문사 석굴암을 조성한 바 있으며 틈만 나면 전국고찰을 돌며 스케치를 할 정도로 불심이 깊은 그의 작품에서는 자연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불교정신을 만날수 있다.


◇한봉덕作 '佛心(Ⅱ)'.

행운을 드리는 108 이야기 좋은 인연이 권하는 책

홀로 태어나 살다가 그렇게 죽어가는 …
그 가운데 가슴을 적시는 짧고 아름다운 이야기들!!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보여주는
우학 스님의 세상 이야기 …
웃고, 울고, 찌푸리는…
마침내 우리는 부처님 세상을 들여다 본다.

(우학스님 저/정가 5,500원)



좋은 인연의 책은 불자님들에게 부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좋은 인연을 만들어 드립니다.

1 지상불교대학
불교기본교리의 알파와 오메가 〈우학스님 저/정가6,500원〉

2 불자수행지침서
불자의식집의 혁신 〈우학스님 편저/정가8,000원〉

3 반야심경공부 및 사경
쉽게 쓰고 배울 수 있는 책 〈우학스님 저/1,200원〉

4 부처님은 왜 신을 가르쳤나요?
쉬운 문답식 교리 책 〈우학스님 저/4,500원〉

5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上)
재미있고 알기쉽게 씌여진 금강경 해설서 (上) 〈우학스님 저 정가/5,800원〉

6 새세대법요집
교리와 의식이 묶여진 편리한 법요집 〈우학스님 편저/정가 7,000원〉

7 더욱 재미있는 금강경 산책
불교의 정수를 편안하게 만날 수 있는 금강경 해설서 (下) 〈우학스님 저/정가5,600원〉

8 천수경 한자 공부
천수경을 쉽게 배우고 쓸 수 있는 책 〈우학스님 저 / 정가 1,500원〉

안동 천등산 토굴수행 4년 돈수스님을 찾아서

"무문관은 없어…처처가 도량"

틈틈히 산 개간…서화에 능통 '절구통 수좌'



◇돈수스님이 토굴 위 산간을 개간하여 농작물을 가꾸고 있다.

안동 천등산 지조암옆 토굴에서 생활하는 돈수스님은 1968년 15세에 해인사로 출가하여 서예 그림 가야금 법금에 능통하며 절구통수좌로 정평나 있는 스님이다.

지난 91년 봄부터 4년간 출입문 없이 음식넣을 공간만 남겨둔 토굴을 지어' 무문관생활을 했다.

일주일에 한번씩 된장과 생쌀 한 종지로 생활했다. '쌀이 없어지면 살아있는 것으로 알자'고 사형 도융스님과 약조한 후 고행을 감수하며 치열한 수행하게 했다. 그러던 스님은 지난해 봄장마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날 토굴이 무너지면서 무문관에서 나왔다. 대신 그 자리에 4평남짓한 토굴을 지어 생활하고 있다. 토굴에 가까이 가 넘겨보니 잡념을 자르듯 돈수스님이 커다란 칼로 당근을 힘차게 썰고 있다. "돈수스님이세요" 스님은 말이 없다.

잠시뒤 스님은 "공양 전이면 들어오지요"라고 말한다. 스님의 저녁공양상에는 수재비와 생당근 한 그릇이 놓여 있다.

저녁공양을 마치고 스님과 말씀을 나눠보고 싶다는 청에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이란 자기자신에게 하는 것"이라 말하고 토굴 밖만 쳐다보고 있다. 적막을 깨고 토굴 벽에 걸려있는 명선(茗禪)에 대해 물었다. "차를 마시며 참선에 든다"는 뜻이란다. "차를 마시고 싶다"고 말했다. 스님은 별 수 없다는 듯 "차나 한잔 들자"고 했다.

4년간의 혹독했을 법한 무문관 수행에 대해 묻자 스님은 우리 마음이 자유자재로, 생각할 수 있고, 손이 허공에서 움직이고 우리 몸의 세포도 자유로이 상멸하므로 무문관은 원래없단다. "내가 죽음을 죽이지 못하면 죽음이 나를 죽이게 됩니다. 이런 화두로 4년간 무문관 생활을 했지만 참선을 하려고 흉내냈을 뿐"이라는 스님은 "선은 응공로와 같아서 번뇌의 잡철을 뽑아내는 작업이었던 무문관생활이나 지금 생활은 별다르지 않다며 색다른 의미부여는 안된다"고 말한다.

"단지 무문관 생활하며 햇빛을 못 받은 것이 가장 큰 어려움 이었다"는 스님은 이 세상이 하도 편리해서 불편하게 살아보니 재미있었다며 특유의 웃음을 지은다.

다음날 새벽, 스님과 공양을 함께 했다. 끓인 밥과 식초에 절인 생강반찬이다.

잠시 후 산으로 가는 스님의 모습이 보였다. 스님은 틈틈히 산을 개간하고 있었다. 지난해 개간했다는 1백 50여평 남짓의 땅에서 호박 배추 상추등이 자라고 있었다.

스님과 산책을 하며 토굴을 내렸왔다. 스님은 "불교인들은 가장 진보된 교리 속에서 가장 아둔하게 살고 있다"며 "이 시대 가장 선진적인 인간윤리를 신봉하는 사람들인 불자들부터 책임윤리를 가져야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한다.

'황금 알이 끝없이 쏟아져도 만족 못하는 것이 중생'이라는 법구경 경구를 인용하며 "불교도 문화시대에 걸맞게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종교로 변화하여 중생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일침했다.

"20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은 지구를 스쳐가는 바람일 뿐인데 그것을 모르고 있다"며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선수행하라"며 '이 원대한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화두를 준다.

안동=김원우 기자



◇강원도 영월 산간오지마을의 어린이 25명이 63빌딩을 견학했다.

혜운사, 강원도 산간어린이·학부모 초청

"세상 견문 넓힌 서울나들이"

강원도 영월 산간오지의 순박한 어린이 25명이 첫 서울나들이에 나섰다. 태고종 서울 봉천동 혜운사(주지 정담)가 지난 4일 강원도 영월군 두산리분교와 운학리분교 학부모 10여명과 25명의 초등학생을 초청하여 63빌딩 견학행사를 마련한 것.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도착한 어린이들은 서울에 처음와 본다는 어린이가 대부분이어서 도회지 견학열기를 한층 더했다.

혜운사와 신도회가 마련해준 환영법회에서 정담스님이 '아버지와 아들에 얽힌 법공양이야기'를 재미있게 법문으로 들려주자 효와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겠다는 듯 자세히 골몰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점심공양 이후 어린이들의 63빌딩행. 여의도를 지나 63빌딩에 도착하자 '와'하는 탄성과 함께 휘둥그레진 눈들은 토끼들처럼 귀여웠다. 어린이들은 63빌딩 전망대와 수족관을 구경하고 아이맥스영화관에 들러 입체영화를 보며 즐거워 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보고 들은 것을 꼼꼼히 적기도.

오후 햇살이 수그러들고 떠날 시간이 다가오자 아이들의 얼굴에는 아쉬움이 가득했다. 그러나 혜운사 신도회(회장 최순염)에서 학생들에게 학용품과자 법요집 초심자귀의법 오계수행법등을 선물하자 금새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두손 모아 합장을 했다. 학생대표인 김진형(두산리분교 6년)어린이는 "말로만 듣던 63빌딩을 견학하니 기분이 좋다"며 "우리들을 초청해 준 스님과 신도회분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김원우 기자

불교의 대중화를 얘기할 때 빼놓지 않고 거론되는 것이 불교의식의 한글화이다. 이미 용성스님의 한글불경 편찬에 이어 운허스님이 초대 동국역경원장을 역임하며 한글대장경을 발간,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했다. 앞선 스님들의 혜안과 노고에 절로 머리가 숙여진다.

그러나 아직도 법회현장에서의 불교의식의 한글화는 요원하다. 지난 4일 경기도의 한 사암연합회가 주최한 호국영령을 위한 기원대법회. 식순에 따라 법성게를 봉독하는 순서가 있었다. 주최측은 친절하게 팜플렛에 삼귀의와 반야심경 찬불가 사홍서원 그리고 법성게를 우리글로 옮겨놓았으나 한자의 토(吐)만 달아놓아 엄밀한 의미에서 한글옮김이라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다.

목탁소리

불교의식 한글화

정성운 〈취재1부 기자〉

이날 법회에는 관내 사암의 신도들은 물론 시청 임직원과 관내기관장 등 5백여명이 참석했다. 불자들은 불교의식에 익숙하고 사찰에서의 교육을 통해 각각의 의식에 담긴 뜻을 알고 있겠지만 그외 사람들은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 불교사상의 핵심이 담긴 반야심경과 법성게에 담긴 뜻도 함께 전달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었다.

이날 법회에 참석한 시청의 한 직원은 "매년 큰 불교행사에 참석하지만 의식은 물론 의식문이 낯설어 불교는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불교의 대중화가 시급한 우리 시대의 과제라면 불교의식의 한글화와 함께 그 뜻을 제대로 알고 같이 봉독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사찰을 벗어난 곳에서 봉행되는 모든 불교 행사는 포교의 장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자.

종단소식

태고종 종무행정 전산화

태고종 총무원(총무원장 혜초)은 최근 사회부 산하에 전산팀 '이맛꼬'를 신설하고 종단에 맞는 사찰관리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하는 등 종무행정의 전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차로 총무원청사의 전산화를 추진중인 태고종은 지난 4일 컴퓨터 12대를 설치하고 6월까지 랜설치 등 종무행정을 위한 전산화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으며, 이어 9월까지 지방종무원에 컴퓨터설치를 완료하고 서울과 직통으로 랜을 설치키로 했다.

상월조사 열반 22주 추모재

천태종(총무원장 윤덕)은 12일 오전11시 총본산 구인사 설법보전 대강당에서 종단의 중창조인 상월원각대조사의 열반22주기 추모대재를 봉행한다.

방송소식

'동국TV불교아카데미' 개설

동국대학교(총장 송석구)와 불교텔레비전(대표이사 태응)이 동국대학교 사회교육원(원장 정병조) 교육과정의 하나로 불교텔레비전 시스템을 이용한 '동국TV 불교아카데미' 과정을 개설,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조인식을 지난 5일 가졌다.

동국TV불교아카데미는 불교TV 방송시스템을 이용한 방송통신 교육을 통해 불교교육의 대중화를 꾀하고 불교사상 전파의 전문인인 포교사를 양성함으로써 불교중흥과 동국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의 명찰' 등 비디오로

불교TV 영상사업단이 '한국의 명찰'과 '다큐멘터리 영상 천수경' 등 두편의 비디오교료물을 제작 출시했다.

'한국의 명찰'은 그동안 불교TV의 주요프로그램으로 50회에 걸쳐 방영한 것 가운데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사찰의 작품과 완성도가 높은 20편을 엄선해 제작한 것.

'다큐멘터리 영상 천수경'은 더불어 사는 삶이 너와 나의 구분이 없는 보살행임을 영상을 통해 중생에게 설파하고 있다.

영화 '유리' 부분삭제 개봉

영화 '유리'(감독 양윤호)시사회가 지난 5월31일 불교계 스님과 불자, 기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뤼미에르 극장에서 열렸다.

이날 시사회 결과 조계종 법복을 입은 장면, 촛불승의 살인장면, 유리와 누이의 정사장면등 약 5분가량이 삭제돼서 지난 6일부터 서울 뤼미에르극장, 동숭아트센터등에서 개봉됐다.



◇태국 최대의 축제 '베사크 데이' 법회장면.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상좌부 불교권에서는 매년 음력 4월 보름에 부처님 탄생·출가·최초 설법·열반일을 묶어 베사크 데이로 정하고 대대적인 축제를 벌인다. 지난 5월31일 태국의 베사크 데이 법회를 참관한 박동기씨(WFB 한국본부회장)의 참관기를 싣는다. 〈편집자 주〉

태국 「베사크 데이」 행사 참관기



박 동 기 〈WFB 한국본부회장〉

WFB 제53차 상임이사회의에 참석차 지난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태국의 수도 방콕에 머물렀다. 29~30 양일간 아마리호텔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참석한 회장단과 이사들 및 본부임원등 2백여명은 31일 본부를 방문하게 되었다. 마침 그날이 음력 4월보름이라 엄숙한 베사크 데이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베사크 데이는 매년 음력 4월보름 부처님의 출생·성도·최초 설법·열반일을 묶어서 국경일로 제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인연도 절과 스님을 찾아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불우한 이웃을 돌보는 날이다.

마치 우리의 부처님오신날처럼 모든 매스컴이 이 소식을 전한다. 그래서 이날 WFB 본부의 베사크 데이 행사는 태국에서 유학중인 8개국의 스님들 120여명을 초청하여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청해 듣는 의식으로 진행됐다.

불단 아래에는 약 300여명의 재가 신자들이 앉아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삼귀의례와 오계를 다같이 합장하여 염송하는 사이 불단위 부처님으로부터 늘어진 흰실이 좌장의 스님들까지 차례로 이어져 끝까지 돌아갔다. 아마도 일불제자임을 확인하는 그런 인상이었다. 세번 반복하는 오계송이 끝나자 법문이 시작되었고 (약 20분), 법문이 끝나자 단상의 스님들은 송경을 하였다. 11시가 되자 스님들은 대중공양장소로 모두 모셔졌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점심공양이 시작되었다. 공양이 끝나자 미리 준비한 일용잡화물과 상비약이 든 주머니가 각각 스님들에게 바쳐졌다. 공양이 끝나자 좌장의 스님은 청결한 물을 재가 불자들에게 일일히 뿌려주면서 소원성취를 발원하는 것으로 베사크 데이 행사는 끝났다.

나는 이 베사크 데이의 의식을 통해서 상좌부불교의 전통이 시사하는 바를 새길 수 있었다. 또한 일불제자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단순히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는 것을 확연히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스님들의 수행정진력을 엿볼 수 있었다. 철저한 이욕(裡慾)생활과 위빠싸나(Vipassana) 수행이 기본적으로 일상생활 속에 그대로 젖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법문듣고 이웃돌보는 국경일"

음력 4월보름 곳곳서 스님공양·자비실천

생생한 법어, 생생한 불교사료를 간직할 수 있는 기회 !!

현대불교신문 합본집 제1호 발간 !

이천만 불자 여러분의 창 대변지, 수행의 길잡이인 '현대불교신문'이 합본 제 1호 을 발간하였습니다.

■ 합본호 1집 : 현대불교신문 창간호(94.10.15) ▶ 제59호(95.12.27)
■ 가 격 : 50,000원 (발송비 별도)
■ 구입신청 : 현대불교신문사 경영관리국 전화 : (02)737-8881 팩스 : (02)737-0697



복이 될 인연을 만나면 복이 되고,
불행한 인연을 만나면 불행이 온다.

불치병,난치병,조상묘지 상담

◎현재 많은 분들이 만성질병에서 고통을 받는 것은?
◎고쳐진듯하다 또다시 재발하는 그 원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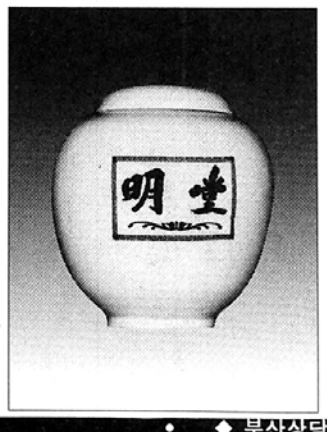
현대의학으로 치료 불가능한 불치병 치료와 조상과 부모 형제의 영혼과 고혼을 편히 모셔주면 자손들이 좋은 발복을 받아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는 비법을 오링 테스트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 법현법사!

◎신비한 영험을 얻는 비전을 법현법사 특별상담!

오링테스트는
생명과학의 파장테스트다.

오링테스트는 파장의 원리와 우주의 기를 이용하여 과학적인 비법으로 테스트하면 원인과 결과가 밝혀지는 신비의 비법이다.

만성질병 상담
정신병, 우울증, 중이염, 자폐증, 불임증, 근무력증, 뇌성마비, 신들림병



묘지상담
⊙조상의 유골에서 좋은 기를 받아야 자손이 복을 받게되고
⊙조상의 유골에서 나쁜 기를 받으면 불행을 면치 못한다는 것은…
(풍수 길·흉론이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연구하여 특수개발한 명당 도예는 영령을 영실에 편히 모시는 영혼의 명당유택이 된다.
⊙조상과 부모형제의 영혼을 명당도예에 모셔서 땅에 묻고 왕생극락을 발원하면 대운세의 터전이 되어 좋은 발복을 받아 행복과 영광이 이루어진다.
⊙운명을 가로막는 영혼과 병고와 불행을 주는 고혼을 지극한 효심으로 명당도예에 모셔주고 극락정토에 이룩하게 하면 그 공덕으로 금강보광제의 영약이 되어 만성질병도 치료되고 행운과 소원이 성취된다.

◆ 서울상담 ◆
· 장 소 : 안국선원 (승파구 오금동, 전철5호선 방이역 100m)
· 상담일자 : 매주 금,토 (2일간)
· 상담접수 : (02) 3401 - 3259

◆ 부산상담 ◆
· 장 소 : 대한불교불심포교원 (부산본역 건너편 국민은행뒤)
· 부산 상담일자 : 월~수 4일간
· 상담접수 : (051) 465-5100, 467-5200

현불뉴스

직능종회의원 선출

조계종 중앙종회는 5월29일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를 열고 결원된 직능직 종회의원으로 원학(해인사 관월암 암주), 법안(금선사 주지)스님을 선출했다.

유해환경 감시 서명

'우리의 자녀 우리가 지킵시다'라는 주제로 5월29일 동인천에서 실시된 유해환경 근절을 위한 정화 캠페인이 인천광역시 교육청, 숙박업협회,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을 비롯 청소년 3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진행됐다.

불교인권상 김창한씨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진관·한상범)는 제5회 불교인권상 수상자로 철도노동자였던 김창한씨를 선정하고, 오는 17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시상식을 갖는다.

환경의식 고취 세미나

여성불교연합회(회장 김묘주)는 지난 4일 서울 명동 LCI 프라자 2층에서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정전(서울대)교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향하여 환경친화적으로 소비양태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명성여고 풍물팀 대상

(사)대한불교청소년교화연합회(회장 현성)가 5월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개최한 제9회 청소년종합예술경연대회에서 명성여고 풍물팀이 대상인 문화체육부장관상을 차지했다.

전통예술부문, 대중예술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대회에는 총 16개팀의 청소년 단체가 참석했다.

대불청문화단 가두발표

대한불교청년회 서울지구(회장 김규범)는 지난 1일 대학로에서 문화단 가두발표회를 개최했다. 건전한 시민문화의식 함양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발표회는 풍물 길놀이를 시작으로 노래공연, 율동 및 레크레이션, 사물놀이 등이 다채롭게 펼쳐졌다.

종태스님 추모석물 제막

실천승가회(공동의장 청화·지선)는 지난 5일 파주 보광사에서 故종태스님 추모석물 제막식을 가졌다.

봉은사 고층건물 몸살 '심각'

ASEM 행사장 40층 3棟 일주문 '코앞에'

국가지정문화재뿐 아니라 많은 성보문화재가 남아있는 천년고찰 서울 봉은사(주지 무상)가 고층빌딩 신축으로 전통사찰의 면모를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오는 2000년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개최지가 지난 3일 서울 삼성동으로 선정됨에 따라 봉은사앞 무역센타 전시장에 대형건물 4개동이 들어설 것으로 보인다. 아셈을 유치한 무역협회에 따르면 객실 8백개의 40층 특급호텔과 40층 규모의 오피스텔 2개동, 5층규모의 컨벤션 센터 1개동을 내년 4월에 착공, 99년 12월에 준공한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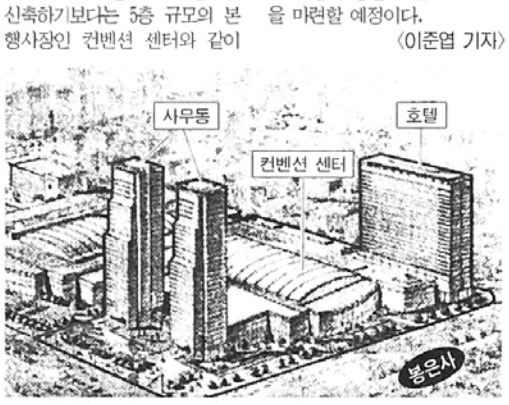
대형건물이 들어서는 장소는 봉은사앞·도로(왕복 6차선)건너편으로 전통도량 봉은사를 비롯 봉은근린공원으로 지정된 도심의 녹지가 최소한 1백m 높이의 건물숲에 둘러싸여 훼손될 우려를 안고있다.

이 자리는 조선 명종때(1552년) 부활된 승과고시를 실시한 '승과평(僧科坪)'으로 70년대 강남개발 당시 봉은사에 피해를 주지 않는 조건으로 무역협회가 봉은사땅을 수용했으나 봉은사측과 협의 없이 아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년전 서울민사지법이 봉은사 옆에 건립중인 19층규모의 대형빌딩과 관련 "문화재가 보존되어 있는 봉은사는 사찰 자체가 문화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며 건축 중지를 공시, 최초의 문화환경권보호라는 선례를 남겨 아셈유치단의 대형건물 건축여부가 주목된다.

봉은사 주지 무상스님은 "아셈이 국제적 행사라는 미명아래 자칫 전통문화공간이 파괴되어서는 안된다"며 "숙소와 행사업무를 위해 40층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5층 규모의 본행사장인 컨벤션 센터와 같이 저층건물을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봉은사는 자체적으로 아셈행사장 선정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한후 행정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종단과 연계해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준엽 기자〉



◇강남 봉은사 길 건너편에 1백m 높이의 고층건물들이 들어설 예정인 아셈 행사장 조감도.

승가대학원 9월 개강

조계종 설치령 확정…교수등 전문인력 육성

승가교육의 교수 및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승가대학원이 오는 9월2일 개강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은 지난 4일 교육원회의실에서 교육원회의를 갖고 학제를 연구과정과 전문과정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승가대학원 설치령(안)을 최종 확정하고 계획안을 수립했다.

승가대학원 설치령에 따르면 승가대학원은 기본교육기관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비구(니)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경전과 교학을 깊이 있게 연구케 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며 승가교육의 교수를 육성하는 교육기관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입학자격으로 연구과정(수업연한 2년)은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비구(니), 전문과정(수업연한 3년)은 승랍 10년 이상의 비구(니)로서 학림졸업자, 불교학 관련 석사학위 이수자, 승가대학원 연구과정 이수자, 사집 중강경력 2년 이상자; 강원과 중앙승가대 또는 강원과 동국대 불교대학을 모두 졸업한 자로 규정했다. 교육원이 확정한 승가대학원 설치령은 이달 중순경 중무회의를 통해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한편 교육원은 이날 승가대학원(전문과정)의 장소물색 등 향후 일정을 논의했다.

전국사암서 순국선열 넋 위로

현충일 맞아 수륙무차대회등 봉행

지난 6일 41돌 현충일을 맞아 전국의 각 사암에서는 천도법회를 봉행하는 등 국립묘지·충혼탑을 참배, 순국선열들을 추모했다. 〈관련기사 1·4면〉

서울 원각사(주지 보리)는 6일 탑골공원에서 호국영령을 위한 수륙무차평등법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선시대의 수륙대제를 재현한 것으로 수산스님(소림사 주지)와 3명이 어산과 작법을 시현했다. 또 강원도 월정사는 호국영령을 위한 천도법회를 지냈으며 신흥사는 무명용사충혼탑을 찾아 천도법회를 치루는 등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렸다.

병자년 하안거가 5월31일(음 4월15일) 해인 영축 조계 덕숭 고불총림을 비롯 선원 및 전국 사암에서 결제됐다.

이날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은 결제법어에서 "작

병자년 하안거 결제

야삼하(昨夜三夏)에 몸을 날리니 천동(天動)소리가 시방(十方)에 두루할 것이다. 네가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하면 수미산이 웃고 바다가 노할 것이로다"며 3개월간의 용맹정진을 당부했다.

법타스님 새 주지

은해사 산중총회서 선출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은해사는 지난 5일 산중총회를 열고 신임주지에 법타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을 만장일치로 선출했다. 전 주지 일타스님의 사표제출로 열린 이날 산중총회에는 60여명의 재적스님이 참석했다.

연화 무료 합동결혼식

태고종 한국불교사회봉사회(회장 설산)는 지난 5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구민회관에서 사정상 식을 못올린 10쌍의 연화합동결혼식을 거행했다.

이날 결혼식에서 설산스님은 주례사를 통해 "부부간의 지중한 인연을 생각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며 효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주서 첫 청정운동 실천대회

사부대중 2천여명 동참 '열기'

전주지역 '청정운동 실천대회'가 지난 9일 전북예술회관에서 개최됐다.

서울 부산 등 전국 7개도시를 순회하며 열리게 될 청정운동 실천대회 가운데 처음으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정병조교수(동국대)는 "새로운 불교운동은 재가불자들의 자각을 전제로 한다"며 "현대사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운동은 불교의 오계정신의 확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회참가자들은 "종교는 권위와 세력을 위한 집단이기심으로 갈등의 불길이 팽배하고 있으며 정치는 권모술수로 불신과 오욕으로 얼룩져 있다"며 "본래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 사회의 청정성을 회복하는데 앞장설 것"이라는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 14일 창립

기아·빈민구호등 지구촌 자비 실천

기아 질병 아동 구제기구인 '이웃을 돕는 사람들'이 오는 14일 오후2시 조계종 불교회관에서 창립된다.

경제정의실천불교시민연합과 자비의 집, 외국인노동자마을이 구성한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기아와 질병으로 하루 3만5천명, 일년에 1천3백만명씩 인종과 국가를 초월해 세계적으로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귀한 생명을 살리는 활동을 범불교적으로 펼쳐나갈 방침이다.

'이웃을 돕는 사람들'은 빈민구호사업외에도 교육, 아동결연, 의료봉사, 주민자활, 포교사업을 전개한다.

자비와 방생의 사상으로 시작된 '이웃을 돕는 사람들' 창립에는 1천8백여명의 후원회원이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불자들의 계속적인 동참이 기대된다. 02)980-5120~1

조계종 121회 종회 18일부터 5일간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설정)는 제121회 임시중앙종회를 오는 18일 5일간의 회기로 개최한다.

이번 임시종회는 종감특위 해체등 각 상임분과위 보고에 이어 총무원이 제안한 종법제·개정안을 논의한다.

총무원이 종회에 제안한 종법은 사찰부동산관리법(제) 종무원법(개) 문화재관람료관리법(제) 사면법(제) 사설사암등록및관리법(개) 산중총회법(개) 분담금납부에관한법(개) 승려법(개)등 8개 법안이다.

해외포교 30년 기념법회

20일 힐튼호텔 30여국 300여 스님 한자리에

해외에서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스님들을 위로하고 향후 체계적인 국제포교를 모색하기 위한 '한국불교 해외포교 30년 기념법회'가 오는 20일 오후 6시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월주)이 해외포교 30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법회에는 전세계 30여개국 1백60여개의 한국사찰 및 포교당에서 포교에 전념하고 있는 스님 및 관계자 3백여명이 초청돼 한자리에 모인다.

총무원은 이날 해외포교에 공로가 많은 숭산스님(화계사 조실)에게 공로패, 해외포교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명의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한다.

이번 법회를 준비하고 있는 총무원 관계자는 "해외포교를 담당하고 있는 스님 및 포교사가 한자리에 모여 포교경험을 공유하고 향후 해외포교를 전망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이번 법회를 통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외포교를 전담하는 국제포교연구소가 출범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방암사망 신숙희씨 각막·시신 병원기증

생명나눔실천회(이사장 법장)는 지난 1일 유방암으로 사망한 불자 신숙희씨(68)에게서 장기와 시신기증을 의뢰받고, 고려대병원에 각막 및 시신을 기증했다.

WFB 한국대회 '예정대로'

11월 1~10일 서울·경주…재원 불투명

세계불교도우의회(WFB) 제20차 한국대회가 올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과 경주에서 열린다.

지난 5월 29일 태국 방콕의 WFB본부에서 개최된 이사회에 참석한 한국본부 박동기회장(동국대 체육실장)에 따르면 "예정대로 제20차 대회는 '오계파지로 세계평화를'이란 주제로 한국에서 개최키로 최종 확인했다"고 이사회 결과를 밝혔다.

한국대회 개최는 지난해 6월 WFB이사회에서 결정됐으나 한국본부 대회장의 돌연한 사퇴와 10억원에 이르는 재원조달의 어려움으로 그동안 개최여부가 불투명했다.

박동기회장은 "교구본사 주지를 역임한 중진스님이 대회장을 맡기로 했다"며 "20일경 서울 신문로에 준비위원회 사무실을 열어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회장을 수락했다고 밝힌 스님쪽에서는 "대회장 수락을 검토중이다. 향후 조계종단에서의 역할과 관련해 숙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원조달에 대해서도 박동기회장은 "후원기업체를 거의 확보한 상태"라고만 밝혀 아직까지도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요구 관철때까지 농성 계획

중앙승가대 학생회

중앙승가대학 학생회(회장 원철)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제반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이사장 퇴임 및 문제해결을 위해 총무원을 항의방문, 농성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학생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학사이전 즉각이행 △학장선임 철회 △학사이전금의 차질없는 집행 및 학교자산 마련 △현 안암동불사 마무리 및 도량정비 △등록금의 전액 종비 지원 △학교법인의 독립성 자주성 보장 △총무원장의 이사장 당연직으로 되어있는 종법개정 △종단의 교육체계 일원화를 통한 교육재원의 우선지원 △이사장의 공개사과 등 9개 요구상항을 제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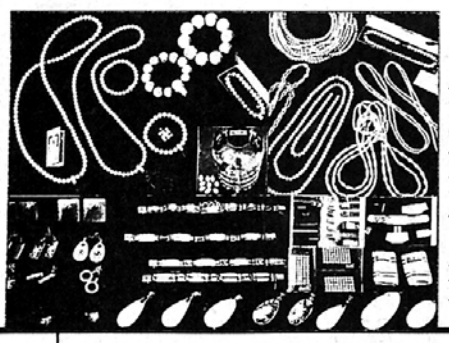
한편, 총무원의 한 관계자는 "중앙승가대학의 문제는 학교 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으로 총무원은 이사회 결정에 따를 것이다"고 밝혔다.

마음 우주는 내속에

나로부터 모든 것이 벗어졌습니다. 내가 있고서야 우주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주는 내속에 있습니다. 내가 우주 속에 있는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티끌속에 우주가 들어가도 남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한마음원전)

협찬 한마음선원 법형제회

춘천 옥산가 옥의 신비를 아십니까?
우아함과 품위를 살리는 동양의 보석
신경통, 고혈압, 당뇨, 변비, 잇몸질환 등의 난치병을 치유하고 집중력, 판단력, 창의력, 기억력, 아이큐 학습능률을 증대하며 선(禪)과 기도에도 좋습니다. 꾸준히 사용해 보십시오.
참으로 신기하게도 잘 듣습니다.
* 세계 유일한 보석 옥산가 백옥
* 眞玉은 옥산가에서만 판매함

* 상식의 테두리에 사로잡혀 있는 선입견, 신비의 힘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존재 그자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한국일보 북경중의원 부속중의연구소 임상실험
중국 내 난치병 환자를 상대로 임상실험 결과 불면증 90.9%, 심장질환자 92.9%, 귀울림병 91.3%, 어지러움증 91.3%, 두통 83.3%, 고혈압 77.8%, 관절염 60%의 놀라운 치유효과를 기록했다.
대전 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임상실험
두통, 불면증, 불안, 손발저림 소화불량 환자를 대상으로 춘천연옥제품을 착용시켜 임상실험 결과 혈비지 84%, 요통 걸이 88%의 치료효과가 있음을 밝혀냈다. ('93. 2. 17)
외국일보 春川産 白玉 성인병에 卓效
서울시 중구 을지로 2가 50번지 (쁘랭땅 백화점 지하상가 입구)
玉山家® 777-0105
옷 보석 金寧

참나 청소년 통일문화·예술대전 입상자 명단

통일원 장관상—석지은(이태천초등 6년)·신현아(갈산중 1년)·김영식(유리불교 미술원)
문화체육부 장관상—김민규(화계초등 2년)·고정원(무학여고 1년)·송호섭(대한장애인 공예협회)
(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상—△특선: 김혜진(양재초등 6년)·이종은(신광분상 조성원) △금상: 강원(동방불교대학) △입상: 김정곤(유리불교미술연구원) △단체우수상: 분광사 청년회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상—△특선: 이의현(자천중 3년) △금상: 서소희(동방불교대학)
(재)불교방송상—△특선: 모영만(작동초등 4년) △은상: 권보라미(당중초등 3년)
(사)한국불교단체총연합회 회장상—△은상: 권수현(상원중 2년) △입선: 김성자(동방불교대학)·윤수정(동방불교대학)·홍종일(동방불교대학) △동상: 남기현(갈산초등 3년) △장려상: 김미현(갈산초등 4년)·정민규(선덕중 1년) △가작: 성수지(은곡초등 2년)
(사)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상—△금상: 김상훈(화전초등 3년)·강인아(갈산초등 2년) △은상: 심현희(동수초등 3년) △동상: 홍성부(효성동초등 4년)·김선이(원명초등 4년)·김숙영(대방여중 2년) △장려상: 정세현(은행초등 6년)·박소은(상명여중 1년) △가작: 박병대(이수초등 6년)·정소연(작동초등 4년)
대한불교진각종 통리원장상—△특선: 정지현(상도초등 5년)·한상욱(대한장애자 공예협회)
현대불교신문 사장상—△은상: 오정원(신관중 3년) △동상: 조원진(금란여중 2년) △장려상: 최인화(화곡초등 3년)·문형섭(흑석초등 2년) △가작: 최정우(하정초등 6년)
동국대학교 총장상—△특선: 김도영(이수초등 5년)·안자형(부인중 2년)·조귀옥(대진 공예사)
(재)명원문화재단 이사장상—△단체우수상: 초등부(까치글짓기)△은상: 이영일(흑석초등 5년)·이설희(화천중 1년) △동상: 오경순(신림초등 6년)·윤보혜(금란여중 2년)·신지현(갈산중 1년) △장려상: 최수진(연화초등 5년)·이현모(신상계초등 5년)·김민형(중평중 1년) △가작: 김예지(이수초등 1년)·최태훈(연성초등 4년)·김명선(이수초등 1년)
한국불교청년회 회장상—△동상: 권준환(상원초등 5년) △장려상: 황원신(작전초등 6년)·장푸른아(계산초등 3년)·전혜진(까치글짓기)·김주윤(영동중 2년)·김형주(부평중 1년)·이종욱(이대부속초등 3년)
한국불청년회 회장상—△가작: 임이지(홍연초등 3년)·이한나(소의초등 6년)·장호연(안남초등 3년)·최진영(신학초등 2년)·최준영(작동초등 2년)·김승현(서울왕북초등 6년)·이강원(중대부속초등 6년)·김진우(영도초등 2년)·권부경(왕북초등 6년)·박성권(매송초등 5년)·권세영(중대부속초등 4년)·김나영(신상계초등 5년)·조우람(전동초등 5년)·윤혜미(봉일천초등 6년)·조하나(전동초등 3년)
(주)불교텔레비전 이사장상—△금상: 김혜정(부인중 2년) △은상: 임원석(이수중 3년) △입선: 박정민(동방불교대학)·김창오(대한장애자 공예협회)·박미선(동방불교대학)·신경화(우리불교미술원) △동상: 한혜은(연천초등 6년) △장려상: 이근성(화계초등 2년)·김미현(갈산초등 3년)·이혜현(이대부중 1년)
(재)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상—△금상: 하응준(계산중 1년) △은상: 김지용(부인초등 6년)·고기영(대한장애자 공예협회) △입선: 이정은(유리불교미술원)·나윤수(유리불교 미술원) △동상: 한송이(대방여중 2년) △장려상: 백준형(하안북초등 1년)·인신영(서초초등 5년)·유제관(부평중 1년)

대중불교 6월호

대중불교의 빛을 찾아서
김누원 신경외과 원장/김회균
쇠북소리 - 뇌사와 화장과… /김정자
대중불교시사
거듭되는 사찰 방화사건/서동석
귀담아 듣고 새겨볼 이야기
다시 경주고속철도 백지화를 말한다/황찬익
실천불교를 말한다(3) 다시 사람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효림
기획 - 미래를 위하여 1
수행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한다./김회균

특집 - 기 (氣)
기란 무엇인가/김교빈
현대과학과 기/김영우
각계에 다시 움트는 기-기의 종류/황찬익
기, 느끼고 활용할 수 있다/김관동

불교교리산책 유식(5)알라야식과 무의식/정승석
명상칼럼(5)불해(不害)의 덕(德)/용타
선화일편-소쩍새 우는 밤에 목련이 지네/설산
신행상담-출가의 바람직한 자세는?/상덕

한국종파불교(2)신인종(神印宗)
한국의 호국밀교/일지
해외불교석화열전(6)함마라바 사다하타싸/정희수
일본을 개척한 위대한 한국인(10)
일본 최초의 백제 가람 아스카사/홍윤기
불교의 민속(17)불교와 민속신앙에서의 미륵/김종대

칼라화보
원성스님의 동심의 노래⑤ 원성
구산선문(8)
회양산문 봉암사/김회균·김성철
한국의 서정 -_ 모내기/김성철

이사람과 일 - 불교화가 홍경팔 씨/노희경
포교당 일기 - 그리운 사르비아/원옥
환생의 나라, 티벳 - 카일라스 성산의 밀입국 순례자들
/김선정
봉주우르, 길상입니다. - 고독한 동안/지묵

직능불교
한국불교연구원 교사불자연합회/김관농
오늘을 사는 불자들 - 문태준/정의수/한국불교환경 교육원
/김영무

함께 이루는 청정국토 - 저 연두빛 이불을 지킬 수 있는방법
/성낙진
건강 - 궐증과 소합원/해월
컴퓨터 배우기 하나, 둘 셋 - 데이터베이스와 불교자료
/김응철
시 - 낙화/정화
한 조각 깨달음이 있는 수필
연초록 잎새 한 잎만큼만/고재종
봄비 내리는 소리에/장기연
대추나무/이영숙

대중불교 책세상 - 인간과 인생에 대한 진지한 사색/고명석
행사 - 불교개혁의 낙관주의
만화 - 탐욕이 죄를 낳고/윤승운
신간안내
대중불교 전국소식

신라의 법향…감탄…숙연…찬불

감은사東탑 발굴유물 지상전

순금풍경·사천왕상등 금속세공 걸작품

국보급 유물 대량공개 조계종 사리인수 연말 봉안

1천3백년동안 묻혀있던 신라의 숨결을 담은 찬란한 유물들이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4월 25일 경북 경주시 감은사지 東3층석탑(국보 제112호)의 해체·보수과정에서 발견된 금동제 사리함에서 순금 풍경과 사천왕상(四天王像) 장식 등 신라인들의 빼어난 금속세공술을 보여주는 국보급 유물이 다량으로 나왔다.

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은 이 사리함에 대한 정밀해체 결과 금동제 사리기 1기를 비롯해 수정으로 만든 사리병, 금제 사리병 투정 및 받침, 스님상과 사천왕상 각각 4구, 용상과 사자상 각각 4개, 금제 풍경 5점, 사리 55과 등을 수습했다고 밝히고 지난 5월30일 이를 공개했다.

이중 금제 풍경은 크기가 0.5~0.7cm밖에 되지 않으나 순금판을 말아 풍경 모양을 만든 뒤 가운데에 금으로 된 실을 늘어뜨리고 여기에 소리를 내는 고리를 달아놓은 정교한 제품으로 전문가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이번에 발굴된 사리함은 전체적인 짜임새나 기법이 1959년 서탑 해체시 나온 것과 비슷하지만 서탑의 것이 남성적인데 비해 규모면에서 조금 작고 여성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으며, 세공기술과 장식 등이 더욱 정교하고 세련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이호관 미술부장은 "이번에 공개된 유물은 신라시대 금속공예기법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으로 7세기 작품중 최고 걸작품"이라며 "불교조각사 및 공예사 연구에 획기적인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은 이날중 사리 55과를 문화재관리국으로부터 인수, 서울에서 일정기간 사리친견법회를 가진 뒤 감은사탑이 복원되는 올 연말쯤 장중한 불교의식을 거쳐 다시 탑속에 봉안할 방침이다.

글:한명우 기자 사진:고영배 기자



악귀밟은 지국천왕 사리기 외함 동쪽 몸체의 '지국천왕상(持國天王像)'. 높이 24cm, 폭 19cm로 지국천왕이 왼손에 금강저(金剛杵)를 쥐고 악귀를 밟고 있는 모습으로 그 형태가 확연하다.



사리기 받침 높이 6.4cm, 폭 14.5cm의 사리기 대좌(臺座·받침). 상대(上臺)엔 당초문(唐草文)과 앙연장식(仰蓮裝飾)에 가장자리에 난 간을 설치해 꾸미고 있다. 중대(中臺)의 과 연화 팔부신중상(八部神衆像)이, 하대(下臺)엔 연꽃이 장식돼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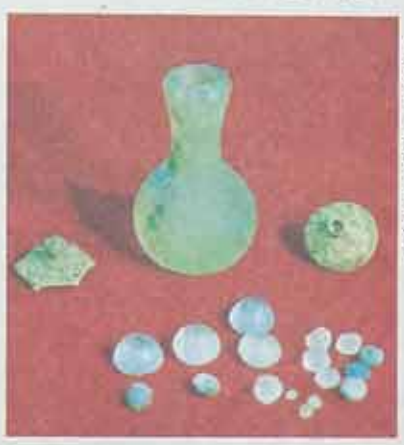
순금풍경 사리기의 장엄물에 달렸던 것으로 추정되는 금제 풍경. 0.5/0.7cm 크기로 7세기 신라공예기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걸작이다. 사진은 실물크기를 현미경으로 확대촬영한 것.



신라의 미소 사리병 주위를 장식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크기 2.5~2.8cm의 스님상. 발 아래에는 촉이 있어 꽂아서 세울 수 있게 되어있다.



사리기 복원도 부식이 심한 사리기를 컴퓨터로 복원한 사진. 전체높이(寶珠포함) 13.4cm로 단집모형이다. 가운데 연꽃처럼 생긴 탑인 빈 공간에 수정사리병을 안치했다. 난간을 두른 2층 대좌에 스님과 사천왕상 각 네점이 사리를 호위하듯 둘러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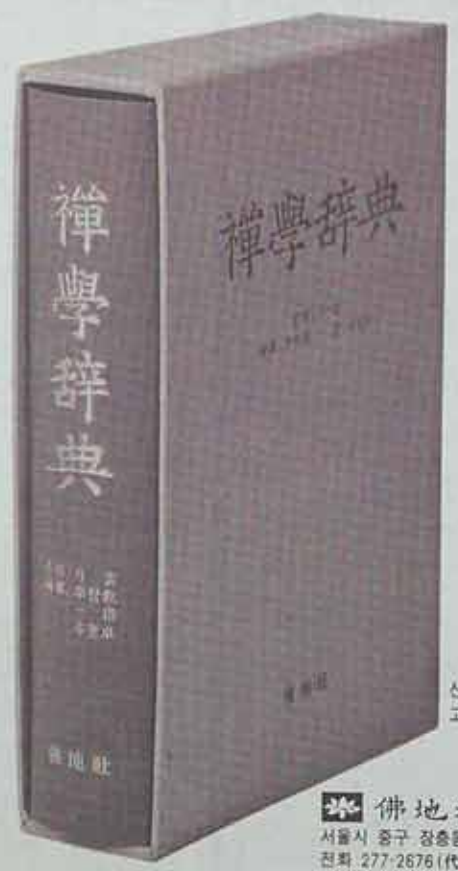


수정 사리병과 사리 높이 3.7cm 입지름 1.2cm크기의 수정 사리병과 영롱한 사리 서원된 장식의 금제투정 및 받침. 투정과 받침에는 연화문(蓮花文)모양으로 금실을 틀이고 그 위에 지름이 0.5cm의 안되는 금알갱이를 1백여개나 붙였다.

8년만에 편찬작업 회향… 선어·공안·인명·지명·서명·사원명 등 9,100여 표제어 수록

禪學辭典

祖師의 바다를 건너려면 튼튼한 뗏목이 필요합니다



신국판 / 1,000쪽 / 고급 양장케이스 / 값 45,000원

佛地社
서울시 중구 장충동 2가 188-6 뉴장충빌딩
전화 277-2676(代) 팩스 278-9118

편찬 내용

1. **용어**는 각종 선문헌에 실려있는 선어, 청규, 성구, 구어, 속어 등 5,156 항목을 선정하여 내용과 용법을 상세히 풀이하였습니다.
2. **인명**은 선종의 어록과 전기 관계 문헌에 수록되어 있는 인물중에서 수행 교화 저술등에 큰 공적을 남긴 1994년까지의 인물 2,253명을 선정해, 생몰년·소속종파·속성·법호·출신지·사승·수행경력·가풍·저술·시호·관계자료의 순으로 기술하였습니다.
3. **지명**은 저명한 선승들의 활동 지역과 사원 소재지를 중심으로 132항목을 골라 옛지명과 현대의 지명을 함께 밝혀 놓았습니다.
4. **서명**은 선에 관한 간본·사본·돈황문헌을 중심으로 705항목을 선정해 그 문헌이 실려있는 총서 내의 권차와 편차를 해설문의 끝에 밝혀 놓았습니다.
5. **사원명**은 저명한 선승이 주석했던 사원과 유형 무형의 선문화 유산이 있는 사원 157항목을 선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6. **공안**의 명칭은 중복과 혼용을 가려 695항목으로 정리해 문답하는 인물과 내용을 출전과 함께 수록하였으며, 명칭은 공안집의 예를 따랐습니다.
7. **편찬 자료**로는 그동안 정리가 충분하지 않았던 국내 선불교 관련 자료를 널리 수집하고, 중국 대만 일본에서 발행된 선종관련 문헌과 사전을 참조하였습니다.

특 징

1. 선종 관련 용어 인물 서명 사찰등 총 9,100여 항목을 엄선하여 해설함으로써 편찬의 밀도를 높였습니다.
2. 기존의 사전에서는 볼수 없는 한국 선종과 관련된 용어 인물 서명 사찰등을 표제어로 발굴해 수록 해설한 우리의 선종사전입니다.
3. 각 항목마다 해설의 말미에 출전과 예문을 소개해 상세한 주석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4. 선어록에서 자주 사용되는 당·송대의 구어와 속어를 자세하게 소개하는 등 풍부한 어문학적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 방대한 선학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편찬한 ▲선종사연표 ▲선종법계도 ▲선서목록 ▲선학참고문헌일람 ▲선종사지도 등 전체 분량의 4분의 1을 부록으로 엮었습니다.

부 록

1. **선종사연표** : 국내, 국외(인도 중국 일본)순으로 선가의 주요 사실들을 B.C. 544년부터 A.D. 1994년까지 정리해 수록하였습니다.
2. **선종법계도** : 선종의 법맥계승을 인도 중국 한국의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특히 한국 선종의 법계도는 대고 보우 이래 청허 휴정의 법계를 주안으로 삼아 수록하였습니다.
3. **선종사지도** : 불교가 전개된 주요 지역의 산이름과 사원 명칭을 인도 중국 한국의 순으로 수록하였습니다.
4. **선서목록** : 선종과 관련된 경·율·론의 주요 전적과 선종 문헌을 나라·종파·시대별로 분류하여 수록하였습니다.
5. **선학참고문헌일람** : 국내외의 선학사전및 일반 불교사전·연표·인명사전·목록 등 각종 참고자료를 수록하였습니다.

감 수

월 운 스님 봉선사 회주 / 前 동국대 역경원 원장

"겉에 두고 살펴보니, 남방의 선정 연대 층치 고증 내지 법어표기와 한글맞춤법에 이르기까지 모두 적절하게 손질되어 있어 실로 주옥같다는 말로 표현함이 과하지 않을 것 같다."

("감수의 말" 중에서)

편 찬

이철교 / 동국대 불교학과 졸업 · 동국대 중앙도서관 사서과장
임 지 / 해인사 강원및 율원 졸업 · 수국사
신규탁 / 일본 동경대 문학박사 중국불교사 연구 · 연세대 철학과 교수

전국 대형서점과 사찰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본사로 다량주문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문의 : 277-2676)